『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沈在箕* · 李丞宰**

1. 머리말

이 글은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 體系를 간단히 논의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華嚴經』 口訣文을 中世國語의 한글 表記로 轉寫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1993년 7월 13~14일에 열린 구결연구회 제10회 공동연구회에서 대구 某氏 소장본인 『華嚴經』 卷第十四가 南權熙 敎授에 의해 학계에 공개되었다.[1] 이 화엄경에는 釋讀口訣이 記入되어 있어서 이 자료는 『舊譯仁王經』을 능가하는 자료로 평가를 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漢文을 우리말 語順으로 풀어 읽고 漢字를 우리말 새김으로 새겨 읽은 자료로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동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1) 그때에는 「高麗本 '大方光佛華嚴經' 卷第十四와 그 口訣資料 소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를 약간 수정·보완하여 南權熙(1996)으로 다시 발표하였다. 화엄경의 서지적 연구는 이 논문과 南權熙(1997)을 참고하기 바란다. 南權熙(1997)에는 5종에 이르는 석독구결 자료의 서지 사항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는 구역인왕경밖에 없었다.[2] 그런데 이 자료의 출현으로 석독구결 연구가 아연 활기를 띠게 되었고 석독구결이 高麗中期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일이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구역인왕경에 기입된 口訣字와 口訣吐만으로는 석독구결의 表記法 體系를 운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발견을 계기로 보다 정밀하게 口訣字의 讀法과 口訣吐의 運用 方式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고려 시대는 국어 문법사의 공백기로 남겨져 있었는데 이 자료를 통하여 文法史的 再構를 모색해 보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화엄경의 발견이 국어학계에 가져온 파문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아직껏 이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華嚴經』 卷14 全文을 한글로 轉寫한 적이 없다. 이 글은 바로 이 작업의 일환으로 씌여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화엄경 구결에 나오는 口訣字들을 간단히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 구결자들에 대해서는 李丞宰(1993)에서 논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아직 나온 바 없다. 그러나 몇몇 사소한 비판도 없지 않았으므로 이 기회에 이들을 수용하여 우리의 견해를 간단하게나마 내 보이게 될 것이다.

口訣吐는 여러 구결자들의 연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떤 구결토에 대해서는 풀어 읽는 독법이 학자마다 다르다.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 간단히 우리의 견해를 피력할 것이다. 어떤 구결토에는 생략된 구결자가 있는가 하면 중복된 표기도 눈에 띈다.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화엄경 구결의 표기법상의 몇 가지 특징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이들을 바탕으로 『華嚴經』 卷14 全文을 구결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15세기 한글 표기로 轉寫해 보고자 한다.

---

2) 安秉禧(1987)이 소개한 均如大師의 方言本이 여기에 추가되기도 한다.

2.『華嚴經』口訣의 表記法

李丞宰(1993)에 제시된 口訣字 目錄은 다음과 같다.

(1)口訣字	讀法	本字	口訣字	讀法	本字
1. 這	곧/갓	這	2. 去	거	去
3. 在	겨	在	4. 古	고	古
5. 果	과/와	果	6. 尒	곰	爾
7. 只	기/기	只	8. 乃	나	乃
9. 飛	노/나	飛	10. 斤	늘/놀	斤
11. 奴	노	奴	12. 卜	누	臥
13. 尼	니	尼	14. 丨	다	如
15. 如	다	如	16. 冬	돌	冬
17. 矣	딕	矣	18. 矣	딕	矣
19. 彼	뎌	彼	20. 丁	뎡/뎌	丁
21. 刀	도	刀	22. 斗	두	斗
23. 入	드/ᄃ/돌	入	24. 矢	디	知
25. 羅	라	羅	26. 以	로	以
27. 利	리	利	28. 令	리(?)	??
29. 每	마	每(每?)	30. 分	며	彌
31. 火	브/ᄇ	火	32. 叱	ㅅ	叱
33. 沙	사/ᅀ	沙	34. 白	숣	白
35. 立	쎠	立	36. 立	쎠/셔	立
37. 示	시	示	38. 賜	ᄉ(시?)	賜
39. 令	식(ᄒᆞ?)	令	40. 良	아/애	良
41. 亦	여	亦	42. 亦	여	亦
43. 之	예	之	44. 汚	오/우	汚
45. 隱	은/ᄋᆞᆫ/는/ᄂᆞᆫ	隱	46. 乙	을/ᄋᆞᆯ/를/ᄅᆞᆯ	乙
47. 尸	읋/ᄋᆞᆷ	尸(?)	48. 音	음/ᄋᆞᆷ	音

49. ᄋᆞ 의	衣	50. ㅣ 이	是
51. ㅁᆞᆫ 긛(?)	印	52. ᄌᆞ 져	齊
53. ᄼᆞ [指定文字]	敍	54. ᄒᆞ 하	下
55. ᄉᆞᆼ 爲	爲	56. ᄒᆞᆫ 히/긔	中
57. ᄒᆞᆫ 호	乎	58. ᄒᆞᆼ 히	兮(屎?)
59. ᄯᆞ 지(디?)	止	60. ᄂᆞᆞ [逆讀點]	
61. [造]	造		

이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口訣字들만을 뽑아 간단히 우리의 견해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3번의 'ᄀᆞ'는 '在'字에서 온 것으로서 '겨'로 읽는다. 이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없으나 'ᄀᆞ'가 표기하는 '-겨-'의 文法範疇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李丞宰(1996)은 이 '-ᄀᆞ[겨]-'를 主體敬語法(혹은 尊敬法) 先語末語尾인 것이라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이를 補助動詞의 일종으로 보아 持續의 의미를 가지는 '(-어/아) 있-'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나 李丞宰(1998)의 尊敬法 및 謙讓法 항목에서 다시 거론하였듯이 '-ᄀᆞ[겨]-'는 존경법의 '-ᄒᆞ/ᄂᆞ[시]-'와 형태론적 분포가 동일하고 존대의 등급에서만 차이가 난다. 만약에 이 '-ᄀᆞ[겨]-'가 持續 즉 '(-어/아) 있-'의 의미를 가진다면 주어 위치에 佛이나 지위가 높은 菩薩이 왔을 때에는 왜 이 '-ᄀᆞ[겨]-'가 쓰인 일이 없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ᄀᆞ[겨]-'가 존경법 선어말어미의 일종으로서 大衆佛子類에 호응하는 형태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5번의 'ᄉᆞ'는 '果'字의 마지막 두 획을 딴 것으로서 '과'로 읽는다. 李丞宰(1993)에서는 이를 '과/와'로 表音하였으나 'ᄉᆞ'를 '와'로도 읽었을지 의심스럽다. 이 'ᄉᆞ'는 공동격의 '-과/와'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공동격의 '-과'가 '-와'로 교체되지 않는 方言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郭忠求 1994, 1995). 지금까지도 '-와'로 교체되지 않는 방언이 존재한다면 이 교체가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ㅅ'의 표음을 '과' 하나로 고정해 둔다.

李丞宰(1993)에서는 9번의 'ㅌ'가 'ᄂᆞ/나'를 표음한 것이라 하여 時相形態의 'ᄂᆞ'를 표기할 때에도 쓰인 것처럼 기술하였다. 즉 『구역인왕경』의 해독 이후에 널리 알려진 바를 좇아 'ㅌ'가 15세기의 시상 형태 '-ᄂᆞ-'에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ㅌ'를 'ᄂᆞ'로 읽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상 형태 '-ᄂᆞ-'의 표기에는 12번의 'ㅏ'가 이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ㅌ'가 시상 형태 '-ᄂᆞ-'에 대응하는 예를 사실상 찾기가 어렵다. 'ㅏ'를 '누'로 읽는다 하더라도 'ㅏ'가 시상 형태 '-ᄂᆞ-'에 대응하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에 'ㅌ'를 'ᄂᆞ'로 읽으면 15세기의 시상 형태 '-ᄂᆞ-'의 표기에 'ㅏ'뿐만 아니라 'ㅌ'도 쓰였다는 논의에 이른다. 그런데 'ㅏ' 뒤에는 거의 대부분 '-ㅁ/ㅇ/ㄹ[오]-'가 오거나 '-ㄱ[ㄴ]'이 오지만 'ㅌ' 뒤에는 이들이 오는 일이 거의 없다. 이것은 'ㅏ'와 'ㅌ'의 분포가 서로 다름을 뜻하므로 'ㅏ'와 'ㅌ'를 서로 구별해서 읽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ㅌ'가 시상 형태 '-ᄂᆞ-'의 표기에 이용되었다는 기술을 이제는 버리기로 한다.

화엄경의 'ㅌ'는 15세기의 '-거/어/나-'의 '-나-'를 표기하기도 하고 동명사어미 '-ㄴ'에 처격조사 '-아'가 통합된 '-나-'를 표기하기도 한다. 未知의 形式名詞 'ᄂᆞ'를 표기한 것처럼 여겨지는 'ㅌ'도 적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용법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하나씩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가. 諸ㄱ 佛乙 信奉ㅅ白ㅌ尸のㄱ 則ㅈ 能ㅈ 戒乙 持ㅅㅋ 學處乙 修ㅋㅅㅌ不分 (화엄10:10)

나. 斜曲ㅅㅌㄴ 路乙 見ㅅㄱㅣㅓㄱ 當 願 衆生 不正道乙 捨ㅅㅈ ㅅ 永ㄷ 惡見乙 除ㅌㅗ (화엄4:24)

다. 我ㄱ 今ㅅㄱ 已ㅈ 諸ㄱ 菩薩尸 爲ㅈ 佛矢 往ㅈㅓ 修ㅎㅁㄱㅌ

ᄂᆞᆫ 淸淨行ㄹ 說ᄒᆞ ᄆᆞᄅᆞᄉᆞᄫᆞᄆᆡ ᄆᆞᄅᆞᄉᆞᄫᆞᄆᆡ (화엄8:23)

(2.가)의 'ᄂᆞᆷᄆᆞᄅᆞᄆᆞᆫᄀᆞ[ᄒᆞ숩낧든]'은 吏讀資料의 'ᄒᆞ숣걸든'과 諺解文의 'ᄒᆞ숩거든'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ᄆᆞ[나]-'를 '-거/어/나-'의 '-나-'에 대응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때의 '-ᄆᆞ[나]-'가 15세기의 '-거/어/나-'와 그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문법이나 의미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계통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응 관계를 인정할 뿐이다.

(2.나)의 'ᄂᆞᄆᆞᄂᆞᆫ[ᄒᆞᄂᆞᆫ]'은 'ᄒᆞ+ㄴ+ᄋᆞ+ㅅ'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때의 '-ㄴ-'은 동명사어미이고 '-ᄋᆞ-'는 매개모음이며 '-ㅅ'은 속격조사로 볼 수 있다(南豊鉉 1996다). 그런데 이때에는 동명사어미 '-ㄴ'에 속격조사가 직접 통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동명사어미 '-ㄴ'과 속격조사 '-ㅅ' 사이에 매개모음 '-ᄋᆞ/으-'가 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15세기 문법에서는 동명사어미 '-ㄴ'에 속격조사가 직접 통합된 예가 없다. 또한 '-ㄴ'으로 끝나는 명사에 속격조사가 통합될 때 '눈믈/*누ᄂᆞᆺ믈, 안길히오/*안ᄒᆞᆫ길히오, 梵天ㅅ世界/*梵天ᄋᆞᆫ世界, 世尊ㅅ神力/*世尊ᄋᆞᆫ神力' 등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속격조사 바로 앞에 매개모음이 끼어드는 일이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매개모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속격조사의 목록에 아예 음운론적 이형태인 '-ᄋᆞᆫ/은'을 추가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ᄋᆞᆫ/은'의 '-ᄋᆞ/으-'가 15세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필자는 'ᄂᆞᄆᆞᄂᆞᆫ'을 'ᄒᆞ낫'으로 읽고 이를 'ᄒᆞ+ㄴ+아+ㅅ'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이때의 '-아-'는 동명사어미 '-ㄴ'에 직접 통합된 처격조사라 할 수 있다. 처격조사에 다시 속격조사 '-ㅅ'이 통합되는 것은 15세기 문법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2.다)의 '修ᄒᆞᄉᆞᄫᆞᄀᆞᄆᆞᄃᆞᆫᄂᆞᆺ[닷ᄀᆞ시온ᄂᆞᆺ]'의 'ᄆᆞ[ᄂᆞ]'는 명사류가 올 자리이므로 'ᄆᆞ[ᄂᆞ]'를 형식명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15세기의 언해문에서

는 형식명사 'ᄂᆞ'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형식명사는 전기중세국어와 후기중세국어의 교체기에 사라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후대의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형식명사 'ㅌ[ᄂᆞ]'를 설정하는 것이 마뜩치 않다면 '修ᄒᆞᅀᅩᄀᆞㅌㅅ'을 '닷ᄀᆞ시온낫'으로 읽고 'ㅌㅅ[낫]'을 앞에서처럼 동명사어미와 처격 및 속격조사의 통합형이라 할 수도 있다. 즉 '修ᄒᆞᅀᅩᄀᆞㅌㅅ[닷ᄀᆞ시온낫]'은 '-ㄱ[ㄴ]-'이 없는 '修ᄒᆞᅀᅩㅌㅅ[닷ᄀᆞ시오낫]'과 형태론적 구성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서 '-ㄱ[ㄴ]-'의 重綴 여부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ㅌ[ᄂᆞ]'를 형식명사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이 해석은 형식명사 'ㅌ[ᄂᆞ]' 바로 앞에 동명사어미 '-ᄆ[ㅁ]'이 오는 예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보통의 형식명사라면 동명사어미 '-ᄆ[ㅁ]' 또는 '-ㄱ[ㄴ]'의 수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처럼 '-ᄆ[ㅁ]'의 수식을 받는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ㅌ[ᄂᆞ]'가 형식명사가 아님을 암시한다. 또한 『華嚴經疏』에서 'ᄒᆞᄂᆞㅌㅅ[ᄒᆞᆫ낫]'만 나타나고 'ᄒᆞᄂᆞㄱᄂᆞㅌㅅ[ᄒᆞᆫ낫]'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이 두 가지가 기능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암시하는바 'ᄒᆞᄂᆞㄱᄂᆞㅌㅅ[ᄒᆞᆫ낫]'의 '-ㄱ[ㄴ]'은 重複 表記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14번의 'ㅣ'에 대하여 李丞宰(1993)은 '如'字에서 온 것이라 하였다. 그때에는 '如'字의 초서체 첫 획이 'ㅣ'라는 사실을 논의에서 빠뜨렸는데 이제 이 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ㅣ'를 '多'字의 초서체라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지만 '多'字의 초서체가 'ㅣ'처럼 쓰인 예는 찾기 어렵다.

15번의 '女''는 李丞宰(1993)에서 '如'字의 초서체에서 온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구결자의 '' 부분은 원본에는 없는 것이고 '女'는 구결자 '支'와 필체가 비슷하므로 '女''를 '支'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 바 있다. 우리는 원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 부분의 유무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나 '女' 부분을 '支'와 동일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

19번의 'ㅕ'에 대해서는 '셔'로 읽는 독법과 '뎌'로 읽는 독법이 아직도 대립되어 있다. 이를 金永萬(1986)과 李丞宰(1993)에서는 '彼'字에서 온 것으로 보아 '彼'의 새김 '뎌'로 읽었는데 南豊鉉(1996다)에서는 '徐'字에서 온 것으로 보아 '셔'로 읽고 있다. 그런데 'ㅕ'를 '셔'로 읽을 때에는 '-ㄴ셔'가 15세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에 부딪친다. 15세기에 사용된 감탄형어미는 '-ㄴ뎌'나 '-ㄹ쎠'이거니와 '-ㄴ셔'는 보이지 않고 '-ㄹ쎠'만이 눈에 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석독구결에서 동명사어미 '-ᄇᆞ[ㅱ]'을 앞세우는 구결토로는 '-ᄇᆞㅜ[ㅱ뎌]'가 사용된 대신 '-ᄇᆞㅕ'는 보이지 않는다. 'ㅕ'를 '셔'로 읽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ㄱㅕ'의 동명사어미 '-ㄴ'이 15세기에는 '-ㅱ'로 바뀌어 '-ㄹ쎠'로 이어진다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이 '-ㄱ[ㄴ] > -ᄇᆞ[ㅱ]'의 변화를 설정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반면에 'ㅕ'를 '뎌'로 읽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는다. 15세기의 '-ㄹ쎠'에 대응하는 구결토가 석독구결에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지만, 이것은 우연한 일이거나 자료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형식명사 'ᄉᆞ'가 석독구결 시대에는 발달하지 않은 데에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다. 형식명사 'ᄉᆞ'는 실제로 석독구결 자료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ㅕ'를 '셔'보다는 '뎌'로 읽는 것이 나을 것이다.

20번의 'ㅜ'은 '丁'字에서 온 것이므로 '뎡/뎌'를 표기하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ㅜ'이 '뎡'을 표기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3] 따라서 석독구결에서는 'ㅜ'이 '뎌'만을 표기한 것으로 조정한다.

25번의 'ㅳ'는 '羅'字에서 온 것으로서 '라'를 표기한다. 그런데 李丞宰(1994)에서는 이 'ㅳ'가 종결어미의 '-라'를 표기한 예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李建植(1996)은 연결어미에만 'ㅳ'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비판은 段落의 마지막에서 종결어미 '-ㅳ[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3) 이것은 정재영 교수와의 대화에서 들은 것이다.

점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음 예들의 '-ㅁ[라]'는 종결어미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다.

(3) 가. 我ㄱ 今ㅅㄱ 已ㅣ 諸ㄱ 菩薩ㅣ 爲ㅣ 佛ᄉᆞ 往ᄒᆞ十 修ᄒᆞᄆᆞㄱㅌㅣ 清淨行ㄹ 說ᄒᆞㅁㄹᄆᆞㄱㅣㅣㅁ 仁ㅋㅏ 亦ㅅㄱ 當ㅏ 於此ㅣ 會ㅣ 中ᄒᆞㅣㅅᄒᆞㅅㅏ 修行ㅅᄒᆞᄆᆞㄱㅌㅣㅣ 勝功德ㄹ 演暢ㅅㅁㅏᄒᆞ立 (화엄8:23-24)

나. 生死ㄹ 、 損 、 不ᄃᆞ多ㅅㄴㄱㅅㅅㅁ 故ㅅ 願ㅅᄒᆞᄉᆞ 尊ㄱ 涅槃ㄹ 、 證ㅅㄴㅁㄹㄱㅣㅣㅁ 二法見ㄹ 、 過ㅅㄴㄱㅅㅅㅁ 故ㅅ 是故ㅁ 寂靜ㄹ 、 證ㅅㄴㅁㄹㄱㅣㅣᄒᆞㅣㅅㅋ (금광13:8-9)

위의 밑줄 친 서술어들은 뒤에 오는 문장과 단절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이 因果關係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단락 내에서 종결어미로 문장을 끝낸 다음 후행 문장이 바로 이어지는 예들이 존재하며 이때의 종결어미 '-ㅣ[다]'가 '-ㅁ[라]'로 교체될 수 있다고 기술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28번의 'ᄉᆞ'에 대해서는 本字가 무엇인지 밝힐 수 없었다. 그런데 南豊鉉(1997)은 이 구결자가 '令'字에서 온 것이라 추정하였는데 우리는 이 추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ᄉᆞ'가 동명사어미 'ㅍ'에 형식명사 '이'가 통합된 '리'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것은 南豊鉉(1996가, 1996나)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29번의 'ㅋㅏ'字는 固有 漢字로 알려져 있으나 '每'字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 15세기의 '-마다'를 향가에서 '-每如'로 표기하고 석독구결에서 '-ㅋㅏㅣ'로 표기하기 때문이다. '每'와 'ㅋㅏ'의 대응 관계에는 '每'의 음이 '마'가 아니라 '미'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그러나 吏讀에서 '內人'을 '나인'으로 읽고 吏讀와 口訣에서 '乃'字를 '나'로 읽는 독법을 참고하면 음상의 차이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32번의 'ᄼ'이 'ㅅ'에 대응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작 'ᄼ'의 바로 뒤에 '-ᄀᆞᆷ[며], -ㄱ[ㄴ], -ㄹ/ㄴ[오]-' 등이 올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진다. '有ᄼᆞᆷ, 有ᄼㄱ, 有ᄼᆞᄋᆞ, 有ᄼᆞᄅᄀᆞᆷ, ᄂᆞᄒᆞᄼᆞᆷ, ᄂᆞᄆᄀᆞᄇᆞᄼᆞᆷ, ᄂᆞᄅᄼᄀᆞᄀᆞᆯ, ᄂᆞᄅᄼᄂᆞᄀᆞᄉᆞᆫᆯ, 未ᄇᆞᄉᆞᄼᆞᄂᆞ' 등의 'ᄼ'은 'ㅅ'으로 읽기가 거북하다. 특히 '有ᄼᆞᆷ, 有ᄼㄱ, 有ᄼᆞᄋᆞ, 有ᄼᆞᄅᄀᆞᆷ'를 각각 15세기에 찾기 어려운 '*잇며/*이스며, *이슨, *잇아/*이사, *잇온ᄃᆡ/*이손ᄃᆡ'로 읽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서 이들의 'ᄼ'을 '시'로 읽는 독법을 모색해 보게 된다. 『舊譯仁王經』에는 '有ᄼㄱ' 대신에 '有ᄼᄇᆞㄱ'으로 표기한 예가 나오고 金光明經에서는 '有ᄼㄱᄀᆞᆯ' 대신에 '有ᄼᄇᆞㄱᄀᆞᆯ'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ᄼ'은 'ㅅ' 뿐만 아니라 '시'의 표음에도 이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有ᄼㄱ, 有ᄼㄱᄀᆞᆯ'을 각각 '有ᄼᄇᆞㄱ, 有ᄼᄇᆞㄱᄀᆞᆯ'의 'ᄇ' 생략 표기라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다.

34번의 'ᄇᆞ'은 겸양법의 '-ᄉᆞᆸ-'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의 '-ᄇᆞ-'은 존경법의 '-시-'에 대응한다(백두현 1995, 박진호 1997). 이 대응에 대해서는 李丞宰(1998)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는 음운론적 해석을 선호하는 편이다.

38번의 'ㅭ'는 李丞宰(1993)에서 논의된 것처럼 '賜'字에서 온 것이므로 존경법의 '-시-'에 대응하는 것이 확실하다. 다만 이 'ㅭ'를 '시'로 표음해야 할지 'ᄉᆞ'로 표음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룬 바 있다. 필자는 'ㅭ'도 '시'로 읽어야 한다고 본다. 존경법 선어말어미는 『華嚴經疏』와 『華嚴經』에서는 'ㅭ'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인데 화엄경에서는 간혹 'ㅣ'로 표기되기도 한다. 그런데 『舊譯仁王經』, 『金光明經』, 『瑜伽師地論』에 오면 모두 'ㅣ' 하나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존경법 선어말어미를 'ㅭ' 즉 '賜'字로 표기해 오다가 '賜'字의 음가가 'ᄉᆞ'로 바뀐 뒤에는 새로이 'ㅣ' 즉 '示'字를 이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賜'字와 '示'字는 모두 止攝字이지만 '賜'字는 'si>ᄉᆞ'로 변하고 '示'字는

'ᅀᅵ>시'로 이어지는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을 감안하면 존경법 선어말어미는 애초부터 '시'였는데 이를 '賜'字로 표기해 오다 '賜'字의 음가가 'ᄉᆞ'로 변함에 따라 새로이 '示'字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權仁瀚 1997, 李丞宰 1998). 이에 따라 'ㅭ'를 '시'로 읽기로 한다.

39번의 'ᄉᆞ'는 李丞宰(1993)에서 이미 '令'字에서 온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 'ᄉᆞ'의 독법으로 '시기-'의 '식'과 사동형 'ᄒᆞ이-'의 'ᄒᆞ'를 제시하면서도 '식'을 선호했었다. 이에 대해 'ᄉᆞㅣ[시기]-'가 통합되기 어려운 곳에도 'ᄉᆞㅣ-'가 통합된 예가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제 이 점을 받아들여 'ᄉᆞ'를 '히'로 읽기로 한다. 'ᄉᆞ'가 주로 사동 표현에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ᄉᆞ'를 'ᄒᆞ'로 읽지 않고 '히'로 읽는다.

44번의 'ᄋᆞᄅᆞ'는 '汚'字에서 온 것으로 보아 '오/우'로 읽었다(李丞宰 1993). 그러나 'ᄋᆞᄅᆞ'는 한 번만 쓰여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필체가 'ᄒᆞ'와 유사하다. 더욱이 부사어 '善能ᄒᆞ'와 '善能ᄒᆞ'가 『金光明經』에 나오므로 'ᄋᆞᄅᆞ'를 'ᄒᆞ'의 異體字로 보아 '히'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가. 若 長者ㄱ 見 當 願 衆生 善能ᄋᆞᄅᆞ 明斷ㅅᄀᆞᄒᆞ 惡法ㄱ 行ᄆᆞ 不ㅅᄇᆞᄑᆞ (화엄6:22)

나. 一切ㄱ、 濟度ㅅᄆᆞ 是波羅蜜義ㅣᄀᆞ 一切外人ㅣ 來ㅅᄀᆞᄒᆞ 相ㅅ 詰難ㅅᄑᆞᄀᆞ ㄱ 善能ᄒᆞ 解釋ㅅᄀᆞ 其ㄱ、 降伏、 令ㅣㅅᄆᆞ 是波羅蜜義ㅣᄀᆞ (금광5:19-21)

다. 於法如如ᄀᆞ十 動、 不ᄃᆞᄒᆞ 去、 不ᄃᆞᄒᆞ 來、 不ᄃᆞᄒᆞ 善能ᄒᆞ 一切衆生ㅋ 善根、 成熟ᄉᆞㅣᄇᆞᄆᆞᄉᆞ (금광14:18-19)

47번의 'ᄆᆞ'은 그동안 동명사어미 '-ㅁ/옴/음'로 읽어 왔으나 'ᄆᆞ'이 'ᄉᆞ'을 표기할 때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이장희 1995). 'ᄆᆞ'字가 어휘표기에서 'ㅁ' 뿐만 아니라 'ᄉᆞ'에도 대응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의 구결자를 둘 이상으로 읽으면 一字一音의 원칙(李崇寧 1955)을 어기게 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ᄐᆞ'의 독법을 'ᄐᆞ' 하나로 고정해 왔지만, 이제는 'ᄐᆞ'이 속격조사의 용법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는(南豊鉉 1996가, 1996나) 추세이다. 이러한 태도를 따르면 결국은 'ᄐᆞ'을 'ㅅ'으로 읽는 독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53번의 'ᄎᆞ'는 '支'자의 초서체로서 李丞宰(1993)에서는 이를 指定文字라 하였다. 이와는 달리 이를 '-히'나 '-디'로 읽는 등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으나 우리는 아직도 지정문자설을 바꿀 생각이 없다. 오히려 'ᄎᆞ'를 '-히'나 '-디'로 읽으면 어느 한 곳에서는 항상 틀리거나 막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반면에 'ᄎᆞ'를 앞에 오는 문자를 새겨 읽으라고 지정해 주는 문자로 간주하면 이에 어긋나는 예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화엄경소, 금광명경, 유가사지론 등의 석독구결 자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우리는 지정문자설을 그대로 견지한다.

58번 'ᄒᆞ'의 본자로는 '厓/屎'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석독구결 시대에는 '厓' 하나로 고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屎'字가 '히'의 표기에 쓰인 대표적인 예는 訓蒙字會에서 'ㅎ'을 '屎'로 지칭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의 표기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석독구결의 'ᄒᆞ'는 '厓'字에서 온 것으로 수정한다.

59번의 'ᄃᆞ'는 '止'字의 초서체에서 온 것으로서(李丞宰 1993) '佛[부텨]'의 末音添記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ᄃᆞ'가 '佛'에만 통합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마침 '止'字는 上古音이 [*tiəg]으로 재구되므로 '부텨'의 '텨'를 표기하는 데에 적절하다.[4] 그런데도 이 'ᄃᆞ'를 아직도 속격조사 '-ㅅ'으로 읽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ᄃᆞ'이 속격조사가 아니라는 점은 『華嚴經疏』의 다음 자료에서 잘 드러

4) 李丞宰(1993)의 구결자 목록에서 'ᄃᆞ'를 '지(디?)'로 표음한 것은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에 바로잡는다.

난다.

(5) 가. 此ㅣ 菩薩ㄱ 過去ㄴ 諸ㄱ 佛ㅂㅣ 菩薩ㅣ 有ㅺㅎㅁㄱ 所ㄴ 功德ㄹ 聞ㅿㅏ (화소13:1-2)

나. 量ㅣ 無ㅎ 盡ㅣ 無ㅎ 大威力ㄹ 具ㅁㅎ 是ㅣㄱ 佛境界ㅣㅎ 唯ㅅ 佛ㅂㅣ 能ㅊ 了ㅿㅎㅁㅎㅜㅣ (화소24:14-16)

밑줄 친 '佛ㅂㅣ'와 '佛ㅂㅣ'의 '-ㅣ'와 '-ㅣ'는 각각 주격조사 '-이'와 보조조사 '-사'에 해당하므로 'ㅂ'를 '부텨'의 末音添記字로 보아야 한다. 속격조사 다음에 주격조사나 보조조사가 직접 통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61번의 '造'를 李丞宰(1993)에서는 한문을 번역할 때 誤讀을 막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적어 넣은 漢字로 보았다. 이에 대해 이를 구결자의 범주에 넣고 '짓-'으로 새겨 읽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 둘은 漢字로 보느냐 口訣字로 보느냐 하는 분류상의 차이일 뿐 그리 중요한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짓-'으로 새겨 읽기로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정리하여 구결자 목록을 새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6)口訣字	讀法	本字	口訣字	讀法	本字
1.	這 ᄀᆞᆺ/갓	這	2.	ㅿ 거	去
3.	ナ 겨	在	4.	ㅁ 고	古
5.	ㅅ 과	果	6.	ㅛ 곰	爾
7.	ㅅ ㄱ/기	只	8.	ㄲ 나	乃
9.	ㅌ 나	飛	10.	斤 늘/놀	斤
11.	メ 노	奴	12.	ㅏ 누/ᄂᆞ	臥
13.	ㅌ 니	尼	14.	ㅣ 다	如
15.	女ˋ 다	[삭제]	16.	冬 돌	冬

17.	ㅅ 디	矣	18.	矣 디	矣
19.	彳 뎌	彼	20.	丁 뎌	丁
21.	刀 도	刀	22.	斗 두	斗
23.	の 드/ᄃ/ᄃᆞᆯ	入	24.	矢 디	知
25.	ㅛ 라	羅	26.	ㅗ 로	以
27.	禾 리	利	28.	令 리	令
29.	𠂉 마	每	30.	分 며	彌
31.	火 브/ᄇ	火	32.	七 ㅅ/시	叱
33.	氵 사/ㅿ	沙	34.	白 숣	白
35.	立 쎠	立	36.	立 쎠/셔	立
37.	二 시	示	38.	ㅎ 시	賜
39.	令 히	令	40.	氵 아/애	良
41.	丶 여	亦	42.	亠 여	亦
43.	之 예	之	44.	亏 히	兮
45.	ㄱ 은/온/는/ᄂᆞᆫ	隱	46.	乙 을/올/를/ᄅᆞᆯ	乙
47.	尸 ㅱ/ㅅ	尸(?)	48.	音 음/옴	音
49.	衤 의	衣	50.	丨 이	是
51.	印 ᄀᆞᆯ	印	52.	齐 져	齊
53.	支 [指定文字]	敍	54.	下 하	下
55.	ソ ᄒᆞ	爲	56.	十 히/긔	中
57.	ノ 호	乎	58.	兮 히	兮
59.	ㄷ 텨	止	60.	、 [逆讀點]	
61.	造 짛	造			

이제 화엄경의 口訣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몇 가지 골라 논의해 보기로 한다.

먼저 否定素의 표기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부정소 '不'字가 들어 있는 표기로 '不ソ-, 不ノ-, 不多, 不矢-, 不丨矢-, 不能丨矢-'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정소를 '안돌(ᄒᆞ-, 호-)'과 '안디'로 읽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그러나 '不ㅣ矣-, 不能ㅣ矣-'의 '-ㅣ-'는 이러한 독법이 정확한 것이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ㅣ-'가 개재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디'로 읽어야 할 것이다.[5]

(7) 가. 十方ㄴ 一切 諸ㄱ 如來ㅣ 悉ㅈ 共ㄴ 俛揚ㅅ二乃 能 盡ㅈ尸 不ㅣ矣ㅅ二口乙ㅎㄴ亡ㅣ (화엄9:7)

나. 一切 世間ㅈㄴ 諸ㄱ 天ㅅ … 緣覺ㅅㅅ/ㅅ仝ㅋ 動尸 不能ㅣ矣ㅣ尸(ㅣ矣ㅅ尸?) 所ㅣ亡ㅏㅎㄴ亡ㅣ (화엄8:17-18)

다. 菩薩ㅣ 發意ㅅㅈ 菩提乙 求ㅅ又ㄱのㄱ 是ㅣ 因 無ㅣㅅ/ㅅ 有緣ㅇ 無ㅣㅅㅂ ㅇ 非ㅣ矣 於佛法僧ㅈ十 淨信乙 生ㅣㅈ 是乙 以ㅕㅈ 而ㅱ 廣大心乙 生ㅣㅏㄱㅣㅣ (화엄9:10-11)

라. 若ㄴ 世界ㅣ 始ㅎ 成立ㅅ亡ㄱ ㅅ 衆生ㄱ 資身ㄴ 具乙 有ㅐ尸 未ㅣㅅㄱのㄹ ㅇ 見ㅁㅅㄱ (화엄19:12-13)

이것은 '非矣-' 이외에도 (7.다)의 '非ㅣ矣-'가 쓰인 데에서 다시 확인된다. 더군다나 (7.라)의 '未ㅣ-'가 발견되므로 '아니디'가 이미 '아니'로 교체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여기에서는 '矣[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7.라)에서는 이 '矣[디]'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필자는 오히려 이 표기를 '아니디 > 아니'의 언어적 변화를 반영한 표기로 이해한다.[6]

부정소와 관련하여 『華嚴經』에 '不矣ㅣ'가 나온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8) 가. 五欲ㅅ 及ㄴ 王位ㅅ 富饒ㅅ 自樂ㅅ 大名稱ㅅ/ㅅ仝ㄹ 求ㅅㅈ

---

5) 이를 확대 해석하여 '不ㅣ矣' 뿐만 아니라 '不矣'도 '아니디'로 읽어야 할지도 모른다.

6) 다음 예의 '靡ㅣㄴ'은 '아닛'으로 읽을 수도 있으나 '靡ㄴㅣ[업시]'의 誤字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見聞ㅅㅋ 聽受ㅅㅋ 若ㄴ 供養ㅅㅋㅅㅁㅂ火ㄴㅂ尸のㄱ 皆ㄴ 安樂乙 獲ㅣ 令ㅣ尸 不ㅅ尸丁ㅅ尸 靡ㅣㄴㅅㅂ矛ㅎ (화엄14:10)

ソ1ヒ1 不矢リ 但ハ 永厶 衆生ラ 苦乙 滅3ケ 世間乙 利益ソケソ、爲人 而灬 發心ソナ1リケ (화엄9:12-13)

나. 衆生乙 逼惱ノ令セ 物セ乙 作ソナ令1 不矢リ 但ハ 世間乙 利益ノ令セ 事乙 說ソナ3 呪術⺀ 藥草⺀ソ尸 等丨ソ1 衆1 論リ1 是 如ソ1 有1 所乙 皆セ 能支 說ナケ (화엄19:14-15)

이 '不矢リ'는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을 부정적으로 연결해 주는 위치에 왔다. 이 기능을 수행하는 연결어미로는 15세기의 '-디비'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不矢リ'의 '-矢リ'가 바로 이 '-디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직 위의 두 예밖에 찾지 못하였으므로 확신할 수는 없다.

'-ソ1'이 붙은 것 중에는 '餘ソ1'이 있다. 이 '餘'를 訓으로 읽을 것인지 音으로 읽을 것인지 그동안 결정하기 어려웠다. 金斗燦(1997)에서 이를 '남ᄒᆞᆫ'으로 읽은 바 있는데 『瑜伽師地論』의 '餘1'을 고려한다면 새겨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에 나오는 '餘㫉'에 대하여 언급해 두고자 한다.

(9) 가. 生死リ丨 涅槃リ丨ソ尸入1 皆 是1 妄見リ1乙 能ケ 度ノ尸厶 餘㫉、無ソニ1ソ尸矢 是波羅蜜義リケ (금광5:18-19)

나. 若 能ケ 於 此ラ十 餘㫉 无亐 永斷ソ尸入乚 名下 極淨道果乚 爲 證得ソ3 1丁ノ矛丨 (유가30:05-13)

(10) 가. 我ラ 我1 今㫉 者 何ㅁ 所3十 在ソ厶1リ3セロソ尸 不多ノ矛1リ3セ丨ソ尸矢ケ 耶 (유가8:12-19)

나. 而1 我1 今㫉 者 於四種苦3十 何ㅁ 等ソ1乚 爲 脫ソ3ノ1リ3セロ (유가18:13-19)

(11) 菩薩1 是セソ1 時十 心3十 是リ 念乙 作ソナ尸丁 一切恩愛力 會恨ソ乃ソロハ1 當ハ 別離ノ矛1⺀ 而1 於衆生ラ十1 饒益ノ尸 所3 無セ厶矛3セ丨 (화소12:15-16)

南豊鉉(1993)은 '餘ㄹ'과 '今ㄹ'의 'ㄹ'을 'ㄱ/기'에 대응시켰으나 필자는 'ㄹ'을 '恨'字의 右旁에서 온 것으로 보아 'ᄒᆞᆫ'으로 읽는다. '恨'字가 차자 표기에 쓰인 예로는 安民歌의 '太平恨音叱如[太平ᄒᆞᆫ놈ᄯᅡ]'와 『華嚴經疏』에 나오는 (11)의 '會恨ㅅ가'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ㄹ'이 '恨'字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餘ㄹ'은 '餘ㅅㄱ'과 일치하고 '今ㄹ'은 '今ㅅㄱ'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15세기에는 動詞類 語幹末音 'ㄹ'이 'ㄴ, ㄷ, ㅅ' 등의 舌端子音 앞에서 탈락한다. 그러나 화엄경에는 이 'ㄹ' 脫落 規則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나온다.

(12) 趾乙 發ㅅᄋᆞ尒 道乙 向ㅅᄃᆞᄀᆡ ᄒᆞᄀᆞ 當 願 衆生 佛矣 所行ᄋᆞᆫ 趣ㅅᄋᆞᄒᆞ 無依處ᄋᆞᆫ 入乙ㅌᆞᄒᆞᆫ (화엄4:19)

이 '入乙ㅌᆞᄒᆞᆫ'는 어간말음 'ㄹ'을 '乙'로 표기한 것이므로 '들나셔'로 읽힌 것이 분명하다. 이 예에서 어간말의 'ㄹ' 탈락 규칙이 석독구결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除ㅌᆞᄒᆞᆫ, 到ㅌᆞᄒᆞᆫ, 至ㅌᆞᄒᆞᆫ, 知ㅌᆞᄒᆞᆫ' 등은 각각 '덜나셔, 니를나셔, 니를나셔, 알나셔'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應ㄷ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南豊鉉(1993)은 '應ㄷᆡ' 앞에 '-ᄒᆞᆫ'이 오고 또한 선어말어미 '-ᄒᆞᆫㄷᆡ-'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 곳의 '應'을 不讀字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李丞宰(1995)에서는 '應ㄷᆡ'을 '맞-' 동사로 읽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즉 '應ㄷᆡㅅ-'의 중간에 漢字 '當'이 삽입된 '맞+當+ᄒᆞ-'가 현대어의 '마땅하-'에 해당한다는 語源論에(沈在箕 1993) 동의하면서 '應ㄷᆡㅅ-'를 '맛ᄒᆞ-'로 읽을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필자의 논의를 도와주는 『華嚴經疏』의 예를 하나 덧붙이고자 한다.

(13) 是ㅣ 故ᄆᆞ 衆生ㄹ 饒益ᄉᆞ 爲ㅅ 應ᄒᆞᄂᆞᆫᄀᆞ ᄅᆡᄒᆞᄉᆞᆫᄃᆡ ᄉᆞᄂᆞᆷᄒᆞᄉᆞᆫᄃᆡ (화소10:11-12)

'應ᄒᆞ'의 앞에는 '-ᄆᆞ[ㅁ]'이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삽입구로 쓰인 '應ᄒᆞᄂᆞᆫᄀᆞ 隨ᄆᆞ, 應ᄒᆞᄂᆞᆫᄀᆞ 隨ᄆᆞ, 宜ᄀᆞᄅᆞ 隨ᄆᆞ, 宜ᄀᆞ 所ㄹ 隨ᄆᆞ' 등의 바로 앞에는 '-ᄆᆞ[ㅁ]'이 오지 않는다. 이 삽입구의 '應ᄒᆞ-'과 '宜-'는 '맞-'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예의 '應ᄒᆞᄂᆞᆫᄀᆞ-'는 삽입구가 아니면서도 그 앞에 '-ᄆᆞ[ㅁ]'이 오지 않았다. 만약에 이 '應ᄒᆞᄂᆞᆫᄀᆞ-'의 '應'을 不讀字라 한다면 [의도·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ㅅ[과]-'와 [당위]의 의미를 가지는 '-ᄒᆞ[ㅅ]-'이 상충된다. 이들은 모두 서법 범주에 속하여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應ᄒᆞᄂᆞᆫ[맛ᄒᆞ]-'를 동사류 어간으로 보아야만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而'에는 '-ᄆᆞ[로]'와 '-ᄀᆞ[ㄴ]'이 통합된다. 그런데 '而ᄆᆞ'나 '而ᄀᆞ'는 문맥상 생략하여 읽어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 때가 아주 많다.

(14) 가. 彼ᄅᆞ 施ᄂᆞ 爲ㅅᄂᆞᆫᄆᆞ 入ᄆᆞ 故ᄉᆞᆯ ᄉᆡ 而ᄆᆞ 自ᄅᆞᄆᆞ 之ᄅᆡㄹ 食ᄂᆞᆫᄀᆞᆷᄋᆞᆯ ᄉᆡ 其味ᄋᆞᆯᄒᆞ 貪ᄆᆞ 不ᄂᆞᆫᄀᆞᆷ (화소9:16-17)

나. 路ㄹ 涉ᄋᆞᄒᆞᄉᆞ 而ᄆᆞ 去ᄀᆞᆫᄃᆡᄒᆞᄀᆞ 當 願 衆生 淨法界ㄹ 履ᄂᆞᆫᄆᆞᄆᆞ 心ᄋᆞᆯᄒᆞ 障碍ᄆᆞ 無ᄒᆞᆫ (화엄4:21)

다. 何以故ᄋᆞᄀᆞ 於 第一義ᄋᆞᆯᄒᆞ 而ᄆᆞ 二ㆍ 不矣ᄀᆞᄋᆞᄆᆞ 故ᄂᆞᆯᄀᆞᆷ (구인15:19-20)

라. 一切種種ㅅ 法ㄹ ㆍ 說ᄂᆞᆫᄆᆞᄆᆞ 而ᄆᆞ 得ᄋᆞᄒᆞᄉᆞ 自在ᄂᆞᆷᄋᆞᆯ 患累ㆍ 無ᄂᆞᆷᄀᆞᆫᄂᆞᆫᄆᆞ 故ᄀᆞᆷ 知慧ㄹ ㆍ 增長ᄂᆞᆷᄋᆞᆯ 自在ᄂᆞᆷᄀᆞᆫᄂᆞᆫᄆᆞ (금광7:12-13)

마. 佛世尊ᄀᆞ 般涅槃ᄂᆞᆫᄃᆞᄒᆞᄉᆞᆫᄉᆞᆷ 雖ᅀᅡ 而ᄀᆞ 俗正法ᄂᆡ 猶ᄂᆡ 住ᄂᆞᆫᄋᆞᄒᆞᄉᆞ 未滅ᄂᆞᆫᄃᆞ 勝義正法ᄂᆡ 未隱未斷ᄂᆞᆫᄃᆞᄂᆞᆫᄆᆞ (유가3:11-15)

이들의 '而ᄆᆞ'나 '而ㄱ'을 포함하여 읽으면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부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하고 읽는 것이 나으리라 판단한다. '而ᄆᆞ'는 '뻐'로 읽을 수 있을 듯하나 '뻐'를 표기하는 口訣字로는 'ᄫᅳ'가 이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漢文의 군더더기로 볼 수밖에 없는 '而ᄆᆞ'나 '而ㄱ'는 생략하여 읽기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곳의 '而ᄆᆞ'는 구결토 '-ᄆᆞ[로]'를 반영하여 읽어야 할 것이다.

(15) 가. 但ㅅ 取著ᄂᆞㄱ 衆生ㄷ 敎化ᄒᆞᄋᆞᄉᆞ 佛法ㄷ 成熟ᄉᆞᄫᅵ 爲人 而ᄆᆞ 爲三ᄒᆞ 演說ᄂᆞᄂᆞᄉᆞ (화소13:7-8)

나. 一切行願ㄷ 皆ㅌ 得ᄒᆞᄋᆞᄉᆞ 具足ᄂᆞᄉᆞ 於一切法ᄒᆞᄋᆞ 自在ᄑᆞ 無不ᄂᆞᄑᆞᄀᆞᄂᆞᄑᆞ 而ᄆᆞ 衆生ᄅᆞㅌ 第二導師ㅣᄑᆞ 爲の乙ᄂᆞᄃᆞᄂᆞᄒᆞ ㅌᅵ (화엄2:16-17)

이러한 예들은 많지 않지만 '-ᄆᆞ[로]'를 앞에 오는 구결토에 연결하여 읽는 것이 나을 듯하다. 앞의 구결토에 이미 '-ᄆᆞ[로]'가 반영되어 있다면 이때에는 '而ᄆᆞ'를 (14)의 예에서처럼 생략하고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是ㅣ 故ᄆᆞ'는 '이 젼ᄎᆞ로'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때의 '-ᄆᆞ'는 '-로'로 읽어야 한다.

석독구결에서는 뒤따르는 漢字의 뜻이 앞의 구결토에 반영되어 있는 때가 아주 많다. 대표적인 예로 '故ᄎᆞ, 故ノ, 故ᄉᆞ' 등의 앞에 오는 '-(の)ᄆᆞ[(ᄃᆞ)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故'는 不讀字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화엄경소에는 '故ㅣ-'가 많이 나오는데 이 때의 '-ㅣ[이]-'도 앞의 구결토 '-ᄆᆞ[로]'에 바로 연결하여 읽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不讀字에 속하는 것으로는 漢文의 語助辭에 해당하는 것들이 가장 많으나 使動의 의미를 가지는 '令, 使' 등도 이 부류에 든다.

(16) 가. 其 樂ᄀᆞ尸 所乙 隨ᄀᆞ 悉ᄉᆞ 見ㅣ 令ㅣㅁᄒᆞᆫᄀᆞ (화엄14:23-24)
나. 悉 能ᄎᆞ 忍ᄂᆞᆫᄉᆞ 其乙 利益ᄂᆞᆫᄉᆞᄉᆞᄭᅮ 安樂乙 得ㅣ、令ㅣᄂᆞᆫᄀᆞ (화엄18:12-13)
다. 其ᄋᆞ 方便乙ᄆᆞᆷ 爲ᄉᆞ 妙法乙 說ᄉᆞ 悉ᄉᆞ 得ᄉᆞᄉᆞᄭᅮ 眞實諦乙 解ᄂᆞᆫ、令ㅣᄆᆞᄀᆞᆷ (화엄20:6-7)
라. 王位乙 皆ᄒᆞᆫ 能捨ᄂᆞᆫᄀᆞᄂᆞᆫᄉᆞ 施乙 好ᄆᆞᄂᆞᆫᄉᆞᆫᄒᆞᆫ 者乙 悉ᄉᆞ 化ᄉᆞᆫ 從ᄒᆞᆫ、令ㅣᄂᆞᆫᄀᆞ (화엄17:24-18:1)
마. 衆生乙 度ㅣᄂᆞᆫᄉᆞ 悉ᄉᆞ 歡心ᄆᆞᆷ 法化ᄉᆞᆫ 從ᄒᆞᆫ、使ㅣᄆᆞᄀᆞᆷ (화엄17:20-21)
바. 色乙 樂ᄆᆞᄂᆞᆫᄉᆞᆫᄒᆞᆫ 者ᄆᆞ乙 皆ᄒᆞᆫ 道ᄉᆞᆫ 從ᄒᆞᆫ、俾ㅣᄂᆞᆫᄀᆞ (화엄18:4-5)

(16.가-나)의 '令ㅣ-'는 앞에 오는 동사의 '-ㅣ[이]-'에 이미 사동의 의미를 넘겨 주었으므로 읽을 필요가 없다. 즉 '令ㅣ-'의 '令'은 불독자요 '-ㅣ-'는 중복 표기로 이해한다. (16.다)에서는 '令'을 빼고 읽으면 올바른 구결토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16.라-바)에서도 '令, 使, 俾' 등을 각각 제거하고 '從ᄒᆞᆫ'에 바로 '-ㅣ-'를 연결하여 '조치-'로 읽는다. 이와 같은 不讀字에는 '善ᄂᆞᆨ 哉ᄀᆞ[일견뎌]'의 '哉'와 '僧ᄉᆞᄂᆞᆫᄉᆞᆫᄒᆞᆫ 亦ᄀᆞᆷ[僧여 호리의긔도], 功德聚 亦ᄀᆞᆷ[功德聚도]'의 '亦'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已'와 '乃'의 특이성을 기술해 둘 필요가 있다. 이들에는 'ᄀᆞ[사]'가 달리는데 이를 적어 넣은 곳이 '已'와 '乃'의 안쪽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17) 가. 我ᄀᆞ 今ᄂᆞᆫᄀᆞ 已[ᄀᆞ] 諸ᄀᆞ 菩薩尸 爲ᄀᆞ 佛矣 往ᄉᆞᆫ 修ᄒᆞᄆᆞᄀᆞ ᄒᆞᆫ 淸淨行乙 說ᄉᆞᆫ ㅁᄀᆞᄆᆞᄀᆞ ㅣㅁ (화엄8:23)
나. 於彼十方世界ᄒᆞᆫ 中ᄉᆞᆫ 念念ᄉᆞᆫᄒᆞᆫᄋᆞᆫᄀᆞ 佛道、成ᄐᆞᄆᆞᄀᆞᄋᆞᆫᄀᆞ 示現ᄂᆞᆫᄀᆞ … 寂滅ᄉᆞᆫ 入ᄂᆞᆫᄀᆞ 乃ᄀᆞ 至ㅣ 舍利乙 廣ㅣ 分布ᄂᆞᆫᄀᆞᄂᆞᆫᄒᆞᆫᄒᆞᆫᄀᆞ (화엄14:19-20)

다. 或ㅅㄱ 童男ㅣ 童女ㅋ 形ㅣ 天ㅣ 龍ㅣ 及ㄷ 以ㅇ 阿修羅ㅣ 乃ㅣ 至ㄲ 摩睺羅伽 等ㅣㅅㄱㄲㅣㅅㅈㅌㄱの乙、 現ㅎㅇ (화엄14:23-24)

즉 이 '已'와 '乃'는 그 안쪽에 'ㅣ'를 써 넣는 漢字로서 구결토 기입 방법이 아주 독특한 것이다.[7] 그동안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제시된 바 없었지만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필자는 漢字 안에다 구결토를 집어 넣은 표기 방법은 그 漢字의 새김을 무시하고 앞에 오는 구결토에 직접 '-ㅣ[사]'를 연결하여 읽으라는 표지로 이해한다. 화엄경에서는 (17.가)의 '-ㅣ[사]'만을 '已'字의 안쪽에 적어 넣었지만 이 방법은 구역 인왕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18) 가. 唯ㅅ 佛人 與ㄷ 佛人ㄲㅋㅣ 乃[ㅣ] 斯ㄲ 事乙、 知ㅋㅎㄷㅣ (구인11:23-24)

나. 大覺世尊ㄱ 前ㅋ 已[ㅣ] 我ㅌ 等ㅅㄱ 大衆ㅋ、 爲ㅣㅎ 二十九年ㅇㅏㅅㅋㅏ下 (구인2:19-21)

다. 佛ㄱ 大王ㅋㅏ、 告ㅋㅍ 汝ㄱ 於 過去ㄷ 七佛ㅏ 已ㅣ 一ㄲㅂㄷ 義ㅣ 二ㄲㅂㄷ 義ㅣノ乙、 問白ㅇㅎㅋㄱㄲㅛ (구인14:20-21)

(18.가)의 '乃[ㅣ]'는 그 앞의 구결토에 'ㅣ'가 왔으므로 'ㅣ'를 앞의 구결토에 연결하여 읽은 좋은 예가 된다. 즉 이 곳의 'ㅣ'는 중복되어 표기된 것이다. 이처럼 앞의 구결토에 연결하여 읽는 방법은 (18.나)에도 적용하여 '前ㅋ 已[ㅣ]'를 '알픽사'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18.다)의 '已ㅣ'는 'ㅣ'를 '已'의 안쪽에 적어 넣은 것이 아니므로 '已'字의 새김을 살려 '이믜사'로 읽는다.

---

7) 여기서는 이러한 종류의 'ㅣ'는 괄호를 쳐서 [ㅣ]로 표기하였다.

'已'와 '乃'字의 안쪽에 넣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단 '-ㅅ[사]'도 앞의 구결토에 직접 연결하여 읽는 것이 좋을 듯한 예들도 많다. 이때의 '-ㅅ[사]'는 '爲'나 '欲'에 붙은 '-ㅅ[과]'와 같은 방법으로 읽어야 한다. 즉 글자의 안쪽에 기입하지 않았는데도 앞에 오는 구결토에 연결하여 읽어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爲の乙' 앞에 '-ㅣ尸[잃]'이 올 때에도 이 구결토를 바로 연결시켜 읽는다.

(19) 가. 菩提心ㄴ 功德乙 顯示ン 欲ㅅンニ尸のゝ (화엄8:20-22)
나. 若ㄴ 一切 佛乙 供養ン白 欲ㅅンㅆㄱㅣ十ㄱ (화엄15:16-17)
다. 是ㅣ 等ㅣンㄱ乙 化ン 爲ㅅ 導師ㅣ尸の乙 作ンナ分 (화엄19:23)

(20) 가. 若 於王乙 見 當 願 衆生 得ㄱ尓 法王ㅣ尸 爲の乙ンㄱハ 正法乙 恒轉ンヒ立 (화엄6:20)
나. 信ㄱ 功德ㄴ 不壞種ㅣ尸 、 爲の乙ンナㄱㅣ分 信ㄱ 能ㅊ 菩提樹乙 生長ンナ干分 (화엄10:6)

따라서 이들의 '欲, 爲' 등도 일종의 不讀字가 된다.

지금까지 省略과 관련된 漢字들을 기술하였는데 口訣吐에도 생략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ン[ᄒᆞ]-' 동사와 계사 '-ㅣ[이]-'일 것이다. 또한 동명사어미 '-尸[ᄅᆞ]'이나 '-ㄱ[ㄴ]'도 간혹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하나의 예만 들기로 한다.

(21) 深心ㄴ 信解ㅣ 常ㅣ 淸淨ンナ 一切佛乙 恭敬尊重ンゐ 矢分 (화엄9:16-17)

이 예의 'ンゐ矢分'는 '矢' 앞에 올 '-尸[ᄅᆞ]' 혹은 '-ㄱ[ㄴ]'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 중의 어느 것이 생략되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형식명사 'ᄃᆞ'가 들어 있는 '矢[디]' 앞에는 이 두 가지가 모

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사 '-ㅣ[이]-'의 생략 표기도 음운론적 유인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표기법상의 관습에 따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예컨대 부정소 '不矣' 다음에 계사 '-ㅣ[이]-'가 통합된 '不矣ㅣ-'가 구역인왕경에서는 자주 눈에 띄지만 화엄경에서는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를 두고 구역인왕경보다 화엄경에서 계사의 생략 표기가 많이 발견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부정소 '不矣'의 [이] 모음 때문에 계사가 음운론적으로 탈락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즉 표기법과 음운 현상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기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부정소 '不矣'를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아니디'의 표기로 보아 '아니'의 'ㅣ' 모음이 표기에서는 생략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不矣'를 '안디'로 읽는다면 이는 생략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러한 논의는 重複 表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에서 '修ゐマノヒヒ'의 '-ノ[ㄴ]'이 중복 표기된 것이라 하였는데,[8] 중복 표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多ナノの乙ㅅ, 歸ソノ乙ㅅ, 至誠乙ㅅ, 光乙ㅅ' 등의 '-乙ㅅ'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에 '-ㄹ로'가 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중복 표기가 아닐 수도 있다. 즉 '-乙ㅅ'를 중세국어의 '-으로/ᄋᆞ로'에 대응된다고 보느냐 '-ㄹ로'에 대응된다고 보느냐에 따라 중복 표기 여부에 대한 판정이 달라진다.

이처럼 口訣吐에 나타나는 생략과 중복 표기를 논의한다는 것은 쉬운 듯하면서도 아주 어렵다. 그렇더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회피할 수는 없다. 생략과 중복 표기에 대한 이해는 구결문 해독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華嚴經』 口訣文을 해

8) '不矣ヒノの乙, 不矣ヒノのノ'과 'ソヲヒノの乙'의 '-ヒノ[닌]-'도 계사 '-ㅣ[이]-'이와 동명사어미 '-ノ[ㄴ]'이 중복되어 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예들에는 '-인-'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독해 보기로 한다. 반복되는 漢文語句로서 口訣吐가 생략된 부분은 한글로 轉寫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또한 어떻게 판독하여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어떻게 새겨 읽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를 달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華嚴經』 口訣의 한글 轉寫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淨行品 第十一

爾ᄉᆞᄉᆞᆫᄀᆡ 時十 智首菩薩ᄀᆡ 文殊師利菩薩ᄭᅴ十 問ᄒᆞ 言ᄒᆞᄆᆞᄭᅴ (1:4)
그엿ᄒᆞᆫ 時 智首菩薩ᄋᆞᆫ 文殊師利菩薩ᄭᅴ 무러 니ᄅᆞ싨 (1:4)

佛子ᄒᆞ 菩薩ᄀᆡ 云何ᄒᆞᄉᆞᆷᄋᆞ 無過失身語意業乙 得ᄀᆞ 云何ᄒᆞᄉᆞᆷᄋᆞ 不害身語意業乙 得ᄀᆞ (1:4-6)
佛子아 菩薩ᄋᆞᆫ 엇여사 無過失身語意業을 어드며 엇여사 不害身語意業을 어드며 (1:4-6)

云何 不可毁身語意業 得 云何 不可壞身語意業 得 云何 不退轉身語意業 得 云何 不可動身語意業 得 云何 殊勝身語意業 得 云何 淸淨身語意業 得 云何 無染身語意業 得 (1:6-10)
云何 不可毁身語意業 得 云何 不可壞身語意業 得 云何 不退轉身語意業 得 云何 不可動身語意業 得 云何 殊勝身語意業 得 云何 淸淨身語意業 得 云何 無染身語意業 得 (1:6-10)

云何 智乙 先導ᄂᆞ 爲ᄒᆞᅀᆞᄉᆞᆫᄒᆞᆫ 身語意業乙 得ᄀᆞ (1:10)

云何 智를 先導 사모릿 身語意業을 어드며 (1:10)

云何ᄒᆞᆫᄃᆞ 生處具足ᄃᆞ 種族具足ᄃᆞ 家具足 色具足 相具足 念具足 慧具足 行具足 無畏具足 覺悟具足ᄃᆞᄂᆞᆺ乙 得ᄀᆞ (1:10-12)
엇여사 生處具足여 種族具足여 家具足 色具足 相具足 念具足 慧具足 行具足 無畏具足 覺悟具足여 호리ᄅᆞᆯ 어드며 (1:10-12)

云何ᄒᆞᆫᄃᆞ 勝慧ᄃᆞ 第一慧 最上慧 最勝慧 無量慧 無數慧 不思議慧 無與等慧 不可量慧 不可說慧ᄃᆞᄂᆞᆺ乙 得ᄀᆞ (1:12-15)
엇여사 勝慧여 第一慧 最上慧 最勝慧 無量慧 無數慧 不思議慧 無與等慧 不可量慧 不可說慧여 호리ᄅᆞᆯ 어드며 (1:12-15)

云何 因力ᄃᆞ 欲力 方便力 緣力 所緣力 根力 觀察力 奢摩他力 毗鉢舍那力 思惟力ᄃᆞᄂᆞᆺ乙 得ᄀᆞ (1:15-16)
云何 因力여 欲力 方便力 緣力 所緣力 根力 觀察力 奢摩他力 毗鉢舍那力 思惟力여 호리ᄅᆞᆯ 어드며 (1:15-16)

云何 薀善巧ᄃᆞ 界善巧 處善巧 緣起善巧 欲界善巧 色界善巧 無色界善巧 過去善巧 未來善巧 現在善巧ᄃᆞᄂᆞᆺ乙 得ᄀᆞ (1:16-19)
云何 薀善巧여 界善巧 處善巧 緣起善巧 欲界善巧 色界善巧 無色界善巧 過去善巧 未來善巧 現在善巧여 호리ᄅᆞᆯ 어드며 (1:16-19)

云何ᄒᆞᆫᄃᆞ 善ᄉᆞᆫ 念覺分ᄃᆞ 擇法覺分 精進覺分 喜覺分 猗覺分 定覺分 捨覺分ᄃᆞ 空ᄃᆞ 無相ᄃᆞ 無願ᄃᆞᄂᆞᆺ乙 修習ᄂᆞᆫᄀᆞ (1:19-21)
엇여사 이대 念覺分여 擇法覺分 精進覺分 喜覺分 猗覺分 定覺分 捨覺分여 空여 無相여 無願여 호리ᄅᆞᆯ 修習ᄒᆞ며 (1:19-21)

云何 得ᄒᆞᄆᆞᆺ 檀波羅蜜ᄃᆞ 尸波羅蜜 屬提波羅蜜 毗梨耶波羅蜜 禪那波羅蜜 般若波羅蜜ᄃᆞᄂᆞᆺ乙 圓滿ᄂᆞᆫᄀᆞ 及ᄒᆞᆫ 以ᄒᆞ 慈ᄃᆞ 悲ᄃᆞ 喜ᄃᆞ 捨ᄃᆞᄂᆞᆺ乙 圓滿ᄂᆞᆫᄀᆞ (1:21-23)

云何 시러곰 檀波羅蜜여 尸波羅蜜 屬提波羅蜜 毗梨耶波羅蜜 禪那波羅蜜 般若波羅蜜여 호리롤 圓滿ᄒᆞ며 밋 ᄡᅴ 慈여 悲여 喜여 捨여 호리롤 圓滿ᄒᆞ며 (1:21-23)

云何 處非處智力 過未現在業報智力 根勝劣智力 種種界智力ㅅ 種種解智力 一切至處道智力 禪解脫三昧染淨智力 宿住念智力 無障
碍天眼智力 斷諸習智力ㅅᄉᆞᆫᄀᆞᆯ 得 (1:23-2:3)

云何 處非處智力 過未現在業報智力 根勝劣智力 種種界智力여 種種解智力 一切至處道智力 禪解脫三昧染淨智力 宿住念智力 無障碍天眼智力 斷諸習智力여 호리롤 得 (1:23-2:3)

云何 常ㅣ 天王ㅅ 龍王ㅅ 夜叉王 乾闥婆王 阿修羅王 迦樓羅王 緊那羅王 摩睺羅伽王 人王 梵王ㅅᄉᆞᆫᄀᆞᆫ 之 守護ᄒᆞᄉᆞᆸ 恭敬ᄒᆞᄉᆞᆸ 供養ᄒᆞᄉᆞᆸᄂᆞᆫᄃᆞ 、所乙 得ᄀᆞᆫ (2:3-6)

云何 샹녜 天王여 龍王여 夜叉王 乾闥婆王 阿修羅王 迦樓羅王 緊那羅王 摩睺羅伽王 人王 梵王여 호리의 守護ᄒᆞ져 恭敬ᄒᆞ져 供養ᄒᆞ져 홇 바롤 어드며 (2:3-6)

云何 得ᄒᆞ尒 一切衆生ᄀᆞᆫ 與ᄒᆞ 依ㅣᄃᆞ 爲の乙ᄂᆞᆫᄀᆞᆫ 救ㅣᄃᆞ 爲 歸ノ干ᄃᆞ 爲 趣ノ干ᄃᆞ 爲 炬ㅣᄃᆞ 爲 明 爲 照 爲 導 爲 勝導 爲 普導ㅣᄃᆞ 爲の乙ᄂᆞᆫᄀᆞᆫ (2:6-7)

云何 시러곰 一切衆生의 더블사? 依읾 ᄃᆞᆯ ᄒᆞ며 救읾 爲 歸호릠 爲 趣호릠 爲 炬읾 爲 明 爲 照 爲 導 爲 勝導 爲 普導읾 ᄃᆞᆯ ᄒᆞ며 (2:6-7)

云何 於一切衆生ㄷ 中ᄒᆞ十 第一ㅣᄃᆞ 爲 大 爲 勝 爲 最勝 爲 妙 爲 極妙 爲 上 爲 無上 爲 無等 爲 無等等 爲の乙ᄂᆞᆫナ干ᄒᆞㄷ口 (2:7-9)

云何 一切衆生ㅅ 中아긔 第一읾 爲 大 爲 勝 爲 最勝 爲 妙 爲 極妙 爲 上 爲 無上 爲 無等 爲 無等等 ᄃᆞᆯ ᄒᆞ겨리앗고 (2:7-9)

爾時十 文殊師利菩薩ㄱ 智首菩薩乙 告ᄂᆞᆫᄒᆞ 言ㅎᄃᆞ (2:10)

그ᄢᅴ 文殊師利菩薩ᄋᆞᆫ 智首菩薩ᄋᆞᆯ 告ᄒᆞ야 니ᄅᆞ싫 (2:10)

善ᄂᆞᆨ 哉ᅀᅵ 佛子ᄉᆞ 汝ᄀᆡ 今ᄉᆞᆫᄀᆡ 饒益ᄂᆞᆫᄃᆞ 所 多ᄀᆞᆷ 安隱ᄂᆞᆫᄃᆞ 所ᄒᆞᆫ 多ᄂᆞᆨの 乙ᅮᆷ 世間乙 哀愍ᄉᆞᆷᄒᆞᆸ 天人乙 利樂ᄉᆞᆷᄒᆞᆸᄉᆞᆫ、 爲欲ᄉᆞᆫ 是 如ᄒᆞᆫᄉᆞᄇᆞᆫᄐᆞ 義乙 問ᄌᆞᄂᆞᆨ丁 (2:10-12)

읻견뎌 佛子여 그ᄃᆡ는 엳ᄒᆞᆫ 饒益ᄒᆞᆷ 바 하며 安隱ᄒᆞᆷ 바 하견 ᄃᆞ로 世間ᄋᆞᆯ 哀愍ᄒᆞ져 天人을 利樂ᄒᆞ져 ᄒᆞ과 이 다ᄒᆞ낫 義를 묻거견뎌 (2:10-12)

佛子ᄒᆞᆫ 若ᄐᆞ 諸ᄀᆞ 菩薩ᄇᆡ 善ᄒᆞᆫ 其心乙 用ᄉᆞᄇᆞᆫᄃᆞᄀᆞ 則ᄒᆞᆫ 一切勝妙功德乙 獲ᄇᆞᆫᄎᆞᄆᆞ (2:12-13)

佛子아 ᄒᆞ다갓 모ᄃᆞᆫ 菩薩이 이대 其心을 用ᄒᆞ낧ᄃᆞᆫ 一切勝妙功德을 얻나리라 (2:12-13)

於諸ᄀᆞ 佛法ᄒᆞᆫᄀᆞ十 心ᄉᆞᆷ 碍ᄂᆞᆫᄃᆞ 所ᄒᆞᆫ 無ᄀᆞᆷ 去來今ᄐᆞ 諸ᄀᆞ 佛ᄆᆞᆫ 之道ᄒᆞᆫᄀᆞ十 住ᄉᆞᆫᄀᆞᆷ 衆生乙 隨ᄉᆞᆷ 住ᄉᆞᆫᄒᆞᆫᄌᆞ 恒ᄇᆡ 捨離ᄂᆞᆫᄃᆞ 不ᄉᆞᆫᄀᆞᆷ (2:13-14)

모ᄃᆞᆫ 佛法아기 ᄆᆞᄉᆞᆷ 碍ᄒᆞᆷ 바 업스며 去來今ᄉᆞ 모ᄃᆞᆫ 부터 道아기 住ᄒᆞ며 衆生올 조초 住ᄒᆞ야곰 기리? ᄇᆞ리여ᄒᆞᆶ 안돌ᄒᆞ며 (2:13-14)

諸ᄀᆞ 法相乙 如ᄆᆞᆫ 悉ᄒᆞᆫᄀᆞ 能ᄒᆞᆫ 通達ᄉᆞᆫᄀᆞᆷ 一切惡乙 斷ᄉᆞᆫᄀᆞᆷ 衆ᄀᆞ 善乙 具足 當ᄒᆞᆫ 菩賢、 如ᄒᆞᆫᄉᆞᆫᄒᆞᆫᄀᆞ 色像 第一ᄇᆡᄀᆞᆷ (2:14-16)

모ᄃᆞᆫ 法相올 ᄀᆞᆮ 다 能히 通達ᄒᆞ며 一切惡올 斷ᄒᆞ며 한 善을 具足 반ᄃᆞ기 菩賢 다ᄒᆞ야 色像 第一이며 (2:14-16)

一切行願乙 皆ᄐᆞ 得ᄒᆞᆫᄌᆞ 具足ᄉᆞᆫᄀᆞᆷ 於一切法ᄒᆞᆫᄀᆞ十 自在ᄂᆞᆫᄃᆞ 無不ᄉᆞᆫᄃᆞ丁ノᄂᆞᆫᄃᆞ 而ᄆᆞᆷ 衆生ᄅᆞᄐᆞ 第二導師ᄇᆡᄂᆞᆫᄃᆞ 爲の乙ᄉᆞᆫᄎᆞᄒᆞᄐᆞᄒᆞᄂᆡ (2:16-17)

一切行願을 다ᄆᆞᆺ 시러곰 具足ᄒᆞ며 一切法아기 自在ᄆᆞᆷ 無不ᄒᆞᆷ며 ᄒᆞᆷ로 衆生잇 第二導師읾 ᄃᆞᆯ ᄒᆞ거겸싸 (2:16-17)

佛子ᄒᆞᆫ 云何ᄐᆞᄉᆞᆫᄀᆞ乙 用心ᄉᆞᆫᄀᆞᄂᆡ十 能ᄒᆞᆫ 一切勝妙功德乙 獲ᄂᆞᆫᄃᆞ丁ノ令ロᄉᆞᆫᄎᆞᄂᆞᆫᄃᆞᄀᆞ (2:17-18)

佛子아 엇ᄒᆞᆫᄋᆞᆯ 用心ᄒᆞᆫ다긔 能히? 一切勝妙功德을 어듧뎌 호리고 ᄒᆞ릷 ᄃᆞᆫ (2:17-18)

佛子ㅣ 菩薩ᄂᆡ 在家ᄒᆞᄀᆡᆫᄒᆞᆫᄀᆡ 當ᄒᆞᆫ 願ᄆᆞᅀᆞᆷᄋᆞᆫᄀᆡ 衆生ᄀᆡ 家性ᄅᆞᆯ 空ᄒᆞᆫᄀᆡᄋᆞᆫᄀᆞᆯ 知ㅣᄋᆞᆯ 其逼迫ᄀᆞᆯ 免ᄒᆞᄇᆡᄒᆞᆸᄂᆞᆫᄋᆞᅎᄒᆞᆫᄀᆞᆫ (2:18-19)

佛子아 菩薩이 在家ᄒᆞᆫ다긴 반ᄃᆞ기 願ᄅᆞᆶᄃᆞᆫ 衆生ᄋᆞᆫ 家性의 空ᄒᆞᆫ ᄃᆞᆯ 아라곰 其逼迫ᄋᆞᆯ 벗나써 ᄒᆞ노리며 (2:18-19)

父母ᄀᆞᆯ 孝事ᄂᆞᆸᄀᆡᆫᄒᆞᆫᄀᆡ 當ᄒᆞᆫ 願ᄋᆞᆫᄀᆡ 衆生ᄀᆡ 善ᄒᆞᆫ 於佛ᄀᆞᆯ 事ᄒᆞᆫ白ㅣᄋᆞᆯ 一切ᄀᆞᆯ 護ᄂᆞᆼᄒᆞᆷ 養ᄂᆞᆼᄒᆞᆷᄂᆞᄇᆡᄒᆞᆸᄂᆞᆫ (2:20)

父母ᄅᆞᆯ 孝事ᄒᆞ건다긴 반ᄃᆞ기 願(ᄅᆞᆶ)ᄃᆞᆫ 衆生ᄋᆞᆫ 이대 佛을 셤기ᄉᆞ바곰 一切를 護ᄒᆞ져 養ᄒᆞ져 ᄒᆞ나써 (2:20)

妻子 集會ᄂᆞᆸᄀᆡᆫᄒᆞᆫᄀᆡ 當 願 衆生 怨親平等ᄂᆞᆫᄋᆞᆯ 永ᄃᆞᆸ 貪著 離ᄒᆞᄇᆡᄒᆞᆸᄂᆞᆫ (2:21)

妻子 集會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怨親平等ᄒᆞ야곰 길긔? 貪著 여희나써 (2:21)

若ᄒᆞᆫ 五欲ᄀᆞᆯ 得ㅣᄀᆞᆫᄀᆡᆫᄒᆞᆫᄀᆡ 當 願 衆生 欲箭ᄀᆞᆯ 拔除ᄂᆞᆫㅣᄋᆞᆫ 究竟 安隱ᄂᆞᆼᄇᆡᄒᆞᆸᄂᆞᆫ (2:22)

ᄒᆞ다갓 五欲ᄋᆞᆯ 어던다긴 當 願 衆生 欲箭을 拔除ᄒᆞ약 究竟 安隱ᄒᆞ나써 (2:22)

妓樂聚會 當 願 衆生 以法自娛 了妓非實 (2:23)

妓樂聚會 當 願 衆生 以法自娛 了妓非實 (2:23)

若ᄒᆞᆫ 宮ㅣ 室ㅣᄂᆞᆺᄉᆞᄅᆞᆨᄒᆞᆫ 在ᄂᆞᆸᄀᆡᆫᄒᆞᆫᄀᆡ 當 願 衆生 於聖地ㅣᄒᆞᆫ 入ᄂᆞᆫㅣᄋᆞᆯ 永ᄃᆞᆸ 穢欲ᄀᆞᆯ 除ᄇᆡᄒᆞᆸᄂᆞᆫ (2:24)

ᄒᆞ다갓 宮여 室여 호리의긔 在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聖地아기 入ᄒᆞ야곰 길긔? 穢欲ᄋᆞᆯ 덜나써 (2:24)

瓔珞乙 著ㅅ古ㄱ 時ㅣ十ㄱ 當 願 衆生 諸ㄱ 僞飾乙 捨ㅅ口ㅂ 眞實處ㅣ十 到ㅌ立 (3:1)

瓔珞올 著ᄒᆞ건 ᄆᆞᅀᅥ긘 當 願 衆生 모ᄃᆞᆫ 僞飾을 捨ᄒᆞ곡 眞實處아기 니를나쎠 (3:1)

樓閣ㅣ十 上昇ㅅ古ㄱㅣ十ㄱ 當 願 衆生 正法樓ㅣ十 昇ㅅㅣ尒 一切乙 徹見ㅅㅌ立 (3:2)

樓閣아기 上昇ᄒᆞ건다긘 當 願 衆生 正法樓아기 昇ᄒᆞ야곰 一切를 徹見ᄒᆞ나쎠 (3:2)

若ㄷ 施ノ尸 所乙 有ㅛ古ㄱㅣ十ㄱ 當 願 衆生 一切乙 能ㅊ 捨ㅅㅣ尒 心ㅣ十 愛著ノ尸 無ㅌ立 (3:3)

ᄒᆞ다갓 施홇 바ᄅᆞᆯ 두건다긘 當 願 衆生 一切를 能히? 捨ᄒᆞ야곰 ᄆᆞᅀᆞᆷ아기 愛著홇 없나쎠 (3:3)

衆會聚集ㅅ古ㄱㅣ十ㄱ 當 願 衆生 衆ㄱ 聚ㄷ 法乙 捨ㅅㅣㅅ 一切智乙 成ㅐㅌ立 (3:4)

衆會聚集ᄒᆞ건다긘 當 願 衆生 ᄒᆞᆫ 聚ㅅ 法을 捨ᄒᆞ약 一切智를 이리나쎠 (3:4)

若ㄷ 戹難ㅣ十 在ㅅ古ㄱㅣ十ㄱ 當 願 衆生 意乙 隨ㅋ 自在ㅅㅣ尒 所行 碍尸 無ㅌ立 (3:5)

ᄒᆞ다갓 戹難아기 在ᄒᆞ건다긘 當 願 衆生 意를 조초 自在ᄒᆞ야곰 所行 碍ㅍ 없나쎠 (3:5)

居家乙 捨ㅅ古ㄱ 時十ㄱ 當 願 衆生 出家ノ尸ム 碍尸 無ㅣㅅ 心ㅣ十 解脫ノ尸の乙 得ㅌ立 (3:6)

居家ᄅᆞᆯ 捨ᄒᆞ건 ᄲᅳᆫ 當 願 衆生 出家홇ᄃᆡ 碍ㅍ 업석 ᄆᆞᅀᆞᆷ아기 解脫홇 ᄃᆞᆯ 얻나쎠 (3:6)

僧伽藍ㅣ十 入ㅅ古ㄱㅣ十ㄱ 當 願 衆生 種種 無乖諍ㄷ 法乙 演說ㅅㅌ立

(3:7)

僧伽藍아기 入ᄒᆞ건다긘 當 願 衆生 갓갓 無乖諍ㅅ 法을 演說ᄒᆞ나쎠 (3:7)

大小師ㄹ十 詣ㅿㄱㅣ十ㄱ 當 願 衆生 巧ㅣ 師長ㄱ 事ㅅ白ᄒᆞㅅ 善法ㄱ 習行ᄒᆞᄆᆞᄐᆞ (3:8)

大小師의긔 나ᅀᅡ가건다긘 當 願 衆生 이디? 師長ᄋᆞᆯ 셤기ᄉᆞ박 善法을 習行ᄒᆞ나쎠 (3:8)

出家ㅅ尸の乙 求請ᄒᆞㅿㄱㅣ十ㄱ 當 願 衆生 不退法ㄱ 得ᄒᆞ尒 心ㅁ 障碍尸 無ᄆᆞᄐᆞ (3:9)

出家홇 ᄃᆞᆯ 求請ᄒᆞ건다긘 當 願 衆生 不退法을 어더곰 ᄆᆞᅀᆞᆷ 障碍ㅱ 없나쎠 (3:9)

俗服ㄱ 脫去ᄒᆞㅿㄱㅣ十ㄱ 當 願 衆生 勤ㄷ 善根ㄱ 修ᄒᆞㅅ 諸罪ㄷ 輭ㄱ 捨ᄒᆞᄆᆞᄐᆞ (3:10)

俗服ᄋᆞᆯ 脫去ᄒᆞ건다긘 當 願 衆生 븟 善根을 닷각 諸罪ㅅ 輭ᄋᆞᆯ 捨ᄒᆞ나쎠 (3:10)

鬚髮ㄱ [髟弟]除ᄒᆞㅿㄱㅣ十ㄱ 當 願 衆生 永ㅿ 煩惱ㄱ 離ᄒᆞ口ㅅ 究竟 寂滅ᄒᆞᄆᆞᄐᆞ (3:11)

鬚髮ᄋᆞᆯ [髟弟]除ᄒᆞ건다긘 當 願 衆生 길긔? 煩惱ᄅᆞᆯ 여희곡 究竟 寂滅ᄒᆞ나쎠 (3:11)

袈裟衣ㄱ 著ᄒᆞㅿㄱㅣ十ㄱ 當 願 衆生 心ᄒᆞ十 染ㅅ尸 所ᄒᆞ 無ᄒᆞㅅ 大仙ㄹ 道ㄱ 具ㅱᄆᆞᄐᆞ (3:12)

袈裟衣ᄅᆞᆯ 著ᄒᆞ건다긘 當 願 衆生 ᄆᆞᅀᆞᆷ아기 染홇 바 업석 大仙의 道ᄅᆞᆯ ᄀᆞᄎᆞ나쎠 (3:12)

正ㄷ 出家ᄒᆞㅿㄱ 時ᄉᆞ十ㄱ 當 願 衆生 佛ㅁ 出家ᄒᆞㅎㅱㄱㄹ十 同ᄒᆞᄒᆞㅅ 一切ㄱ 救護ᄒᆞᄆᆞᄐᆞ (3:13)

못 出家ᄒᆞ건 ᄲᅳ여긘 當 願 衆生 부텨 出家ᄒᆞ시온의긔 同ᄒᆞ야 一切를 救護ᄒᆞ나ᅀᅥ (3:13)

於佛乙 自ㅅᄂᆡ 歸ᄂᆡ 乙ᄆᆞᆷ 當 願 衆生 佛種乙 紹隆ᄉᆞᄋᆞ尒 無上意乙 發ᄂᆞᄒᆞᅀᆞ (3:14)

佛을 조초ᄒᆞᆫ? 歸ᄒᆞᄂᆞ로 當 願 衆生 佛種ᄋᆞᆯ 紹隆ᄒᆞ야곰 無上意를 發ᄒᆞ나ᅀᅥ .(3:14)

於法乙 自ㅅᄂᆡ 歸ᄂᆡ 乙ᄆᆞᆷ 當 願 衆生 深ㅣ 經藏ᄉᆞ十 入ᄂᆞᄉᆞ八 智慧ㅣ 海ㅣ 如ᄒᆞᄂᆞᄒᆞᅀᆞ (3:15)

法을 조초ᄒᆞᆫ? 歸ᄒᆞᄂᆞ로 當 願 衆生 기피 經藏아기 入ᄒᆞ야 智慧이 海 다ᄒᆞ나ᅀᅥ (3:15)

於僧乙 自ㅅᄆᆡ 歸ᄂᆡ 乙ᄆᆞᆷ 當 願 衆生 大衆乙 統理ㅅᄇᆞᆷ 一切ᄋᆞᄎᆡ 碍ᄇᆞ 無ᄒᆞᅀᆞ (3:16)

僧을 좇ᄒᆞᆫ? 歸ᄒᆞᄂᆞ로 當 願 衆生 大衆을 統理ᄒᆞᆷ디 一切옛 碍ᄆᆞ 없나ᅀᅥ (3:16)

戒乙 受ᄂᆞᄒᆞ 學ᄂᆞᄒᆞᄂᆞᄉᆞ기 時ㅣ十기 當 願 衆生 善ᄒᆞ 於戒乙 學ᄂᆞᄉᆞ八 衆기 惡乙 作ᄇᆞ 不ᄂᆞᄒᆞᅀᆞ (3:17)

戒를 受ᄒᆞ져 學ᄒᆞ져 ᄒᆞ건 ᄲᅳ여긘 當 願 衆生 이대 戒를 學ᄒᆞ야 ᄒᆞᆫ 惡ᄋᆞᆯ 지ᅀᆞᆷ 안ᄃᆞᆯᄒᆞ나ᅀᅥ (3:17)

闍梨教乙 受ᄉᆞ기ㅣ十기 當 願 衆生 威儀乙 具足ᄂᆞᄉᆞ尒 所行 眞實ᄂᆞᄒᆞᅀᆞ (3:18)

闍梨教ᄅᆞᆯ 받건다긴 當 願 衆生 威儀를 具足ᄒᆞ야곰 所行 眞實ᄒᆞ나ᅀᅥ (3:18)

和尙ㅋ 教乙 受ᄉᆞ기ㅣ十기 當 願 衆生 無生智ᄉᆞ十 入ᄂᆞᄉᆞ八 無依處ᄉᆞ十 到ᄒᆞᅀᆞ (3:19)

和尙의 教ᄅᆞᆯ 받건다긴 當 願 衆生 無生智아기 入ᄒᆞ야 無依處아기 니ᄅᆞᆯ나ᅀᅥ

(3:19)

具足戒乙 受ᄉᆞᆫᄀᆡ ᅀᆞᆫᄀᆡ 當 願 衆生 諸ᄀᆡ 方便乙 具ᄀᆞᄌᆞ 最勝法乙 得ᄒᆞᅀᆞᆫ
(3:20)
具足戒를 받건다긘 當 願 衆生 모ᄃᆞᆫ 方便을 ᄀᆞᄎᆞ아곰 最勝法을 얻나쎠
(3:20)

若ᄒᆞ 堂宇ᄌᆞᅀᆞ 入ᄉᆞᆫᄀᆡ ᅀᆞᆫᄀᆡ 當 願 衆生 無上堂ᄌᆞᅀᆞ 昇ᄂᆞᄌᆞᄒᆞ 安住ᄂᆞᄌᆞᄀᆞ
動ᄆᆞ 不ᄂᆞᄒᆞᅀᆞᆫ (3:21)
ᄒᆞ다갓 堂宇아긔 들건다긘 當 願 衆生 無上堂아긔 昇ᄒᆞ약 安住ᄒᆞ야곰 뭃 안
ᄃᆞᆯᄒᆞ나쎠 (3:21)

若ᄒᆞ 牀座乙 敷ᄂᆞᄉᆞᆫᄀᆡ ᅀᆞᆫᄀᆡ 當 願 衆生 善法乙 開敷ᄂᆞᄌᆞᄒᆞ 眞實相乙 見ᄒᆞ
ᅀᆞᆫ (3:22)
ᄒᆞ다갓 牀座ᄅᆞᆯ 敷ᄒᆞ건다긘 當 願 衆生 善法을 開敷ᄒᆞ약 眞實相ᄋᆞᆯ 보나쎠
(3:22)

正身ᄂᆞᄌᆞᄀᆞᄌᆞ 端坐ᄂᆞᄉᆞᆫᄀᆡ ᅀᆞᆫᄀᆡ 當 願 衆生 菩提座ᄌᆞᅀᆞ 坐ᄂᆞᄌᆞᄒᆞ 心 著ᄂᆞᄆᆞ
所ᄌᆞ 無ᄒᆞᅀᆞᆫ (3:23)
正身ᄒᆞ야곰 端坐ᄒᆞ건다긘 當 願 衆生 菩提座아긔 坐ᄒᆞ약 ᄆᆞᄉᆞᆷ 著홇 바 없나
쎠 (3:23)

結跏趺坐ᄂᆞᄉᆞᆫᄀᆡ ᅀᆞᆫᄀᆡ 當 願 衆生 善根 堅固ᄂᆞᄌᆞᄒᆞ 不動地乙 得ᄒᆞᅀᆞᆫ (3:24)
結跏趺坐ᄒᆞ건다긘 當 願 衆生 善根 堅固ᄒᆞ약 不動地를 얻나쎠 (3:24)

於定乙 修行ᄂᆞᄉᆞᆫᄀᆡ ᅀᆞᆫᄀᆡ 當 願 衆生 定乙 以ᄌᆞᄒᆞ 心乙 伏ᄂᆞᄆᆞᄆᆞᄉᆞᆷ 究竟 餘ᄂᆞ
ᄀᆞ 無ㅣᄂᆞᄒᆞᅀᆞᆫ (4:1)
定을 修行ᄒᆞ건다긘 當 願 衆生 定을 ᄡᅥᆨ ᄆᆞᄉᆞᆷ 伏홇ᄃᆡ 究竟 남ᄒᆞᆫ 없이 ᄒᆞ나
쎠 (4:1)

若 於觀乙 修ᄒᆞᅀᆞᆫᄀᆞᆡ十ᄀᆞ 當 願 衆生 如實 理乙 見ᄒᆞ尒 永ᅀᆞ 乖諍、無ᄇᆞ立 (4:2)

ᄒᆞ다갓 觀올 닷건다긴 當 願 衆生 如實 理를 보아곰 길긔? 乖諍 없나쎠 (4:2)

跏趺坐乙 捨ᄂᆞᅀᆞᆫᄀᆞᆡ十ᄀᆞ 當 願 衆生 諸ᄀᆞ 行法ᄋᆞ 悉ᄒᆞ 散滅ᄂᆞᄆᆞ矣十 歸ᄂᆞᄆᆞの乙 觀ᄂᆞᄇᆞ立 (4:3)

跏趺坐를 捨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모든 行法의 다 散滅홈 디긔 歸홈 ᄃᆞᆯ 觀ᄒᆞ나쎠 (4:3)

下足ᄂᆞᄒᆞ 住ᄂᆞᅀᆞᆫᄀᆞ 時十ᄀᆞ 當 願 衆生 心ᄒᆞ十 解脫ᄂᆞᄆᆞの乙 得ᄒᆞᄉᆞ 安住ᄂᆞᄒᆞ尒 動ᄆᆞ 不ᄂᆞᄇᆞ立 (4:4)

下足ᄒᆞ야 住ᄒᆞ건 ᄲᅴ 當 願 衆生 ᄆᆞᅀᆞ마긔 解脫홈 ᄃᆞᆯ 어딕 安住ᄒᆞ야곰 뭃 안 ᄃᆞᆯᄒᆞ나쎠 (4:4)

若ᄂᆞ 於足乙 擧ᄂᆞᅀᆞᆫᄀᆞᆡ十ᄀᆞ 當 願 衆生 生死海乙 出ᄂᆞᄒᆞ尒 衆ᄀᆞ 善法乙 具ᄀᆞᄇᆞ立 (4:5)

ᄒᆞ다갓 足올 擧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生死海를 出ᄒᆞ야곰 한 善法을 ᄀᆞ초나쎠 (4:5)

下[君巾]乙 著ᄂᆞᅀᆞᆫᄀᆞ 時十ᄀᆞ 當 願 衆生 諸 善根 服ᄂᆞᄒᆞ尒 慙媿 具足ᄂᆞᄇᆞ立 (4:6)

下[君巾]을 著ᄒᆞ건 ᄲᅴ 當 願 衆生 諸 善根 服ᄒᆞ야곰 慙媿 具足ᄒᆞ나쎠 (4:6)

整衣ᄂᆞᄀᆞ 束帶ᄂᆞᅀᆞᆫᄀᆞᆡ十ᄀᆞ 當 願 衆生 善根乙 檢束ᄂᆞᄒᆞᄉᆞ 散失、令ᄆᆡᄆᆞ、不ᄂᆞᄇᆞ立 (4:7)

整衣ᄒᆞ며 束帶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善根을 檢束ᄒᆞ약 散失 ᄒᆞ잃 안ᄃᆞᆯᄒᆞ나쎠 (4:7)

若ᄂᆞ 上衣乙 著ᄂᆞᅀᆞᆫᄀᆞᆡ十ᄀᆞ 當 願 衆生 勝善根乙 獲ᄒᆞ尒 法ᄂᆞ 彼岸ᄒᆞ十 至

ᄒᆞ立 (4:8)

ᄒᆞ다갓 上衣를 著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勝善根을 어더곰 法ㅅ 彼岸아기 니를 나쎠 (4:8)

僧伽梨乙 著ㅅ去ㄱ ㅣ十ㄱ 當 願 衆生 第一位ㅣ十 入ㅅㅣ尒 不動法乙 得ᄒᆞ立 (4:9)

僧伽梨를 著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第一位아기 入ᄒᆞ야곰 不動法을 얻나쎠 (4:9)

手ㅣ十 楊枝乙 執去ㄱ ㅣ十ㄱ 當 願 衆生 皆ᄒᆞ 妙法乙 得ㅣ尒 究竟 淸淨ㅅᄒᆞ立 (4:10)

손아기 楊枝를 잡건다긴 當 願 衆生 다ᄆᆞᆺ 妙法을 어더곰 究竟 淸淨ᄒᆞ나쎠 (4:10)

楊枝乙 嚼ㅅ去ㄱ 時十ㄱ 當 願 衆生 其心ᄉᆞ 調淨ㅅㅣㅅ 諸ㄱ 煩惱乙 嗽ㅅᄒᆞ立 (4:11)

楊枝를 嚼ᄒᆞ건 ᄲᅮᆫ 當 願 衆生 그 ᄆᆞᅀᆞᆷ 調淨ᄒᆞ약 모ᄃᆞᆫ 煩惱를 嗽ᄒᆞ나쎠 (4:11)

大小便乙ㅅ去ㄱ 時十ㄱ 當 願 衆生 貪瞋癡乙 棄ㅅ로ㅅ 罪ㅌ 法乙 鐲除ㅅᄒᆞ立 (4:12)

大小便을 ᄒᆞ건 ᄲᅮᆫ 當 願 衆生 貪瞋癡를 棄ᄒᆞ곡 罪ㅅ 法을 鐲除ᄒᆞ나쎠 (4:12)

事乙 訖ㅁㅅ 水ㅣ十 就去ㄱ ㅣ十ㄱ 當 願 衆生 出世ㅌ 法ㅌ 中ㅣ十 速疾ᄉᆞ 而ᄆᆞ 往ㅅᄒᆞ立 (4:13)

이를 ᄆᆞᆺ곡? 므라기 낫건다긴? 當 願 衆生 出世ㅅ 法ㅅ 中아기 速疾히 往ᄒᆞ나쎠 (4:13)

形ㅌ 穢ㅅㄱ の乙 洗滌ㅅ去ㄱ ㅣ十ㄱ 當 願 衆生 淸淨 調柔ㅅㅣㅅ 畢竟 垢、無ᄒᆞ立 (4:14)

ᄌᆞᆺ 穢ᄒᆞᆫ ᄃᆞᆯ 洗滌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淸淨 調柔ᄒᆞ약 畢竟 垢 없나쎠 (4:14)

水乙 以 掌乙 盥ㅿㄱㅣ十ㄱ 當 願 衆生 淸淨手乙 得ᄀᆞ尒 佛法乙 受持ᄂᆞᄇᆞ立 (4:15)

므를 뼈 掌올 싯건다긴 當 願 衆生 淸淨手를 어더곰 佛法을 受持ᄒᆞ나쎠 (4:15)

水乙 以 面乙 洗ㅿㄱㅣ十ㄱ 當 願 衆生 淨法門乙 得ᄀᆞ尒 永ㅿ 垢染、無ᄇᆞ立 (4:16)

므를 뼈 ᄂᆞᄎᆞᆯ 싯건다긴 當 願 衆生 淨法門을 어더곰 길긔? 垢染 없나쎠 (4:16)

手ᄀᆞ十 錫杖 執ᄀᆞㄱㅣ十ㄱ 當 願 衆生 大施會乙 設ᄂᆞᄀᆞ尒 如實 道乙 示ᄀᆡᄇᆞ立 (4:17)

손아긔 錫杖 자반다긴 當 願 衆生 大施會ᄅᆞᆯ 設ᄒᆞ야곰 如實 道ᄅᆞᆯ 보이나쎠 (4:17)

應器乙 執持ᄂᆞㅿㄱㅣ十ㄱ 當 願 衆生 法器乙 成就ᄂᆞᄀᆞ尒 天人ㅣ 供乙 受ᄇᆞ立 (4:18)

應器를 執持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法器를 成就ᄒᆞ야곰 天人ㅅ 供올 받나쎠 (4:18)

趾乙 發ᄂᆞᄀᆞ尒 道乙 向ᄂᆞㅿㄱㅣ十ㄱ 當 願 衆生 佛矣 所行ᄀᆞ十 趣ᄂᆞᄀᆞㅅ 無依處ᄀᆞ十 入乙ᄇᆞ立 (4:19)

趾를 發ᄒᆞ야곰 道ᄅᆞᆯ 向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부텨 所行아긔 趣ᄒᆞ약 無依處아긔 들나쎠 (4:19)

若ㅣ 於道ᄀᆞ十 在ᄂᆞㅿㄱㅣ十ㄱ 當 願 衆生 能ᄉᆞ 佛道乙 行ᄂᆞᄀᆞ尒 無餘法ᄀᆞ十 向ᄂᆞᄇᆞ立 (4:20)

ᄒᆞ다갓 道아긔 在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잘 佛道ᄅᆞᆯ 行ᄒᆞ야곰 無餘法아긔 向ᄒᆞ나쎠 (4:20)

路乙 涉ᄋᆞ尒 而ᄆᆞ 去ᄉᆞᄀᆡᆞᆫᄀᆡ 當 願 衆生 淨法界乙 履ᄂᆞᄆᆞᄆᆞᄉᆞᆷ 心ᄋᆞᆫ 障碍ᄆᆞ 無ᄒᆞᆫᄃᆞᆫ (4:21)

길흘 건너곰 가건다긘 當 願 衆生 淨法界를 履홇ᄃᆡ ᄆᆞᄉᆞ마기 障碍ᄆᆞ 없나쎠 (4:21)

高ᄀᆞᄅᆞᆫ 昇ᄂᆞᄉᆞᆫᄐᆞ 路乙 見ᄋᆞᄀᆞᄀᆡᆞᆫᄀᆡ 當 願 衆生 永ᄉᆞ 三界乙 出ᄂᆞᄋᆞᆫ尒 心ᄋᆞᆫ 怯弱ᄋᆞ 無ᄒᆞᆫᄃᆞᆫ (4:22)

노ᄑᆞ뇌긔 昇호릿 길흘 보안다긘 當 願 衆生 길긔? 三界를 出ᄒᆞ야곰 ᄆᆞᄉᆞ마기 怯弱 없나쎠 (4:22)

下ᄀᆞᄅᆞᆫ 趣ᄂᆞᄉᆞᆫᄐᆞ 路乙 見ᄋᆞᄀᆞᄀᆡᆞᆫᄀᆡ 當 願 衆生 其心ᄒᆞ 謙下ᄂᆞᄋᆞᆫ ᄒᆞ 佛矢 善根乙 長ᄂᆞᄒᆞᆫᄃᆞᆫ (4:23)

ᄂᆞ가ᄇᆞ뇌긔 趣호릿 길흘 보안다긘 當 願 衆生 그 ᄆᆞᄉᆞᆷ 謙下ᄒᆞ약 부텨 善根을 長ᄒᆞ나쎠 (4:23)

斜曲ᄂᆞᄒᆞᆫᄐᆞ 路乙 見ᄂᆞᄀᆞᄀᆡᆞᆫᄀᆡ 當 願 衆生 不正道乙 捨ᄂᆞᄋᆞᆫ ᄒᆞ 永ᄉᆞ 惡見乙 除ᄒᆞᆫᄃᆞᆫ (4:24)

斜曲ᄒᆞ낫 길흘 見ᄒᆞ다긘 當 願 衆生 不正道를 捨ᄒᆞ약 길긔? 惡見을 덜나쎠 (4:24)

若ᄐᆞ 直路乙 見ᄋᆞᄀᆞᄀᆡᆞᆫᄀᆡ 當 願 衆生 其心ᄒᆞ 正直ᄂᆞᄋᆞᆫ ᄒᆞ 詔 無ᄀᆞ 誑ᄋᆞ 無ᄒᆞᆫᄃᆞᆫ (5:1)

ᄒᆞ다갓 直路를 보안다긘 當 願 衆生 그 ᄆᆞᄉᆞᆷ 正直ᄒᆞ약 詔 업스며 誑 없나쎠 (5:1)

路ᄀᆡᆨ 塵ᄋᆞ 多ᄀᆞᆫ 乙 見ᄂᆞᄀᆞᄀᆡᆞᆫᄀᆡ 當 願 衆生 塵坌乙 遠離ᄂᆞᄋᆞᆫ ᄒᆞ 淸淨法乙 獲ᄒᆞᆫᄃᆞᆫ (5:2)

길히 듣글 한올 見ᄒᆞ다긘 當 願 衆生 塵坌을 遠離ᄒᆞ약 淸淨法을 얻나쎠 (5:2)

路ㅣ 無塵ᄂᆞᆫ 乙 見ᄒᆞᄀᆞᆫ ㅣ十ᄀᆞ 當 願 衆生 常ㅣ 大悲乙 行ᄂᆞᄒᆞᄋᆞᆫ 其心ᄋᆞᆫ 潤澤ᄂᆞᄒᆞᆫ (5:3)

길히 無塵ᄒᆞᆫ올 보안다긴 當 願 衆生 상녜 大悲를 行ᄒᆞ야곰 그 ᄆᆞᅀᆞᆷ 潤澤ᄒᆞ나쎠 (5:3)

若ᄒᆞ 險道乙 見ᄒᆞᄀᆞᆫ ㅣ十ᄀᆞ 當 願 衆生 正法界ᄒᆞ十 住ᄂᆞᄒᆞᄉᆞ 諸ᄀᆞ 罪難乙 離ᄒᆞᄒᆞᆫ (5:4)

ᄒᆞ다갓 險道를 보안다긴 當 願 衆生 正法界아긔 住ᄒᆞ약 모ᄃᆞᆫ 罪難올 여희나쎠 (5:4)

若ᄒᆞ 衆會乙 見ᄒᆞᄀᆞᆫ ㅣ十ᄀᆞ 當 願 衆生 甚深法乙 說ᄒᆞᄋᆞ 一切乙 和合ᄉᆞㅣᄒᆞᄒᆞᆫ (5:5)

ᄒᆞ다갓 衆會를 보안다긴 當 願 衆生 甚深法을 닐어곰 一切를 和合ᄒᆞ이나쎠 (5:5)

若ᄒᆞ 大柱乙 見ᄒᆞᄀᆞᆫ ㅣ十ᄀᆞ 當 願 衆生 我諍ᄒᆞ 心乙 離ᄒᆞᄆᆞᄒᆞ 有忿恨ᄂᆞᄑᆞ 無ᄒᆞᄒᆞᆫ (5:6)

ᄒᆞ다갓 大柱를 보안다긴 當 願 衆生 我諍ㅅ ᄆᆞᅀᆞᆯ 여희곡 有忿恨홈 없나쎠 (5:6)

若ᄒᆞ 叢林乙 見ᄒᆞᄀᆞᆫ ㅣ十ᄀᆞ 當 願 衆生 諸ᄀᆞ 天ᄉᆞ 及ᄒᆞ 人ᄉᆞᄂᆞᄉᆞᄅᆞ 敬禮ᄂᆞᄋᆞ 應ᄒᆞᄂᆞᄀᆞ 所ㅣᄒᆞᄒᆞᆫ (5:7)

ᄒᆞ다갓 叢林을 보안다긴 當 願 衆生 모ᄃᆞᆫ 天여 밋 人여 호리의 敬禮홈 맛ᄒᆞᆫ 바이나쎠 (5:7)

若ᄒᆞ 高山乙 見 當 願 衆生 善根 超出ᄂᆞᄒᆞᄉᆞ 能ᄋᆞᆨ 頂ᄒᆞ十 至ᄒᆞᄉᆞ 無ᄒᆞᄒᆞᆫ (5:8)

ᄒᆞ다갓 高山올 見 當 願 衆生 善根 超出ᄒᆞ약 어디? 頂아긔 닐아리 없나쎠 (5:8)

棘刺樹乙 見 當 願 衆生 疾ㅣ 得ᄋᆞ尒 三毒ㄴ 之刺乙 翦除ᄂᆞᄒᆞ立 (5:9)
棘刺樹를 見 當 願 衆生 疾이 시러곰 三毒ㅅ 刺를 翦除ᄒᆞ나쎠 (5:9)

樹ㅣ 葉茂ᄂᆞᄀᆞ乙 見 當 願 衆生 定ᄉᆞ 解脫ᄉᆞᄂᆞᆺ乙 以ᄋᆞㅅ 而ᅀᅀ 蔭映ᄂᆞᄑᆞ 爲ᄋᆞᄒᆞ立 (5:10)
樹이 葉茂ᄒᆞᆫ올 見 當 願 衆生 定여 解脫여 호리를 뻑 蔭映ᄒᆞᆷ 삼나쎠 (5:10)

若 華開ᄂᆞᄀᆞ乙 見 當 願 衆生 神通 等ㅣᄂᆞᄀᆞ 法ㄱ 華ㆍ 如ᄒᆞᆫᄂᆞᄋᆞ 開敷ᄂᆞᄒᆞ立 (5:11)
ᄒᆞ다갓 華開ᄒᆞᆫ올 見 當 願 衆生 神通 다ᄒᆞᆫ 法은 華 다ᄒᆞ야 開敷ᄒᆞ나쎠 (5:11)

若 樹華乙 見 當 願 衆生 衆ㄱ 相ㅣ 華ㆍ 如ᄒᆞᆫᄂᆞᄋᆞ 三十二乙 具ᄀᆞᄒᆞ立 (5:12)
ᄒᆞ다갓 樹華를 見 當 願 衆生 ᄒᆞᆫ 相이 華 다ᄒᆞ야 三十二를 ᄀᆞᄌᆞ나쎠 (5:12)

若 果實乙 見 當 願 衆生 最勝法乙 獲ᄋᆞ尒 菩提ㄴ 道乙 證ᄂᆞᄒᆞ立 (5:13)
ᄒᆞ다갓 果實을 見 當 願 衆生 最勝法을 어더곰 菩提ㅅ 道를 證ᄒᆞ나쎠 (5:13)

若 大河乙 見 當 願 衆生 得ᄋᆞ尒 法流ᄋᆞ十 預ᄂᆞᄋᆞㅅ 佛智海ᄋᆞ十 入ᄂᆞᄒᆞ立 (5:14)
ᄒᆞ다갓 大河를 見 當 願 衆生 시러곰 法流아기 預ᄒᆞ야 佛智海아기 入ᄒᆞ나쎠 (5:14)

若 陂澤乙 見 當 願 衆生 疾ㅣ 諸ㄱ 佛矢 一味之ㄴ 法乙 悟ᄂᆞᄒᆞ立 (5:15)
ᄒᆞ다갓 陂澤올 見 當 願 衆生 疾이 모ᄃᆞᆫ 부텨 一味ㅅ 法을 悟ᄒᆞ나쎠 (5:15)

若 池沼乙 見 當 願 衆生 語業 滿足ᄂᆞᄋᆞ尒 巧ㅣ 能ᄒᆞᆫ 演說ᄂᆞᄒᆞ立 (5:16)
ᄒᆞ다갓 池沼를 見 當 願 衆生 語業 滿足ᄒᆞ야곰 이디? 잘 演說ᄒᆞ나쎠 (5:16)

若 汲井ᄂᆞᄐᆞᄀᆞ乙 見 當 願 衆生 辯才乙 具足ᄂᆞᄋᆞㅅ 一切法乙 演ᄂᆞᄒᆞ立 (5:17)

ᄒᆞ다ᅀᅡ 汲井ᄒᆞᄂᆞᆫᄋᆞᆯ 見 當 願 衆生 辯才ᄅᆞᆯ 具足ᄒᆞ야 一切法을 演ᄒᆞ나ᅀᅥ (5:17)

若 涌泉乙 見 當 願 衆生 方便 增長ᄉᆞᆸ尓 善根 盡尸 無ᄒᆞᆫ立 (5:18)
ᄒᆞ다ᅀᅡ 涌泉을 見 當 願 衆生 方便 增長ᄒᆞ야곰 善根 다ᄋᆞᆷ 없나ᅀᅥ (5:18)

若 橋道乙 見 當 願 衆生 廣ㄲ 一切乙 度ㄲᄀᆞ尸ㅁ 猶のㄱ 橋梁、如ᄒᆞᆫ立 (5:19)
ᄒᆞ다ᅀᅡ 橋道ᄅᆞᆯ 見 當 願 衆生 너비 一切를 건네ᄋᆞᆷ더 가ᄀᆞᆯ비ᄃᆞᆫ 橋梁 다ᄒᆞ나ᅀᅥ (5:19)

若 流水乙 見 當 願 衆生 善意欲乙 得ᄉᆞ尓 惑垢乙 洗除ᄉᆞᆫ立 (5:20)
ᄒᆞ다ᅀᅡ 流水를 見 當 願 衆生 善意欲을 어더곰 惑垢를 洗除ᄒᆞ나ᅀᅥ (5:20)

園圃乙 修ㅏᄀᆞㄱのㄹ 見 當 願 衆生 五欲圃ㄴ 中ᄉᆞ十 愛草乙 耘除ᄉᆞᆫ立 (5:21)
園圃ᄅᆞᆯ 닷ᄂᆞᆫ ᄃᆞᆯ 見 當 願 衆生 五欲圃ㅅ 中아기 愛草ᄅᆞᆯ 耘除ᄒᆞ나ᅀᅥ (5:21)

無憂林乙 見 當 願 衆生 永ㅊ 貪愛乙 離ᄎᆞㅁㅂ 憂怖乙 生ㄲ尸 不ᄉᆞᆫ立 (5:22)
無憂林을 見 當 願 衆生 길긔? 貪愛ᄅᆞᆯ 여희곡 憂怖ᄅᆞᆯ 낼 안ᄃᆞᆯᄒᆞ나ᅀᅥ (5:22)

若 園苑乙 見 當 願 衆生 勤ㄴ 諸ㄱ 行乙 修ᄉᆞ尓 佛菩提ᄉᆞ十 趣ᄉᆞᆫ立 (5:23)
ᄒᆞ다ᅀᅡ 園苑을 見 當 願 衆生 붓 모ᄃᆞᆫ 行을 닷가곰 佛菩提아기 趣ᄒᆞ나ᅀᅥ (5:23)

嚴飾ᄉᆞᆫㄴ 人乙 見 當 願 衆生 三十二相乙 以ᄉᆞ尓 嚴好、爲ᄉᆞᆫ立 (5:24)
嚴飾ᄒᆞ낫 人을 見 當 願 衆生 三十二相을 뼈곰 嚴好 삼나ᅀᅥ (5:24)

嚴飾、無ㄴㄱ乙 見 當 願 衆生 諸ㄱ 飾好乙 捨ᄉᆞㅁㅂ 頭陀ㄴ 行乙 具ㄱᄀᆞᆫ

ᄉᆞᆸ (6:1)
嚴飾 업슨을 見 當 願 衆生 모ᄃᆞᆫ 飾好ᄅᆞᆯ 捨ᄒᆞ곡 頭陀ㅅ 行ᄋᆞᆯ ᄀᆞᄎᆞ나쎠 (6:1)

樂著ᄂᆞᆫᄃᆡ 人ㄱᆞ 見 當 願 衆生 法ㄱᆞ 以ᄒᆞ야 自ᄒᆞᆫㄱᆞ 娛ᄅᆡᄆᆞᄆᆞᆷ 歡愛ᄂᆞᄒᆞ야 捨ᄆᆞ 不ᄂᆞᆫᄃᆡᄉᆞᆸ (6:2)
樂著ᄒᆞ낫 사ᄅᆞᄆᆞᆯ 見 當 願 衆生 法을 ᄇᆡ곰 저를? 즐기옳ᄃᆡ 歡愛ᄒᆞ야곰 ᄇᆞ릷 안ᄃᆞᆯᄒᆞ나쎠 (6:2)

樂著ㆍ 無ㄱᆞ ㄹᆞ 見 當 願 衆生 有爲事ㄷᆡ 中ᄒᆞ ᄂᆞᆺ 心ᄒᆞ ᄂᆞᆺ 樂ᄆᆞᄂᆞᆫᄆᆞ 所ᄒᆞ 無ᄇᆞᄉᆞᆸ (6:3)
樂著 업슨을 見 當 願 衆生 有爲事ㅅ 中아기 ᄆᆞᅀᆞ마기 됴ᄒᆞᆷ 바 없나쎠 (6:3)

歡樂人ㄱᆞ 見 當 願 衆生 常ᄅᆡ 安樂ㄱᆞ 得ᄒᆞ야 樂ᄆᆞ 佛ㄱᆞ 供養ᄂᆞᆫᄃᆡᄉᆞᆸ (6:4)
歡樂人을 見 當 願 衆生 샹녜 安樂ᄋᆞᆯ 어더곰 됴호 佛을 供養ᄒᆞ나쎠 (6:4)

苦惱人ㄱᆞ 見 當 願 衆生 根本智ㄱᆞ 獲ᄒᆞ야 衆ㄱᆞ 苦ㄱᆞ 滅除ᄂᆞᆫᄃᆡᄉᆞᆸ (6:5)
苦惱人을 見 當 願 衆生 根本智를 어더곰 한 苦ᄅᆞᆯ 滅除ᄒᆞ나쎠 (6:5)

無病人ㄱᆞ 見 當 願 衆生 眞實慧ᄒᆞ ᄂᆞᆺ 入ᄂᆞᄒᆞ야 永ᄃᆞ 病惱ㆍ 無ᄇᆞᄉᆞᆸ (6:6)
無病人을 見 當 願 衆生 眞實慧아기 入ᄒᆞ야곰 길긔? 病惱 없나쎠 (6:6)

疾病人ㄱᆞ 見 當 願 衆生 身ᄒᆞᆫ 空寂ᄂᆞᆺㄱᆞ ᄋᆞㄱᆞ 知ᄒᆞ야 乖諍ㄷᆡ 法ㄱᆞ 離ᄒᆞᄇᆞᄉᆞᆸ (6:7)
疾病人을 見 當 願 衆生 모ᄆᆡ 空寂혼 ᄃᆞᆯ 아라곰 乖諍ㅅ 法을 여희나쎠 (6:7)

端正人ㄱᆞ 見 當 願 衆生 於佛ᄅᆡ 菩薩ᄆᆞᆺ 常ᄅᆡ 淨信ㄱᆞ 生ᄂᆞᆫᄃᆡᄉᆞᆸ (6:8)
端正人을 見 當 願 衆生 佛 菩薩ᄭᅴ 샹녜 淨信을 生ᄒᆞ나쎠 (6:8)

醜陋人ㄱᆞ 見 當 願 衆生 於不善ᄂᆞᆫᄃᆡᄃᆞ 事ᄒᆞ ᄂᆞᆺ 樂著ㄱᆞ 生ᄅᆡᄆᆞ 不ᄂᆞᆫᄃᆡᄉᆞᆸ (6:9)
醜陋人을 見 當 願 衆生 不善ᄒᆞ낫 事아기 樂著ᄋᆞᆯ 낼 안ᄃᆞᆯᄒᆞ나쎠 (6:9)

報恩人乙 見 當 願 衆生 於佛ㅣ 菩薩尸十 能支 恩德乙 知ㅌ立 (6:10)
報恩人을 見 當 願 衆生 佛 菩薩의 잘 恩德을 알나써 (6:10)

背恩人乙 見 當 願 衆生 惡ㄱ のㄹ 於有斗ㅌㅌ 人ㄹ十 其報ノ尸のㄹ 加尸 不ㅅㅌ立 (6:11)
背恩人을 見 當 願 衆生 머즌 ᄃᆞᆯ 두닛 사ᄅᆞ미기 其報ᄒᆞᆫ ᄃᆞᆯ 더읊 안ᄃᆞᆯᄒᆞ나써 (6:11)

若 沙門乙 見 當 願 衆生 調柔ㅅㅋ 寂淨ㅅㅋㅅㅋ尒 畢竟 第一ㅣㅌ立 (6:12)
ᄒᆞ다갓 沙門을 見 當 願 衆生 調柔ᄒᆞ져 寂淨ᄒᆞ져 ᄒᆞ야곰 畢竟 第一이나써 (6:12)

婆羅門乙 見 當 願 衆生 永ㅗ 梵行乙 持ㅅㅋ尒 一切 惡乙 離支ㅌ立 (6:13)
婆羅門을 見 當 願 衆生 길긔? 梵行ᄋᆞᆯ 持ᄒᆞ야곰 一切 惡ᄋᆞᆯ 여희나써 (6:13)

苦行人乙 見 當 願 衆生 於苦行乙 依ㅋ尒 究竟 處ㅋ十 至ㅌ立 (6:14)
苦行人을 見 當 願 衆生 苦行ᄋᆞᆯ 브터곰 究竟 處아기 니를나써 (6:14)

操行人乙 見 當 願 衆生 志行乙 堅持ㅅㅋ尒 佛道乙 捨尸 不ㅅㅌ立 (6:15)
操行人을 見 當 願 衆生 志行ᄋᆞᆯ 堅持ᄒᆞ야곰 佛道ᄅᆞᆯ ᄇᆞ릷 안ᄃᆞᆯᄒᆞ나써 (6:15)

甲冑乙 著ㅅㄱㄹ 見 當 願 衆生 常ㅣ 善鎧乙 服ㅅㅋ尒 無師ㅌ 法ㅋ十 趣ㅅㅌ立 (6:16)
甲冑를 著ᄒᆞᆫᄋᆞᆯ 見 當 願 衆生 샹녜 善鎧ᄅᆞᆯ 服ᄒᆞ야곰 無師ㅅ 法아기 趣ᄒᆞ나써 (6:16)

鎧仗ㆍ無ㄱㄹ 見 當 願 衆生 永ㅗ 一切 不善ㅌ 之業乙 離ㅌ立 (6:17)
鎧仗 업슨을 見 當 願 衆生 길긔? 一切 不善ㅅ 業을 여희나써 (6:17)

論議人乙 見 當 願 衆生 於諸ㄱ 異論ㅋ十 悉ㅋ 能支 摧伏ㅅㅌ立 (6:18)

論議人을 見 當 願 衆生 모ᄃᆞᆫ 異論아기 다 잘 摧伏ᄒᆞ나ᄲᅥ (6:18)

正命人乙 見 當 願 衆生 淸淨命乙 得ᄋᆞ尒 威儀ᄋᆞ十 矯逸尸 不ㅅᄒᆞ立 (6:19)
正命人을 見 當 願 衆生 淸淨命을 어더곰 威儀아기 지읋 안ᄃᆞᆯᄒᆞ나ᄲᅥ (6:19)

若 於王乙 見 當 願 衆生 得ᄋᆞ尒 法王ㅣ尸 爲の乙ㅅᄋᆞㅅ 正法乙 恒轉ㅅᄒᆞ立 (6:20)
ᄒᆞ다갓 王ᄋᆞᆯ 見 當 願 衆生 시러곰 法王읾 ᄃᆞᆯ ᄒᆞ약 正法을 恒轉ᄒᆞ나ᄲᅥ (6:20)

若 王子乙 見 當 願 衆生 法乙 從ヒ 化生ㅅᄋᆞㅅ 而ᄆᆞ 佛子ㅣ尸 爲の乙ㅅᄒᆞ立 (6:21)
ᄒᆞ다갓 王子ᄅᆞᆯ 見 當 願 衆生 法을 좃 化生ᄒᆞ약 佛子읾 ᄃᆞᆯ ᄒᆞ나ᄲᅥ (6:21)

若 長者乙 見 當 願 衆生 善能亏 明斷ㅅᄋᆞ尒 惡法乙 行尸 不ㅅᄒᆞ立 (6:22)
ᄒᆞ다갓 長者ᄅᆞᆯ 見 當 願 衆生 善能히 明斷ᄒᆞ야곰 惡法을 ᄒᆞᆷ 안ᄃᆞᆯᄒᆞ나ᄲᅥ (6:22)

若 大臣乙 見 當 願 衆生 恒ㅣ 正念乙 守ㅅᄋᆞ尒 衆 善乙 習行ㅅᄒᆞ立 (6:23)
ᄒᆞ다갓 大臣을 見 當 願 衆生 기리? 正念을 守ᄒᆞ야곰 ᄒᆞᆫ 善을 習行ᄒᆞ나ᄲᅥ (6:23)

若 城郭乙 見 當 願 衆生 堅固 身乙 得ᄋᆞ尒 心ᄋᆞ十 屈ㅅ尸 所 無ㅂ立 (6:24)
ᄒᆞ다갓 城郭ᄋᆞᆯ 見 當 願 衆生 堅固 모ᄆᆞᆯ 어더곰 ᄆᆞᅀᆞ마기 屈ᄒᆞᆷ 바 없나ᄲᅥ (6:24)

若 王都乙 見 當 願 衆生 功德 共聚ㅅᄋᆞㅅ 心ᄉᆞ 恒ㅣ 喜樂ㅅᄒᆞ立 (7:1)
ᄒᆞ다갓 王都ᄅᆞᆯ 見 當 願 衆生 功德 共聚ᄒᆞ약 ᄆᆞᅀᆞᆷ 기리? 喜樂ᄒᆞ나ᄲᅥ (7:1)

林捻ᄋᆞ十 處ㅅㄱᆞ乙 見 當 願 衆生 天人ㅋ 歎仰ㅅ尸 之所ㅣ尸 爲の乙ㅅᄉᆞ 應ヒㅅᄒᆞ立 (7:2)

林樾아기 處ᄒᆞ올 見 當 願 衆生 天人의 歎仰홇 바읽 ᄃᆞᆯ ᄒᆞᆷ 맛ᄒᆞ나쎠 (7:2)

里ᄀᆞ十 入ㅅᄀᆞ尒 乞食ㅅᄀᆞᆫ ㅣ十ㄱ 當 願 衆生 深 法界ᄀᆞ十 入ㅅ尸ㅁ 心ㅎ 障碍尸 無ㅌᆞ立 (7:3)
里아기 入ᄒᆞ야곰 乞食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기피 法界아기 入홇ᄃᆡ ᄆᆞᅀᆞᆷ 障碍ㅎ 없나쎠 (7:3)

人ㅋ 門戶ᄀᆞ十 到ᄀᆞᆫ ㅣ十ㄱ 當 願 衆生 於一切 佛法ㅌ 之門ᄀᆞ十 入ㅅㅌᆞ立 (7:4)
ᄂᆞ미 門戶아기 니를건다긴 當 願 衆生 一切 佛法ㅅ 門아기 入ᄒᆞ나쎠 (7:4)

其家ᄀᆞ十 入尸 已ᄒᆞㅅᄀᆞᆫ ㅣ十ㄱ 當 願 衆生 得ᄀᆞ尒 佛乘ᄀᆞ十 入ㅅᄀᆞㅅ 三世 平等ㅅㅌᆞ立 (7:5)
其家아기 ᄃᆞᆷ 이믜사 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시러곰 佛乘아기 入ᄒᆞ약 三世 平等ᄒᆞ나쎠 (7:5)

捨尸 不ㅅᄉᆞㅌ 人乙 見 當 願 衆生ㅐ? 常 勝功德ㅌ 法乙 捨離尸 不ㅅㅌᆞ立 (7:6)
ᄇᆞ릷 안ᄃᆞᆯᄒᆞ릿 사ᄅᆞᄆᆞᆯ 見 當 願 衆生 常 勝功德ㅅ 法을 ᄇᆞ리여홇 안ᄃᆞᆯᄒᆞ나쎠 (7:6)

能ᄎᆞ 捨ㅅᄉᆞㅌ 人乙 見 當 願 衆生 永ㅈㅏ 得ᄀᆞ尒 三惡道ㅌ 苦乙 捨離ㅅㅌᆞ立 (7:7)
잘 捨ᄒᆞ릿 사ᄅᆞᄆᆞᆯ 見 當 願 衆生 길긔? 시러곰 三惡道ㅅ 苦ᄅᆞᆯ 捨離ᄒᆞ나쎠 (7:7)

若 空鉢乙 見 當 願 衆生 其心 淸淨ㅅᄀᆞㅅ 空ᄀᆞ尒 煩惱ㆍ 無ㅌᆞ立 (7:8)
ᄒᆞ다갓 空鉢올 見 當 願 衆生 其心 淸淨ᄒᆞ약 뷔어곰 煩惱 없나쎠 (7:8)

若 滿鉢乙 見 當 願 衆生 具ㅏ 足ᄀᆞ 一切 善法乙 成滿ㅅㅌᆞ立 (7:9)

ᄒᆞ다갓 滿鉢올 見 當 願 衆生 ᄀᆞᄌᆞ며 ᄀᆞ자 一切 善法을 成滿ᄒᆞ나쎠 (7:9)

若 恭敬ノ尸の乙 得ᄒᆞᄀᆞ丨十ᄀᆞ 當 願 衆生 恭敬ノᄒᆞ尒 一切 佛法乙 修行ノヒ立 (7:10)
ᄒᆞ다갓 恭敬홇 ᄃᆞᆯ 어던다긴 當 願 衆生 恭敬ᄒᆞ야곰 一切 佛法을 修行ᄒᆞ나쎠 (7:10)

恭敬ノ尸の乙 得尸 不ノ土ᄀᆞ丨十ᄀᆞ 當 願 衆生 一切 不善ヒ 之法乙 行尸 不ノヒ立 (7:11)
恭敬홇 ᄃᆞᆯ 어듧 안ᄃᆞᆯ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一切 不善ㅅ 法을 홇 안ᄃᆞᆯᄒᆞ나쎠 (7:11)

慙恥ノ个ヒ 人乙 見 當 願 衆生 慙恥ヒ 行乙 具ᄀᆞᄒᆞ尒 諸ᄀᆞ 根乙 藏護ノヒ立 (7:12)
慙恥ᄒᆞ릿 사ᄅᆞᄆᆞᆯ 見 當 願 衆生 慙恥ㅅ 行올 ᄀᆞ초아곰 모ᄃᆞᆫ 根을 藏護ᄒᆞ나쎠 (7:12)

慙恥ノ尸 無ᄀᆞ乙 見 當 願 衆生 無慙ノ尸の乙 捨離ノロハ 大慈ヒ 道ᄒᆞ十 住ノヒ立 (7:13)
慙恥홇 업슨을 見 當 願 衆生 無慙홇 ᄃᆞᆯ 捨離ᄒᆞ곡 大慈ㅅ 道아기 住ᄒᆞ나쎠 (7:13)

若 美食乙 得ᄒᆞᄀᆞ丨十ᄀᆞ 當 願 衆生 其願乙 滿足ノᄒᆞ尒 心ᄒᆞ十 羨欲ノ尸 無ヒ立 (7:14)
ᄒᆞ다갓 美食을 어던다긴 當 願 衆生 其願을 滿足ᄒᆞ야곰 ᄆᆞᅀᆞ마기 羨欲홇 없나쎠 (7:14)

不美食乙 得 當 願 衆生 諸ᄀᆞ 三昧ヒ 味乙 獲得ノ尸 不ノ尸丁ノ尸 莫ヒヒ立 (7:15)
不美食을 得 當 願 衆生 모ᄃᆞᆫ 三昧ㅅ 마ᅀᆞᆯ 獲得홇 안ᄃᆞᆯ홇뎌 홇 없나쎠 (7:15)

柔軟食乙 得 當 願 衆生 大悲ᄆᆞᆷ 熏ノ丁 所ㅣ皿 心意 柔軟ンヒ立 (7:16)
柔軟食을 得 當 願 衆生 大悲로 熏혼 바이라 心意 柔軟ᄒᆞ나쎠 (7:16)

麤澁食乙 得 當 願 衆生 心ㅎ 染著ノ尸 無ミハ 世七 貪愛乙 絶ンヒ立 (7:17)
麤澁食을 得 當 願 衆生 ᄆᆞᅀᆞᆷ 染著홇 업석 누릿 貪愛ᄅᆞᆯ 絶ᄒᆞ나쎠 (7:17)

若七 飯食ンᄉᆞ七 時十丁 當 願 衆生 禪悅乙 食 爲ミ尓 法喜乙 充滿ンヒ立 (7:18)
ᄒᆞ다갓 飯食ᄒᆞ릿 ᄲᅴ 當 願 衆生 禪悅을 밥 사ᄆᆞ며 法喜를 充滿ᄒᆞ나쎠 (7:18)

若 味乙 受ム丁 時 當 願 衆生 佛矢 上味乙 得ミハ 甘露 滿足ンヒ立 (7:19)
ᄒᆞ다갓 마ᄉᆞᆯ 받건 ᄲᅴ 當 願 衆生 부텨 上味를 어덕 甘露 滿足ᄒᆞ나쎠 (7:19)

飯食乙 已ミ 訖ㅎロハ斤 當 願 衆生 所作乙 皆七 辨ンミ尓 諸丁 佛法乙 具ㅋヒ立 (7:20)
飯食을 이믜사 ᄆᆞᄎᆞᆷ곡ᄂᆞᆯ? 當 願 衆生 所作ᄋᆞᆯ 다ᄆᆞᆺ 辨ᄒᆞ야곰 모ᄃᆞᆫ 佛法을 ᄀᆞ초나쎠 (7:20)

若七 說法ンᄉᆞ七 時ミ十丁 當 願 衆生 無盡辯乙 得ミ尓 廣ㅣ 法要乙 宣ンヒ立 (7:21)
ᄒᆞ다갓 說法ᄒᆞ릿 ᄲᅳ여귄 當 願 衆生 無盡辯을 어더곰 너비 法要ᄅᆞᆯ 宣ᄒᆞ나쎠 (7:21)

舍乙 從七 出ンム丁 時 當 願 衆生 深ㅣ 佛智ミ十 入ンミハ 永ム 三界乙 出ンヒ立 (7:22)
집을 좃 出ᄒᆞ건 ᄲᅴ 當 願 衆生 기픠 佛智아기 入ᄒᆞ약 길긔? 三界를 出ᄒᆞ나쎠 (7:22)

若七 水ミ十 入ンム丁 時十丁 當 願 衆生 一切 智ミ十 入ンミ尓 三世尸 等ミノ丁のZ 知ヒ立 (7:23)

ᄒᆞ다갓 므라기 入ᄒᆞ건 ᄆᆞᆫ 當 願 衆生 一切 智아기 入ᄒᆞ야곰 三世ᄲᅴ 다ᄒᆞᆫ 돌 알나쎠 (7:23)

身體乙 洗浴ᄂᆞᆫᄃᆞᆨᄀᆞᆡᆫᄀᆞ 當 願 衆生 身心ᄋᆞᆫᆞ 垢ᆞ 無ᄋᆞᆷᄋᆞᆫ 內外光潔ᄂᆞᆫᄒᆞᆫᄃᆞᆸ (7:24)

身體를 洗浴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身心아기 垢 업석 內外光潔ᄒᆞ나쎠 (7:24)

盛暑ᄅᆡᄆᆞᆨ 炎毒ᄅᆡᄃᆞᆨᄀᆞᆡᆫᄀᆞ 當 願 衆生 衆ᄀᆡ 惱乙 捨離ᄂᆞᆫᄑᆞᆷ 一切乙 皆 盡ᄋᆞᆫᄒᆞᆸ (8:1)

盛暑이라 炎毒이건다긴 當 願 衆生 ᄒᆞᆫ 惱ᄅᆞᆯ 捨離홇ᄃᆡ 一切를 다ᄆᆞᆺ 다ᄋᆞ나쎠 (8:1)

暑退ᄂᆞᆫ 涼初ᄅᆡᄃᆞᆨᄀᆞᆡᆫᄀᆞ 當 願 衆生 無上法乙 證ᄂᆞᆫᄋᆞᆺ 究竟 淸涼ᄂᆞᆫᄒᆞᆸ (8:2)

暑退ᄒᆞ야 涼初이건다긴 當 願 衆生 無上法을 證ᄒᆞ야곰 究竟 淸涼ᄒᆞ나쎠 (8:2)

經乙 諷誦ᄂᆞᆫᄃᆞᆨ 時ᄒᆞᆨ 當 願 衆生 佛矣 說ᄉᆞᄆᆞᆨ 所ᄋᆞᆫᆞ 順ᄒᆞᆫᄂᆞᆫᄋᆞᆺ 揔持ᄂᆞᆫᄋᆞᆺ 忘ᄆᆞ 不ᄂᆞᆫᄒᆞᆸ (8:3)

經을 諷誦ᄒᆞ건 ᄆᆞᆫ 當 願 衆生 부텨 니ᄅᆞ시온 바아기 좃ᄒᆞ약 揔持ᄒᆞ야곰 니즗 안돌ᄒᆞ나쎠 (8:3)

若ᄒᆞᆫ 得ᄋᆞᆺ 佛乙 見白ᄋᆞᆫᄀᆞᆡᆫᄀᆞ 當 願 衆生 無碍眼乙 得ᄋᆞᆺ 一切 佛乙 見白ᄒᆞᆸ (8:4)

ᄒᆞ다갓 시러곰 佛을 보ᄉᆞᄫᆞᆸ다긴 當 願 衆生 無碍眼ᄋᆞᆯ 어더곰 一切 佛을 보ᄉᆞᆸ나쎠 (8:4)

諦ᄅᆡ 佛乙 觀ᄂᆞᆫ白ᄃᆞᆨᄀᆞ 時ᄒᆞᆨ 當 願 衆生 皆ᄒᆞᆫ 菩賢ᆞ 如ᄉᆞᆫᄂᆞᆫᄋᆞᆺ 端正嚴好ᄂᆞᆫᄒᆞᆸ (8:5)

ᄌᆞ셰히 佛을 觀ᄒᆞᄉᆞᆸ건 ᄆᆞᆫ 當 願 衆生 다ᄆᆞᆺ 菩賢 다ᄒᆞ야 端正嚴好ᄒᆞ나쎠

(8:5)

佛塔乙 見白去ㄱ 時 當 願 衆生 尊重ㅅㄱ矣 塔 如ᄒᆞᄉᆞᄆᆞᄒᆞ 天人ㅋ 供乙 受ㅌ立 (8:6)

佛塔을 보숩건 ᄆᆡᆫ 當 願 衆生 尊重ᄒᆞᆫ 디 塔 다ᄒᆞ야 天人의 供을 받나쎠 (8:6)

敬ㅅ仝ㄷ 心ᄆᆞᆷ 塔乙 觀ㅅ白去ㄱㅣ十ㄱ 當 願 衆生 諸ㄱ 天ᄉᆞ 及ㄷ 人ᄉᆞㅅ仝ㅋ 共ㄷ 瞻仰ㅅ尸 所ㅌ立 (8:7)

敬호릿 ᄆᆞᅀᆞᄆᆞ로 塔을 觀ᄒᆞ숩건다긴 當 願 衆生 모든 天여 밋 人여 호리의 다ᄆᆞᆺ 瞻仰홇 바나쎠 (8:7)

於塔乙 頂禮ㅅ白去ㄱㅣ十ㄱ 當 願 衆生 一切 天人ㅣ 能矣 頂乙 見ᄉᆞ仝 無ㅌ立 (8:8)

塔을 頂禮ᄒᆞ숩건다긴 當 願 衆生 一切 天人이 어디? 頂을 보아리 없나쎠 (8:8)

於塔乙 右遶ㅅ去ㄱㅣ十ㄱ 當 願 衆生 行ㅅㄱ 所ᄉᆞᄀᆞㅣ 逆尸 無ᄉᆞㅅ 一切 智乙 成ㅣㅌ立 (8:9)

塔을 右遶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行혼 바마다 거스릷 업석 一切 智를 이리나쎠 (8:9)

塔乙 遶ㅅ尸ㅁ 三帀乙ㅅ去ㄱㅣ十ㄱ 當 願 衆生 勤ㄷ 佛道乙 求ㅅ尸ㅁ 心ᄉᆞ十 懈歇尸 無ㅌ立 (8:10)

塔을 遶홇ᄃᆡ 三帀을 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븟 佛道를 求홇ᄃᆡ ᄆᆞᅀᆞᆷ아기 懈歇ㅎ 없나쎠 (8:10)

佛 功德乙 讚ㅅ白去ㄱㅣ十ㄱ 當 願 衆生 衆ㄱ 德乙 悉ᄉᆞ 具ㅎᄉᆞ尒 侀歎ㅅ刀 盡尸 無ㅌ立 (8:11)

佛 功德을 讚ᄒᆞ숩건다긴 當 願 衆生 한 德을 다 ᄀᆞᄎᆞ아곰 侀歎ᄒᆞ(야)도 다옳 없나쎠 (8:11)

佛矢 相好乙 讚ᄉᆞ白ᄉᆞᆫᄀᆡ ᅵᆨᄀ 當 願 衆生 佛身乙 成就ᄉᆞᄋᆞᄌᆞᆫ 無相ᄂ 法乙 證ᄉᆞᄒᆞᅀᆞᆫ (8:12)

부텨 相好ᄅᆞᆯ 讚ᄒᆞᄉᆞᆸ건다긴 當 願 衆生 佛身을 成就ᄒᆞ야곰 無相ㅅ 法을 證ᄒᆞ나쎠 (8:12)

若ᄂ 洗足ᄉᆞᄉᆞᆫᄀ 時ᅵᆨᄀ 當 願 衆生 神足ᄂ 力乙 具ᄀᆞᄋᆞᄌᆞᆫ 所行 碍ᄆ 無ᄒᆞᅀᆞᆫ (8:13)

ᄒᆞ다갓 洗足ᄒᆞ건 ᄇᆡᆫ 當 願 衆生 神足ㅅ 力을 ᄀᆞᄎᆞ아곰 所行 碍ᄆᆞ 없나쎠 (8:13)

時乙 以ᄋᆞ 寢息ᄉᆞᄉᆞᆫᄀᆡ ᅵᆨᄀ 當 願 衆生 身ᄋᆞᅵᆨ 安隱ᄉᆞᄀᆞのㄹ 得ᄌᆞ 心ᄋᆞᅵᆨ 動亂ᄆ 無ᄌᆞᄉᆞᄒᆞᅀᆞᆫ (8:14)

ᄲᅳ를 ᄡᅥ 寢息ᄒᆞ건다긴 當 願 衆生 모마기 安隱ᄒᆞᆫ ᄃᆞᆯ 얻져 ᄆᆞᄉᆞ마기 ᄆᆡᇙ 없져 ᄒᆞ나쎠 (8:14)

睡眠乙 始ᄂᆞᄀᆞ 寤ᄉᆞᄀᆞᆫᄀᆡ ᅵᆨᄀ 當 願 衆生 一切 智ᄆᆞ 覺ノᄆᆞᄆᆞᆷ 周ᄂ 十方乙 顧ᄉᆞᄒᆞᅀᆞᆫノᄒᆞナᅵ (8:15)

睡眠을 비르소 ᄭᆡ돋건다긴 當 願 衆生 一切 智로 覺홇ᄃᆡ 두릇 十方ᄋᆞᆯ 顧ᄒᆞ나쎠 호리겨다 (8:15)

佛子ᄋᆞ 若ᄂ 諸ᄀ 菩薩ㅣ 是ㅣ 如ᄎᆞ 用心ᄉᆞᄒᆞᄆᆞのᄀ 則ᄎᆞ 一切 勝妙功德乙 獲ᄋᆞᄒᆞ (8:16-17)

佛子아 ᄒᆞ다갓 모ᄃᆞᆫ 菩薩이 이 다 用心ᄒᆞ낧 ᄃᆞᆫ 一切 勝妙功德을 어더곰 (8:16-17)

一切 世間ᄋᆞᄂᆞ 諸ᄀ 天ᄉᆞ 魔ᄉᆞ 梵ᄉᆞ 沙門ᄉᆞ 婆羅門ᄉᆞ 乾闥婆ᄉᆞ 阿修羅ᄉᆞᄉᆞᄆᆞ 等ᅵᄉᆞᄀᆞㅣᄉᆞ 及ᄂ 以ᄋᆞ 一切聲聞ᄉᆞ 緣覺ᄉᆞノᄉᆞᄀᆞ 動ᄆ 不能ㅣᄆᆞㅣㅣᄆᆞ(ㅣᄆᆞノᄆᆞ?) 所ㅣᄉᆞナᄀᆞᄂᆞᅵ (8:17-18)

一切 世間앳 모ᄃᆞᆫ 天여 魔여 梵여 沙門여 婆羅門여 乾闥婆여 阿修羅여 홇다ᄒᆞᆫ이여 밋 ᄡᅥ 一切聲聞여 緣覺여 호리의 ᄆᆡᇙ 아니디잃(이디홇?) 바이거겸짜

(8:17-18)

大方廣佛華嚴經賢首品第十二之一

爾時十 文殊師利菩薩ㄱ 無濁亂淸淨行ㄷ 大功德乙 說尸 已ᄒᆞᄉᆞㄴㅇㅁ 菩提心ㄷ 功德乙 顯示ᄉᆞ 欲ㅅᄉᆞㄴㄷ尸のᄆ 故ᄎᆞ 偈乙 以ᄒᆞ 賢首菩薩尸十 問ᄒᆞ 曰ㄴ尸 (8:20-22)

그ᄢᅴ 文殊師利菩薩ᄋᆞᆫ 無濁亂淸淨行ㅅ 大功德을 니ᄅᆞᆯ 이ᄆᆡ사 ᄒᆞ고 菩提心ㅅ 功德을 顯示ᄒᆞ과 ᄒᆞ싫 ᄃᆞ로 偈를 ᄡᅥ 賢首菩薩ᄭᅴ 무러 니ᄅᆞ싫 (8:20-22)

我ㄱ 今ᄉᆞㄱ 已[ᄒᆞ] 諸ㄱ 菩薩尸 爲ᄒᆞ 佛矢 往ᄒᆞ十 修ㅎㅁㄱㅌㄷ 淸淨行乙 說ᄒᆞㅁㄹㅁㄱㅣㅠ (8:23)

나ᄂᆞᆫ 엳ᄒᆞᆫ사 모ᄃᆞᆫ 菩薩ᄭᅥ 삼 부텨 往아기 닷ᄀᆞ시온낫 淸淨行ᄋᆞᆯ 니ᄅᆞ골온이라 (8:23)

仁ㄲ 亦ᄉᆞㄱ 當ㅅ 於此ㅣ 會ㄷ 中ᄒᆞㄷᄉᆞㄴᄒᆞㅅ 修行ᄉᆞㅎㅁㄱㅌㄷ 勝功德乙 演暢ᄉᆞㅁㅎㅂ立 (8:24)

仁도 ᄯᅩᄒᆞᆫ 반ᄃᆞ기 이 會ㅅ 中앳 ᄒᆞ약 修行ᄒᆞ시온낫 勝功德을 演暢ᄒᆞ곡시셔 (8:24)

爾ᄉᆞㄱ 時十 賢首菩薩ㄱ 偈乙 以ᄒᆞ 答ᄉᆞᄒᆞ 曰ㅎ尸 (9:1)

긋ᄒᆞᆫ ᄢᅴ 賢首菩薩ᄋᆞᆫ 偈를 ᄡᅥ 答ᄒᆞ야 니ᄅᆞ싫 (9:1)

善ㅎㅁㅁㄱ 哉ㅔ 仁者ᄉᆞ 諦ㅣ 聽ㅎㅁㅁㅜ 應ㄷᄉᆞㄴㅏㅣ (9:2)

이ᄃᆞ시곤뎌 仁者여 ᄌᆞ세히 드르시옴 맛ᄒᆞ겨다 (9:2)

彼 諸ㄱ 功德ㄱ 量ᄒᆞㅁㅜ 可ㄷᄉᆞㄴㄱ 不矢ㄱ乙 我ㄱ 今ᄉᆞㄱ 力乙 隨ㅁ 少分ㅇ ᄉᆞ乙 說ㅁㅁㅁㅁ 猶のㄱ 大海ᄒᆞㄷ 一ㄱ 滴ㅜㄷ 水ㆍ 如ᄎᆞᄉᆞㄱ乙ᄉᆞㅁㄹ乙ㅁㅜㄷㅣ (9:2-3)

뎌 모ᄃᆞᆫ 功德은 혜아옴? 짓ᄒᆞᆫ 아니딘을 나ᄂᆞᆫ 엳ᄒᆞᆫ 力을 조초 少分마리ᄅᆞᆯ 닐

옳뎌 가줄비든 大海앳 ᄒᆞᆫ 줌ㅅ? 믈 다ᄒᆞᆫ올 ᄒᆞ골옳다 (9:2-3)

若ᄂᆡ 有ᄂᆞᆫᆡ 菩薩ᄭᅴ 初ᄇᆞᅀᅥ 發心ᄒᆞᆸ 誓ᄭᅴᄉᆞᆼ 求ᄒᆞᆸ尒 當ᄉᆞᆫ 佛 菩提乙 證ᄒᆞᆸᄂᆡᄋᆞᆫᄀᆞᆺᄉᆞ (9:4)

ᄒᆞ다갓 잇겨다 菩薩이 비르소 發心ᄒᆞ야 다디며 求ᄒᆞ야곰 반ᄃᆞ기 佛 菩提를 證ᄒᆞᆯ뎌 ᄒᆞ겨리여 (9:4)

彼ᄀᆞ 之功德ᄀᆡ 邊際ㆍ 無ᄆᆞᄂᆞᆫᄀᆡ 稱量ᄒᆞᆸᄆᆞᄆᆞᅀᅥᄉᆞ 可ᄂᆞᆫᄀᆡ 不ᄉᆞᆼ尒 與ᄂᆞᆫᄒᆞᆸ尒 等ᄒᆞᆸᄒᆞᆸᄉᆞ 無ᄂᆞᆫᄂᆞᆫᆡ (9:5)

뎌의 功德은 邊際 없고젼 稱量ᄒᆞ야옴 짓ᄒᆞᆫ 아니디며 다ᄆᆞᆺᄒᆞ야곰 다ᄒᆞ아리 없겨다 (9:5)

何ᄂᆞᆫᄉᆞ 況ᄉᆞᆼ 量 無ᄉᆞᆼ 邊ᄑᆞ 劫ᄒᆞᆸᄉᆞ 無[?] 具ᄆᆞ 地度乙 修ᄂᆞᆫᄇᆞᄂᆞᆫ 諸ᄀᆞ 功德ᄭᅴ ᄆᆞᄇᆞᄀᆞᄉᆡ (9:6)

엇여 ᄒᆞ물며 그지 업스며 ᄀᆞᆺ 劫아기 無[?] ᄆᆞ초 地度를 닷낫 모ᄃᆞᆫ 功德이고 난뎌 (9:6)

十方ᄂᆞᆫ 一切 諸ᄀᆞ 如來ᄭᅴ 悉ᄒᆞᆸ 共ᄂᆞᆫ 俯揚ᄒᆞᆫᄀᆞᄀᆞᆫ 能 盡ᄒᆞᆸᄑᆞ 不ᄭᅴᄉᆞᆼᄀᆞᆫᄆᆞᄀᆞᆫᄂᆞᆫᆡ (9:7)

十方ㅅ 一切 모ᄃᆞᆫ 如來이 다 다ᄆᆞᆺ 俯揚ᄒᆞ시나 能 다옳 아니디 ᄒᆞ시골옳다 (9:7)

是ᄭᅴ 如ᄉᆞ(女'?) 邊ᄑᆞ 無ᄀᆞ 大功德乙 我ᄀᆞ 今ᄉᆞᆼᄀᆞ 於中ᄒᆞᆸᄉᆞᆫᄉᆞᆼᄒᆞᆸㅅ 少分ᄋᆞᆫᄀᆞᆷ乙 說ᄆᆞᄑᆞᄆᆞᆷ (9:8)

이 다 ᄀᆞᆺ 업슨 大功德을 나ᄂᆞᆫ 엳ᄒᆞᆫ 中아기 ᄒᆞ약 少分마리ᄅᆞᆯ 닐옳뎌 (9:8)

譬のᄀᆞ 鳥足ᄭᅮ 履ᄆᆞᄀᆞ 所ᄂᆞᆫ 空ㆍ 如ᄉᆞᆫᄉᆞᆼᄀᆞ 乙ᄉᆞᆼᄆᆞ 亦ᄉᆞᆼᄀᆞ 大地ᄒᆞᆸᄂᆞᆫ ᄀᆞ 微塵ㆍ 如ᄉᆞᆫᄉᆞᆼᄀᆞ 乙ᄉᆞᆼᄆᆞ乙ᄆᆞᄆᆞᄂᆞᆫᆡ (9: 9)

가줄비든 鳥足으로 ᄇᆞᆯ본 밧 空 다ᄒᆞᆫ올 ᄒᆞ며 ᄯᅩᄒᆞᆫ 大地앳 ᄒᆞᆫ 微塵 다ᄒᆞᆫ올 ᄒᆞ골옳다 (9: 9)

菩薩ㅣ 發意ᄒᆞᆫ 菩提ㄹ 求ᄒᆞᄂᆞᆫᄃᆞᆫ 是ㅣ 因 無ㅣᄂᆞᆫᄀᆞ 有緣、無ㅣᄂᆞᆫᄇᆞ、非ㅣ矣 於佛法僧ᄋᆞᆫ 淨信ㄹ 生ㅣᄒᆞᆫ 是ㄹ 以ᄋᆞᆫ 而ᄆᆞᆫ 廣大心ㄹ 生ㅣᄂᆞᆫᄀᆞ ㅣ (9:10-11)

菩薩이 發意ᄒᆞ야 菩提를 求ᄒᆞ논 ᄃᆞᆫ 이 因 업시 ᄒᆞ며 有緣 업시 ᄒᆞ나 아니디 佛法僧아긔 淨信을 내아 이를 뼈 廣大心을 내견이다 (9:10-11)

五欲ᄋᆞ 及ᄒᆞ 王位ᄋᆞ 富饒ᄋᆞ 自樂ᄋᆞ 大名稱ᄋᆞᄂᆞᆺᄀᆞᆯ 求ᄒᆞᄋᆞᆫᄀᆞᄇᆞᄀᆞ 不矣ㅣ 但ㅅ 永ᄃᆞᆫ 衆生ᄋᆞ 苦ㄹ 滅ᄒᆞᆫ 世間ㄹ 利益ᄒᆞᄋᆞᆫ、爲ㅅ 而ᄆᆞᆫ 發心ᄒᆞᄂᆞᆫᄀᆞ ㅣᆫ (9:12-13)

五欲여 밋 王位여 富饒여 自樂여 大名稱여 호리를 求ᄒᆞ야 ᄒᆞᆫ난 아니디비 오직 길긔? 衆生ᄋᆡ 苦를 다ᄋᆞ며? 世間올 利益ᄒᆞ며 ᄒᆞ과로 發心ᄒᆞ견이며 (9:12-13)

常ㅣ 諸ᄀᆞ 衆生ㄹ 利樂ᄒᆞᆫ 國土ㄹ 莊嚴ᄒᆞᆫ 佛ㄹ 供養ᄒᆞᄇᆡᆫ 正法ㄹ 受持ᄒᆞᄋᆞᆫ 諸ᄀᆞ 智ㄹ 修ᄒᆞᆫ 菩提ㄹ 證ᄒᆞᆫᄒᆞᄂᆞᆫ、欲ㅅᄂᆞᆫᄆᆞ 故ᄎᆞ 而ᄆᆞᆫ 發心ᄒᆞᄂᆞᆫᄀᆞ ㅣᆫ (9:14-15)

샹녜 모ᄃᆞᆫ 衆生올 利樂ᄒᆞ며 國土를 莊嚴ᄒᆞ며 佛을 供養ᄒᆞᄉᆞᄫᆞ며 正法을 受持ᄒᆞ야곰 모ᄃᆞᆫ 智를 닷ᄀᆞ며 菩提를 證ᄒᆞ며 ᄒᆞ과 홇 ᄃᆞ로 發心ᄒᆞ견이며 (9:14-15)

深心ㄷ 信解ㅣ 常ㅣ 淸淨ᄒᆞᆫ 一切佛ㄹ 恭敬尊重ᄒᆞᄒᆞᄆᆞᆫ 於法ᄋᆞ 及ᄒᆞ 僧ᄋᆞ ᄂᆞᆺᄀᆞᆯᄒᆞ 亦ᄀᆞᆫ 是ㅣ 如ᄎᆞᄂᆞᆫᄀᆞᆫᄋᆞᆫ 至誠ㄹᄆᆞ 供養ᄂᆞᆫᄃᆞᆺ 而ᄆᆞᆫ 發心ᄒᆞᄂᆞᆫᄀᆞ ㅣᆫ (9:16-17)

深心ㅅ 信解이 샹녜 淸淨ᄒᆞ며 一切佛을 恭敬尊重ᄒᆞ신 디며 法여 밋 僧여 호리의긔도 이 다ᄒᆞ며 ᄒᆞ야 至誠으로 供養ᄒᆞ더 發心ᄒᆞ견이며 (9:16-17)

於佛ᄋᆞ 及ᄒᆞ 佛法ᄋᆞᄂᆞᆺᄀᆞᆯ 深信ᄒᆞᆫᄀᆞ 亦ᄒᆞᆫᄀᆞ 佛子ㅋ 所行ㄷ 道ㄹ 信ᄒᆞᆫᄀᆞ 及ᄒᆞ 無上大菩提ㄹ 信ᄒᆞᆫᄀᆞᄂᆞᆫᄀᆞᆺᄆᆞ 菩薩ᄀᆞ 是ㄹ 以ᄋᆞᆫ 初ㄷㅋ 發心ᄒᆞᄂᆞᆫᄀᆞ ㅣᆫ (9:18-19)

佛여 밋 佛法여 호리를 深信ᄒᆞ며 ᄯᅩᄒᆞᆫ 佛子ᄋᆡ 所行ㅅ 道를 信ᄒᆞ며 밋 無上

大菩提를 信ᄒᆞ며 ᄒᆞ견 ᄃᆞ로 菩薩은 이를 ᄡᅥ 비르소 發心ᄒᆞ견이다 (9:18-19)

信ㄱ 道ᄀᆞᆺᄂᆡ 元矢ᄎᆞᄅᆡᄀᆞ 功德ᄂᆡ 母ㅣ尸 、 爲の乙ᄉᆞᄅᆞᄂᆞᆨㄱ 一切 諸ㄱ 善法乙 長養ᄉᆞᄒᆞ 疑網乙 斷除ᄉᆞᄀᆞᆺ 愛流乙 出ᄉᆞᄒᆞᄉᆞᄂᆞᆨᄒᆞᄆᆞ 喩般ᄉᆞ 無上道ᄉᆞᄂᆞᆺᄉᆞ乙 開ᄉᆞᄒᆞ 示ᄉᆞᄒᆞᄉᆞᄂᆞᆨᄒᆞᄀᆞ (9:20-21)

信은 道앳 미티며 功德ㅅ 어싧 ᄃᆞᆯ ᄒᆞ고견 一切 모ᄃᆞᆫ 善法을 長養ᄒᆞ져 疑網올 斷除ᄒᆞ야곰 愛流를 出ᄒᆞ져 ᄒᆞ겨리라 喩般여 無上道여 호리를 開ᄒᆞ져 示ᄒᆞ져 ᄒᆞ겨리며 (9:20-21)

信ㄱ 垢濁 、 無ᄀᆞᆺ尔 心ㅠ 淸淨ㅅᄂᆡᄂᆞᆨᄒᆞᄀᆞ 憍慢乙 滅除ᄉᆞᄅᆞ 恭敬ᄂᆞᆺᄉᆞᄂᆡ 本ㅣ尸の乙ᄉᆞᄂᆞᆨㄱ ㅣᄀᆞ 亦ᄉᆞㄱ 法藏ᄀᆞᆺᄂᆡ 第一財ㅣ尸 、 爲の乙ᄉᆞᄀᆞ 淸淨手ㅣ尸 爲の乙ᄉᆞᄀᆞᆺ尔 衆ㄱ 行乙 受ㅣᄂᆞᆨᄒᆞᄀᆞ (9:22-23)

信은 垢濁 업서곰 ᄆᆞᅀᆞᆷ 淸淨ᄒᆞ이겨리며 憍慢올 滅除ᄒᆞ고 恭敬호릿 미팋 ᄃᆞᆯ ᄒᆞ견이며 ᄯᅩᄒᆞᆫ 法藏앳 第一財잃 ᄃᆞᆯ ᄒᆞ며 淸淨手잃 ᄃᆞᆯ ᄒᆞ야곰 ᄒᆞᆫ 行올 받히겨리며 (9:22-23)

信ㄱ 能ᄒᆞᆫ 惠施ㄴᆞ尸ㅁ 心ㅠ 吝ㄴ尸 無ㅣᄉᆞᄂᆡᄂᆞᆨᄒᆞᄀᆞ 信ㄱ 能ᄒᆞᆫ 歡喜ᄉᆞᄀᆞᆺ尔 佛法ᄀᆞᆺ十 入ㅣᄂᆞᆨᄒᆞᄀᆞ (9:24)

信은 잘? 惠施홇ᄃᆡ ᄆᆞᅀᆞᆷ 吝홇 업시 ᄒᆞ이겨리며 信은 잘? 歡喜ᄒᆞ야곰 佛法아기 들이겨리며 (9:24)

信ㄱ 能ᄒᆞᆫ 智ㄷᆞ 功德乙 增長ᄉᆞᄂᆞᆨᄒᆞᄀᆞ 信ㄱ 能ᄒᆞᆫ 必ㅅ 如來ㄲ 地ᄀᆞᆺ十 到ㅣᄂᆞᆨᄒᆞᄀᆞ (10:1)

信은 能히? 智ㅅ 功德을 增長ᄒᆞ겨리며 信은 能히? 반ᄃᆞ기 如來ㅠ 地아기 니를이겨리며 (10:1)

信ㄱ 諸ㄱ 根 淨ᄉᆞᄀᆞᆺ尔 明利 令ㅣᄂᆞᆨᄒᆞᄀᆞ 信ㄱ 力 堅固ᄉᆞᄀᆞᆺ尔 能矢 壞ᄀᆞᆺ令 無ᄂᆞᄀᆞ ㅣᄀᆞ (10:2)

信은 모ᄃᆞᆫ 根 淨ᄒᆞ야곰 明利 ᄒᆞ이겨리며 信은 力 堅固ᄒᆞ야곰 어디? 믄허리 없견이며 (10:2)

信ㄱ 能ᄒᆞ 永ᄃᆞᆫ 煩惱乙 滅ᄒᆞᄉᆞᄫᆞ 本ㅣᄇᆞ의乙ᄉᆞᆫᄃᆞ ㅣᄀᆞᆫ 信ㄱ 能ᄒᆞ 專ᄒᆞ 佛功德ᄒᆞ 向ᄉᆞㅣᄂᆞᆫᄒᆞᆫ (10:3)

信은 能히? 길긔? 煩惱ᄅᆞᆯ 다ᄋᆞ릿? 미틺 ᄃᆞᆯ ᄒᆞ견이며 信은 能히? 오ᄋᆞ로 佛功德아기 向ᄒᆞ이겨리며 (10:3)

信ㄱ 於境界ᄒᆞ 所著ㅣᄇᆞ 無ㅣᄉᆞᆫᄂᆞᆫᄒᆞᆫ 諸ㄱ 難乙 遠離ᄉᆞ로ᄒᆞ 無難乙 得ㅣᄂᆞᆫᄒᆞᆫ (10:4)

信은 境界아기 所著잃 업시 ᄒᆞ겨리며 모ᄃᆞᆫ 難ᄋᆞᆯ 遠離ᄒᆞ곡 無難ᄋᆞᆯ 얻이겨리며 (10:4)

信ㄱ 能ᄒᆞ 衆ㄱ 魔ᄒᆞ 路乙 超出ᄉᆞㅣᄂᆞᆫᄒᆞᆫ 無上解脫ㅅ 道乙 示現ᄉᆞᆫᄂᆞᆫᄒᆞᆫ (10:5)

信은 能히? 한 魔ᄋᆡ 路ᄅᆞᆯ 超出ᄒᆞ이겨리며 無上解脫ㅅ 道ᄅᆞᆯ 示現ᄒᆞ겨리며 (10:5)

信ㄱ 功德ㅅ 不壞種ㅣᄇᆞ 、 爲ᄒᆞ의乙ᄉᆞᆫᄃᆞ ㅣᄀᆞᆫ 信ㄱ 能ᄒᆞ 菩提樹乙 生長ᄉᆞᆫᄂᆞᆫᄒᆞᆫ (10:6)

信은 功德ㅅ 不壞種잃 ᄃᆞᆯ ᄒᆞ견이며 信은 能히? 菩提樹ᄅᆞᆯ 生長ᄒᆞ겨리며 (10:6)

信ㄱ 能ᄒᆞ 最勝智乙 增益ᄉᆞᆫᄂᆞᆫᄒᆞᆫ 信ㄱ 能ᄒᆞ 一切 佛乙 示現ᄉᆞᆫᄃᆞᄒᆞᆫᄂᆡ (10:7)

信은 能히? 最勝智ᄅᆞᆯ 增益ᄒᆞ겨리며 信은 能히? 一切 佛ᄋᆞᆯ 示現ᄒᆞ겸ᄊᆞ (10:7)

是ㅣ 故ᄆᆞ 行乙 依 次第乙 說ᄃᆞᄒᆞᄒᆞᆫ 信樂ㅣᄒᆞ 最勝ᄉᆞᄒᆞᄋᆞᆯ 甚ㅣ 難ㅣᄒᆞ 得ᄃᆞᄂᆞᆫᄂᆞᆯ 譬의ㄱ 一切 世間ㅌ 中ᄒᆞᆫ 而ᄆᆞ 隨意妙寶珠ㅣ 有ㄱ 、 如ᄒᆞᄉᆞᆫᄀᆞᆫ ㅣᄂᆡ (10:8-9)

이 젼ᄎᆞ로 行ᄋᆞᆯ 블? 次第ᄅᆞᆯ 닐오리의긔 信樂이사 最勝ᄒᆞ야곰 몹시 어려비사 어도린 디 가줄비ᄃᆞᆫ 一切 世間ㅅ 中아기 隨意妙寶珠이 이신 다ᄒᆞᆫ이다 (10:8-9)

若ᄒᆞᆫ 常ᄋᆡ 於諸ᄀᆡ 佛ᄋᆞᆯ 信奉ᄒᆞ白ᄒᆞᆫᄃᆞᆫᄀᆞ 則ᄎᆞ 能ᄎᆞ 戒ᄋᆞᆯ 持ᄒᆞᄉᆞ 學處ᄋᆞᆯ 修ᄒᆞᄉᆞᄒᆞᆫᄃᆞᆫᄀᆞᆫ (10:10)

ᄒᆞ다갓 샹녜 모ᄃᆞᆫ 佛을 信奉ᄒᆞᄉᆞᆸ낧 ᄃᆞᆫ 잘? 戒를 持ᄒᆞ져 學處를 닷져 ᄒᆞ나리며 (10:10)

若ᄒᆞᆫ 常ᄋᆡ 戒ᄋᆞᆯ 持ᄒᆞᄉᆞ 學處ᄋᆞᆯ 修ᄒᆞᄉᆞᄒᆞᆫᄃᆞᆫᄀᆞ 則ᄎᆞ 能ᄎᆞ 諸ᄀᆡ 功德ᄋᆞᆯ 具足ᄒᆞᆫᄃᆞᆫᄀᆞᆫ (10:11)

ᄒᆞ다갓 샹녜 戒를 디니져 學處를 닷져 ᄒᆞ낧 ᄃᆞᆫ 잘? 모ᄃᆞᆫ 功德을 具足ᄒᆞ나리며 (10:11)

戒ᄀᆡ 能ᄎᆞ 菩提ᄋᆞᆯ 開發ᄒᆞᄉᆞᆫᄐᆞ 本ᄋᆡᄃᆞᆫᄋᆞᆯᄉᆞᆫᄀᆞ 學ᄀᆡ 是ᄀᆡ 功德ᄋᆞᆯ 勤修ᄒᆞᄉᆞᆫᄐᆞ 地ᄋᆡᄃᆞᆫᄋᆞᆯᄉᆞᆫᄂᆞᆫᄀᆞ ᄋᆡᄉᆞᆫ (10:12)

戒는 能히? 菩提를 開發호릿 미틤 ᄃᆞᆯ ᄒᆞ며 學온 이는 功德을 勤修호릿 ᄯᅡ힘 ᄃᆞᆯ ᄒᆞ며 ᄒᆞ견이며 (10:12)

於戒ᄉᆞ 及ᄐᆞ 學ᄉᆞᄂᆞᆫᄉᆞᆫᄅᆞᆫ 常 順行ᄒᆞᄉᆞᆫᄃᆞᆫᄋᆞ 一切 如來ᄃᆞᆫ 倆美ᄒᆞᄉᆞᄆᆞᄃᆞᆫ 所ᄋᆡᄉᆞᆫᄃᆞᆫᄉᆞᆫᄋᆞᆫ (10:13)

戒여 밋 學여 호리의긔 샹녜 順行ᄒᆞ낧 ᄃᆞᆯ 一切 如來ᄆᆞᆷ 倆美ᄒᆞ시옳 바이나리며 (10:13)

若ᄒᆞᆫ 常ᄋᆡ 於諸ᄀᆡ 佛ᄋᆞᆯ 信奉ᄒᆞ白ᄒᆞᆫᄃᆞᆫᄀᆞ 則ᄎᆞ 能ᄎᆞ 大供養ᄋᆞᆯ 興集ᄒᆞᆫᄃᆞᆫᄀᆞᆫ (10:14)

ᄒᆞ다갓 샹녜 모ᄃᆞᆫ 佛을 信奉ᄒᆞᄉᆞᆸ낧 ᄃᆞᆫ 잘? 大供養ᄋᆞᆯ 興集ᄒᆞ나리며 (10:14)

若ᄒᆞᆫ 能ᄎᆞ 大供養ᄋᆞᆯ 興集ᄒᆞᆫᄃᆞᆫᄀᆞ 彼人ᄀᆡ 佛矣 不思議ᄋᆡᄅᆞᄆᆞᄀᆞ의ᄋᆞᆯ 信ᄒᆞᆫᄃᆞᆫᄀᆞᆫ (10:15)

ᄒᆞ다갓 잘? 大供養ᄋᆞᆯ 興集ᄒᆞᆫ낧 ᄃᆞᆫ 彼人은 부텨 不思議이시온 ᄃᆞᆯ 信ᄒᆞ나리며 (10:15)

若ᄒᆞᆫ 常ᄋᆡ 於尊法ᄋᆞᆯ 信奉ᄒᆞᆫᄃᆞᆫᄀᆞ 則ᄎᆞ 佛法ᄋᆞᆯ 聞ᄆᆞᄃᆞᆷ 厭足ᄃᆞ 無ᄒᆞᆫᄃᆞᆫᄀᆞ

(10:16)
ᄒᆞ다갓 샹녜 尊法을 信奉ᄒᆞ낧 ᄃᆞᆫ 佛法을 드롫ᄃᆡ 슬ᄫᆡᆷ 없나리며 (10:16)

若ᄂᆞᆫ 佛法ᄋᆞᆯ 聞ᄀᆞᄆᆞᆫ 厭足ᄑᆞ 無ᄒᆞᄆᆞᄂᆞᆫ 彼人ᄂᆞᆫ 法ㅣ 不思議ㅣᄉᆞᄀᆞᄂᆞᆫ ᄋᆞᆯ 信ᄒᆞᄂᆞᆫ가 (10:17)
ᄒᆞ다갓 佛法을 드롫ᄃᆡ 슬ᄫᆡᆷ 없낧 ᄃᆞᆫ 彼人은 法이 不思議이시온 ᄃᆞᆯ 信ᄒᆞ나리며 (10:17)

若ᄂᆞᆫ 常ㅣ 淸淨僧ᄋᆞᆯ 信奉ᄒᆞᄂᆞᆫ ᄃᆞᆫ 則ᄎᆞ 得ᄀᆞᄒᆞ 信心ㅣ 退轉ᄑᆞ 不ᄒᆞᄂᆞᆫ가 (10:18)
ᄒᆞ다갓 샹녜 淸淨僧을 信奉ᄒᆞ낧 ᄃᆞᆫ 시러곰 信心이 믈리그읊 안ᄃᆞᆯᄒᆞ나리며 (10:18)

若ᄂᆞᆫ 得ᄀᆞᄒᆞ 信心ㅣ 退轉ᄑᆞ 不ᄒᆞᄂᆞᆫᄑᆞᄂᆞᆫ 彼人ᄂᆞᆫ 信力ㅣ 能ᄋᆞᆺ 動ᄒᆞᄀᆞᄉᆞ 無ᄒᆞᄂᆞᆫ가 (10:19)
ᄒᆞ다갓 시러곰 信心이 믈리그읊 안ᄃᆞᆯᄒᆞ낧 ᄃᆞᆫ 彼人은 信力이 어디? 動ᄒᆞ야리 없나리며 (10:19)

若ᄂᆞᆫ 得ᄀᆞᄒᆞ 信力ㅣ 能ᄋᆞᆺ 動ᄒᆞᄀᆞᄉᆞ 無ᄒᆞᄂᆞᆫᄑᆞᄂᆞᆫ 則ᄎᆞ 得ᄀᆞᄒᆞ 諸ᄀᆞ 根 淨ᄒᆞᄀᆞ 明利ᄒᆞᄂᆞᆫ가 (10:20)
ᄒᆞ다갓 시러곰 信力이 어디? 動ᄒᆞ야리 없낧 ᄃᆞᆫ 시러곰 모ᄃᆞᆫ 根 淨ᄒᆞ야 明利ᄒᆞ나리며 (10:20)

若ᄂᆞᆫ 得ᄀᆞᄒᆞ 諸ᄀᆞ 根 淨ᄒᆞᄀᆞ 明利ᄒᆞᄂᆞᆫᄑᆞᄂᆞᆫ 則 能 惡知識ᄋᆞᆯ 遠離ᄒᆞᄂᆞᆫ가 (10:21)
ᄒᆞ다갓 시러곰 모ᄃᆞᆫ 根 淨ᄒᆞ야 明利ᄒᆞ낧 ᄃᆞᆫ 能 惡知識을 遠離ᄒᆞ나리며 (10:21)

若ᄂᆞᆫ 能ᄀᆞᄒᆞ 惡知識ᄋᆞᆯ 遠離ᄒᆞᄂᆞᆫᄑᆞᄂᆞᆫ 則 得 善知識ᄋᆞᆯ 親近ᄒᆞᄂᆞᆫ가 (10:22)
ᄒᆞ다갓 시러곰? 惡知識을 遠離ᄒᆞ낧 ᄃᆞᆫ 得 善知識을 親近ᄒᆞ나리며 (10:22)

若ㄴ 得ᄃᆞ尓 善知識ㄹ 親近ᄉᆞᄒᆞ尸のㄱ 則 能 廣大善ㄹ 修集ᄉᆞᄒᆞ尹ᄀᆞ (10:23)
ᄒᆞ다ᄀᆞ 시러곰 善知識을 親近ᄒᆞ낧 ᄃᆞᆫ 能 廣大善을 修集ᄒᆞ나리며 (10:23)

若 能 廣大善ㄹ 修集ᄉᆞᄒᆞ尸のㄱ 彼人ㄱ 大因ㄴ 力ㄹ 成就ᄉᆞᄒᆞ尹ᄀᆞ (10:24)
ᄒᆞ다ᄀᆞ 能 廣大善을 修集ᄒᆞ낧 ᄃᆞᆫ 彼人은 大因ㅅ 力을 成就ᄒᆞ나리며 (10:24)

若ㄴ 人ㅣ 大因ㄴ 力ㄹ 成就ᄉᆞᄒᆞ尸のㄱ 則ᄎᆞ 殊勝決定解ㄹ 得ᄒᆞ尹ᄀᆞ (11:1)
ᄒᆞ다ᄀᆞ 사ᄅᆞ미 大因ㅅ 力을 成就ᄒᆞ낧 ᄃᆞᆫ 殊勝決定解ᄅᆞᆯ 얻나리며 (11:1)

若 殊勝決定解ㄹ 得ᄒᆞ尸のㄱ 則ᄎᆞ 諸ㄱ 佛矢 護念ᄉᆞᄒᆞᄆᆞ尸 所ㅣ尸ㆍ 爲のㄱ ᄉᆞᄒᆞ尹ᄀᆞ (11:2)
ᄒᆞ다ᄀᆞ 殊勝決定解ᄅᆞᆯ 얻낧 ᄃᆞᆫ 모ᄃᆞᆫ 부텨 護念ᄒᆞ시옳 바읻 ᄃᆞᆫ ᄒᆞ나리며 (11:2)

若 諸ㄱ 佛矢 護念ᄉᆞᄒᆞᄆᆞ尸 所ㅣ尸ㆍ 爲の乙ᄉᆞᄒᆞ尸のㄱ 則 能 菩提心ㄹ 發起ᄉᆞᄒᆞ尹ᄀᆞ (11:3)
ᄒᆞ다ᄀᆞ 모ᄃᆞᆫ 부텨 護念ᄒᆞ시옳 바읻 ᄃᆞᆯ ᄒᆞ낧 ᄃᆞᆫ 能 菩提心을 發起ᄒᆞ나리며 (11:3)

若 能 菩提心ㄹ 發起ᄉᆞᄒᆞ尸のㄱ 則 能 勤火ㄴ 佛 功德ㄹ 修ᄒᆞ尹ᄀᆞ (11:4)
ᄒᆞ다ᄀᆞ 能 菩提心을 發起ᄒᆞ낧 ᄃᆞᆫ 能 ᄇᆞᆺ 佛 功德을 닷나리며 (11:4)

若 能 勤火ㄴ 佛 功德ㄹ 修ᄉᆞᄒᆞ尸のㄱ 則 得ᄃᆞ尓 如來尸 家ᄃᆞ十 生在ᄉᆞᄒᆞ尹ᄀᆞ (11:5)
ᄒᆞ다ᄀᆞ 能 ᄇᆞᆺ 佛 功德을 修ᄒᆞ낧 ᄃᆞᆫ 시러곰 如來ᄭᅴ 家아기 生在ᄒᆞ나리며 (11:5)

若 得ᄃᆞ尓 如來家ᄃᆞ十 生在ᄉᆞᄒᆞ尸のㄱ 則 善ᄎᆞ 巧方便ㄹ 修行ᄉᆞᄒᆞ尹ᄀᆞ (11:6)
ᄒᆞ다ᄀᆞ 시러곰 如來家아기 生在ᄒᆞ낧 ᄃᆞᆫ 이대 巧方便을 修行ᄒᆞ나리며 (11:6)

若 善ᄉᆞ 巧方便乙 修行ᄒᆞᄆᆞᆫᄃᆞᆫ 則 信樂乙 得ᄒᆞ尒 心ᄉᆞᆷ 淸淨ᄒᆞᄆᆞᆫᄃᆞᆫ (11:7)

ᄒᆞ다갓 이대 巧方便을 修行ᄒᆞ낧 ᄃᆞᆫ 信樂ᄋᆞᆯ 어더곰 ᄆᆞᅀᆞᆷ 淸淨ᄒᆞ나리며 (11:7)

若 信樂乙 得ᄒᆞ尒 心ᄉᆞᆷ 淸淨ᄒᆞᄆᆞᆫᄃᆞᆫ 則 增上人 最勝心人(ㅅ)ᄉᆞᆷ乙 得ᄒᆞᄆᆞᆫᄃᆞᆫ (11:8)

ᄒᆞ다갓 信樂ᄋᆞᆯ 어더곰 ᄆᆞᅀᆞᆷ 淸淨ᄒᆞ낧 ᄃᆞᆫ 增上과 最勝心과 (호)리ᄅᆞᆯ 얻나리며 (11:8)

若 增上人 最勝心人(ㅅ)ᄉᆞᆷ乙 得ᄒᆞᄆᆞᆫᄃᆞᆫ 則 常ㅣ 波羅蜜乙 修習ᄒᆞᄆᆞᆫᄃᆞᆫ (11:9)

ᄒᆞ다갓 增上과 最勝心과 (호)리ᄅᆞᆯ 얻낧 ᄃᆞᆫ 샹녜 波羅蜜을 修習ᄒᆞ나리며 (11:9)

若 常ㅣ 波羅蜜乙 修習ᄒᆞᄆᆞᆫᄃᆞᆫ 則 能 摩訶衍乙 具足ᄒᆞᄆᆞᆫᄃᆞᆫ (11:10)

ᄒᆞ다갓 샹녜 波羅蜜을 修習ᄒᆞ낧 ᄃᆞᆫ 能 摩訶衍을 具足ᄒᆞ나리며 (11:10)

若 能 摩訶衍乙 具足ᄒᆞᄆᆞᆫᄃᆞᆫ 則 能 法ᄀᆞᆫ 如ᄐᆞᆫ 佛乙 供養ᄒᆞ白ᄒᆞᄆᆞᆫᄃᆞᆫ (11:11)

ᄒᆞ다갓 能 摩訶衍을 具足ᄒᆞ낧 ᄃᆞᆫ 能 法아기 ᄀᆞᆫ 佛을 供養ᄒᆞᄉᆞᆸ나리며 (11:11)

若 能 法ᄀᆞᆫ 如ᄐᆞᆫ 佛乙 供養ᄒᆞ白ᄒᆞᄆᆞᆫᄃᆞᆫ 則 能ᄉᆞ 佛乙 念ᄒᆞ白ᄀᆞᄆᆞᆷ 心ᄉᆞᆷ 動ᄆᆞ 不ᄒᆞᄆᆞᆫᄃᆞᆫ (11:12)

ᄒᆞ다갓 能 法아기 ᄀᆞᆫ 佛을 供養ᄒᆞᄉᆞᆸ낧 ᄃᆞᆫ 잘? 佛을 念ᄒᆞᄉᆞᄫᆞᆷ더 ᄆᆞᅀᆞᆷ 뮐 안 ᄃᆞᆯᄒᆞ나리며 (11:12)

若 能 佛乙 念ᄒᆞ白ᄀᆞᄆᆞᆷ 心ᄉᆞᆷ 動ᄆᆞ 不ᄒᆞᄆᆞᆫᄃᆞᆫ 則 常ㅣ 量、無ᄆᆞᆫ 佛乙 覩見ᄒᆞ白ᄒᆞᄆᆞᆫᄃᆞᆫ (11:13)

ᄒᆞ다갓 能 佛을 念ᄒᆞᄉᆞᄫᆞᆷ더 ᄆᆞᅀᆞᆷ 뮐 안ᄃᆞᆯᄒᆞ낧 ᄃᆞᆫ 샹녜 그지 업스신 佛을 覩見ᄒᆞᄉᆞᆸ나리며 (11:13)

若 常ㅣ 量ㅣ 無ᄒᆞᆫᄀᆞ 佛乙 覩見ᄒᆞ白ᄒᆞ尸のᄀᆞ 則 如來尸 體ㅣ 常住ᄒᆞᄒᆞᆫᄀᆞのᄀᆞ 見白ᄒᆞ弖ᄀᆞ (11:14)
ᄒᆞ다ᄀᆞᆺ 상녜 그지 업스신 佛을 覩見ᄒᆞᄉᆞᆸ낧 ᄃᆞᆫ 如來ᄭᅴ 體이 常住ᄒᆞ시온 ᄃᆞᆫ 보ᄉᆞᆸ나리며 (11:14)

若 如來尸 體ㅣ 常住ᄒᆞᄒᆞᆫᄀᆞのᄀᆞ 見白ᄒᆞ尸のᄀᆞ 則 能ᄒᆞ 法ㄹ 永ᄃᆞ 滅ᄒᆞロᄀᆞ 不矢ᄒᆞᄀᆞのㄹ 知ᄒᆞ弖ᄀᆞ (11:15)
ᄒᆞ다ᄀᆞᆺ 如來ᄭᅴ 體이 常住ᄒᆞ시온 ᄃᆞᆫ 보ᄉᆞᆸ낧 ᄃᆞᆫ 잘? 法의 길긔? 滅ᄒᆞ곤 아니다닌 ᄃᆞᆯ 알나리며 (11:15)

若 能 法ㄹ 永ᄃᆞ 滅ᄒᆞロᄀᆞ 不矢ᄒᆞᄀᆞのᄀᆞ 知ᄒᆞ尸のᄀᆞ 則 得ᄀᆞ尒 辯才ㅣ 障碍ᄒᆞ尸 無ᄒᆞ弖ᄀᆞ (11:16)
ᄒᆞ다ᄀᆞᆺ 能 法의 길긔? 滅ᄒᆞ곤 아니다닌 ᄃᆞᆫ 알낧 ᄃᆞᆫ 시러곰 辯才이 障碍ᄒᆞᆭ 없나리며 (11:16)

若 得ᄀᆞ尒 辯才ㅣ 障碍ᄒᆞ尸 無ᄒᆞ尸のᄀᆞ 則 能 邊尸 無ᄀᆞ 法乙 開演ᄒᆞᄒᆞ弖ᄀᆞ (11:17)
ᄒᆞ다ᄀᆞᆺ 시러곰 辯才이 障碍ᄒᆞᆭ 없낧 ᄃᆞᆫ 能 ᄀᆞᆺ 업슨 法을 開演ᄒᆞ나리며 (11:17)

若 能 邊尸 無 法乙 開演ᄒᆞᄒᆞ尸のᄀᆞ 則 能 慈愍ᄒᆞᄀᆞ尒 衆生乙 度ㅣᄒᆞ弖ᄀᆞ (11:18)
ᄒᆞ다ᄀᆞᆺ 能 ᄀᆞᆺ 업슨 法을 開演ᄒᆞ낧 ᄃᆞᆫ 能 慈愍ᄒᆞ야곰 衆生ᄋᆞᆯ 건네나리며 (11:18)

若 能 慈愍ᄒᆞᄀᆞ尒 衆生乙 度ㅣᄒᆞ尸のᄀᆞ 則 堅固ᄒᆞᄒᆞᄒᆞ 大悲心乙 得ᄒᆞ弖ᄀᆞ (11:19)
ᄒᆞ다ᄀᆞᆺ 能 慈愍ᄒᆞ야곰 衆生ᄋᆞᆯ 건네낧 ᄃᆞᆫ 堅固ᄒᆞ낫 大悲心을 얻나리며 (11:19)

若 堅固ンヒヒ 大悲心乙 得ヒ尸のㄱ 則 能 甚深法乙 愛樂ンヒ弋ㄉ (11:20)
ᄒᆞ다ᅀᅡ 堅固ᄒᆞ낫 大悲心을 얻낧 ᄃᆞᆫ 能 甚深法을 愛樂ᄒᆞ나리며 (11:20)

若 能 甚深法乙 愛樂ンヒ尸のㄱ 則 能 有爲ヒ 過乙 捨離ンヒ弋ㄉ (11:21)
ᄒᆞ다ᅀᅡ 能 甚深法을 愛樂ᄒᆞ낧 ᄃᆞᆫ 能 有爲ㅅ 過ᄅᆞᆯ 捨離ᄒᆞ나리며 (11:21)

若 能 有爲ヒ 過乙 捨離ンヒ尸のㄱ 則 憍慢ㄴ 及ヒ 放逸ㄴノ仝乙 離攴ヒ弋ㄉ (11:22)
ᄒᆞ다ᅀᅡ 能 有爲ㅅ 過ᄅᆞᆯ 捨離ᄒᆞ낧 ᄃᆞᆫ 憍慢여 밋 放逸여 호리ᄅᆞᆯ 여희나리며 (11:22)

若 憍慢ㄴ 及ヒ 放逸ㄴノ仝乙 離攴ヒ尸のㄱ 則 能攴 兼刂 一切 衆乙 利刂ヒ弋ㄉ (11:23)
ᄒᆞ다ᅀᅡ 憍慢여 밋 放逸여 호리ᄅᆞᆯ 여희낧 ᄃᆞᆫ 잘? ᄒᆞᆫᄀᆞᆯᄀᆞ티 一切 衆을 길미나리며? (11:23)

若 能 兼刂 一切 衆乙 利刂ヒ尸のㄱ 則 生死ㄱ十 處ノ尸ム 疲厭ンア 無ヒ弋ㄉ (11:24)
ᄒᆞ다ᅀᅡ 能 ᄒᆞᆫᄀᆞᆯᄀᆞ티 一切 衆을 길미낧? ᄃᆞᆫ 生死아기 處홇ᄃᆡ 疲厭홇 없나리며 (11:24)

若 生死 處 疲厭ンア 無ヒ尸のㄱ 則 能 勇健ンㄱ尔 能矢 勝ㄱ仝 無ヒ弋ㄉ (12:1)
ᄒᆞ다ᅀᅡ 生死 處 疲厭홇 없낧 ᄃᆞᆫ 能 勇健ᄒᆞ야곰 어디? 이긔아리 없나리며 (12:1)

若 能 勇健 能 勝 無ヒ尸のㄱ 則 能 大神通乙 發起ンヒ弋ㄉ (12:2)
ᄒᆞ다ᅀᅡ 能 勇健 能 勝 없낧 ᄃᆞᆫ 能 大神通ᄋᆞᆯ 發起ᄒᆞ나리며 (12:2)

若 能 大神通乙 發起ンヒ尸のㄱ 則 一切 衆生ㄅ 行乙 知ヒ弋ㄉ (12:3)

ᄒᆞ다갓 能 大神通을 發起ᄒᆞ낧 ᄃᆞᆫ 一切 衆生ᄋᆡ 行을 알나리며 (12:3)

若 一切 衆生 行 知ㅌㅏ尸の ㄱ 則 能 諸ㄱ 群生ㄹ 成就ㅅㅏㅌㅜ가 (12:4)
ᄒᆞ다갓 一切 衆生 行 알낧 ᄃᆞᆫ 能 모ᄃᆞᆫ 群生을 成就ᄒᆞ나리며 (12:4)

若 能 諸ㄱ 群生ㄹ 成就ㅅㅏㅌ尸の ㄱ 則 善ㅈᆞ 衆生ㄹ 攝ㅅ令ㅊ 智ㄹ 得ㅌㅜ가 (12:5)
ᄒᆞ다갓 能 모ᄃᆞᆫ 群生을 成就ᄒᆞ낧 ᄃᆞᆫ 이대 衆生을 攝호릿 智를 얻나리며 (12:5)

若 善ㅈᆞ 衆生ㄹ 攝ㅅ令ㅊ 智ㄹ 得ㅌㅏ尸の ㄱ 則 能 四攝ㅊ 法ㄹ 成就ㅅㅏㅌㅜ가 (12:6)
ᄒᆞ다갓 이대 衆生을 攝호릿 智를 얻낧 ᄃᆞᆫ 能 四攝ㅅ 法을 成就ᄒᆞ나리며 (12:6)

若 能 四攝 法 成就ㅅㅏㅌ尸の ㄱ 則 衆生ㅋ十 限ㄱ 無ㄱ ㅌㅊ 利ㄱ尸の ㄱ 與ㅅㅏㅌㅜ가 (12:7)
ᄒᆞ다갓 能 四攝 法 成就ᄒᆞ낧 ᄃᆞᆫ 衆生의긔 ᄀᆞᄉᆞ? 업슨낫 利옳? ᄃᆞᆫ 與ᄒᆞ나리며 (12:7)

若 衆生 限 無 利 與ㅅㅏㅌ尸の ㄱ 則 最勝ㅅㅏㅌㅊ 智方便ㄹ 具ㄱㅏㅌㅜ가 (12:8)
若 衆生 限 無 利 與ᄒᆞ낧 ᄃᆞᆫ 最勝ᄒᆞ낫 智方便을 ᄀᆞᄎᆞ나리며 (12:8)

若 最勝ㅅㅏㅌㅊ 智方便 具ㄱㅏㅌ尸の ㄱ 則 勇猛 無上道ㅇ十 住ㅅㅏㅌㅜ가 (12:9)
ᄒᆞ다갓 最勝ᄒᆞ낫 智方便 ᄀᆞᄎᆞ낧 ᄃᆞᆫ 勇猛 無上道아긔 住ᄒᆞ나리며 (12:9)

若 勇猛 無上道 住ㅅㅏㅌ尸の ㄱ 則 能 諸ㄱ 魔力ㄹ 摧殄ㅅㅏㅌㅜ가 (12:10)
ᄒᆞ다갓 勇猛 無上道 住ᄒᆞ낧 ᄃᆞᆫ 能 모ᄃᆞᆫ 魔力을 摧殄ᄒᆞ나리며 (12:10)

若 能 諸 魔力 摧殄ㅅㅏㅌ尸の ㄱ 則 能 四魔ㅊ 境ㄹ 超出ㅅㅏㅌㅜ가 (12:11)

ᄒᆞ다ᅀᅡ 能 諸 魔力 摧殄ᄒᆞ낧 ᄃᆞᆫ 能 四魔ㅅ 境을 超出ᄒᆞ나리며 (12:11)

若 能 四魔 境 超出 則 得ᄀᆞᄉᆞ 於不退地ᄀᆞ十 至ᄒᆡᅀᆞᆷ (12:12)
ᄒᆞ다ᅀᅡ 能 四魔 境 超出 시러곰 不退地아ᄀᆡ 니를나리며 (12:12)

若 得 於不退地ᄀᆞ十 至 則 無生深法忍ᄀᆞᆯ 得ᄒᆡᅀᆞᆷ (12:13)
ᄒᆞ다ᅀᅡ 得 不退地아ᄀᆡ 至 無生深法忍을 얻나리며 (12:13)

若 無生深法忍 得 則 諸ㄱ 佛矣 授記ᄉᆞᄒᆞᄆᆞᄆᆞ 所ㅣᄆᆞ 爲の乙ᄉᆞᄒᆡᅀᆞᆷ (12:14)
ᄒᆞ다ᅀᅡ 無生深法忍 得 모ᄃᆞᆫ 부텨 授記ᄒᆞ시옳 바잃 ᄃᆞᆯ ᄒᆞ나리며 (12:14)

若 諸 佛 授記 所 爲の乙ᄉᆞᄒᆡᄆᆞのㄱ 則 一切 佛ㅣ 其前ᄀᆞ十 現ᄒᆡᄒᆞᅀᆞᆷ (12:15)
ᄒᆞ다ᅀᅡ 諸 佛 授記 所(잃) ᄃᆞᆯ ᄒᆞ낧 ᄃᆞᆫ 一切 佛이 其前아ᄀᆡ 날나시리며 (12:15)

若 一切 佛 其前 現ᄒᆡᄒᆞᄆᆞのㄱ 則 神通深密用乙 了ᄉᆞᄒᆡᅀᆞᆷ (12:16)
ᄒᆞ다ᅀᅡ 一切 佛 其前 날나싫 ᄃᆞᆫ 神通深密用ᄋᆞᆯ 了ᄒᆞ나리며 (12:16)

若 神通深密用乙 了ᄉᆞᄒᆡᄆᆞのㄱ 則 諸ㄱ 佛矣 所憶念ᄉᆞᄒᆞᄆᆞᄆᆞ 爲の乙ᄉᆞᄒᆡᅀᆞᆷ (12:17)
ᄒᆞ다ᅀᅡ 神通深密用ᄋᆞᆯ 了ᄒᆞ낧 ᄃᆞᆫ 모ᄃᆞᆫ 부텨 所憶念ᄒᆞ시옳 ᄃᆞᆯ ᄒᆞ나리며 (12:17)

若 諸 佛 所憶念 爲の乙ᄉᆞᄒᆡᄆᆞのㄱ 則 佛德乙 以ᄀᆞ 自ㄱᄉᆞᄉᆞ乙[ᄆᆞᄉᆞ乙?] 莊嚴ᄉᆞᄒᆡᅀᆞᆷ (12:18)
ᄒᆞ다ᅀᅡ 諸 佛 所憶念(ᄒᆞ시옳) ᄃᆞᆯ ᄒᆞ낧 ᄃᆞᆫ 佛德을 뼈 스싀리를? 莊嚴ᄒᆞ나리며 (12:18)

若 佛德 以 自 莊嚴ㅅᄒᆞ尸の亻 則 妙福端嚴身乙 獲ᄒᆞ弖ᄀᆞ (12:19)
ᄒᆞ다갓 佛德 以 自 莊嚴ᄒᆞ낧 ᄃᆞᆫ 妙福端嚴身을 얻나리며 (12:19)

若 妙福端嚴身乙 獲ᄒᆞ尸の亻 則 身ㅣ 晃燿ノ尸ム 金山ㆍ 如ᄎᆞㅅᄒᆞ弖ᄀᆞ (12:20)
ᄒᆞ다갓 妙福端嚴身을 얻낧 ᄃᆞᆫ 身이 晃燿홇ᄃᆡ 金山 다ᄒᆞ나리며 (12:20)

若 身 晃燿 金山 如ᄎᆞㅅᄒᆞ尸の亻 則 相乙ᅮᆷ 莊嚴ノ尸ム 三十二乙ㅅᄒᆞ弖ᄀᆞ (12:21)
ᄒᆞ다갓 身 晃燿 金山 다ᄒᆞ낧 ᄃᆞᆫ 얼굴로? 莊嚴홇ᄃᆡ 三十二를 ᄒᆞ나리며 (12:21)

若 相 莊嚴 三十二乙ㅅᄒᆞ尸の亻 則 隨好乙 具ᄀᆞᄌᆞ尒 嚴飾 爲ᄉᆞᄒᆞ弖ᄀᆞ (12:22)
ᄒᆞ다갓 相 莊嚴 三十二를 ᄒᆞ낧 ᄃᆞᆫ 隨好ᄅᆞᆯ ᄀᆞᄎᆞ아곰 嚴飾 삼나리며 (12:22)

若 隨好 具 嚴飾 爲ᄉᆞᄒᆞ尸の亻 則 身ㄴ 光明ㅣ 限量ㆍ 無ᄒᆞ弖ᄀᆞ (12:23)
ᄒᆞ다갓 隨好 具 嚴飾 삼낧 ᄃᆞᆫ 身ㅅ 光明이 限量 없나리며 (12:23)

若 身 光明 限量ㆍ 無ᄒᆞ尸の亻 則 不思議ㄴ 光乙ᅮᆷ 莊嚴ㅅᄒᆞ弖ᄀᆞ (12:24)
ᄒᆞ다갓 身 光明 限量 없낧 ᄃᆞᆫ 不思議ㅅ 光으로 莊嚴ᄒᆞ나리며 (12:24)

若 不思議 光 莊嚴ㅅᄒᆞ尸の亻 其光ㄱ 則ᄎᆞ 諸 蓮華乙 出ㅅᄒᆞ弖ᄀᆞ (13:1)
ᄒᆞ다갓 不思議 光 莊嚴ᄒᆞ낧 ᄃᆞᆫ 其光ᄋᆞᆫ 諸 蓮華ᄅᆞᆯ 出ᄒᆞ나리며 (13:1)

其光ㅣ 若ㄴ 諸ㄱ 蓮華乙 出ㅅᄒᆞ尸の亻 則 量ㅣ 無ㄱ 佛ㅣ 華上ᄀᆞ十 坐ㅅᄀᆞ十方ᄀᆞ十 示現ノ尸ム 不多 徧ヤㅣノㄱ 靡ㄴᄀᆞ尒 悉ᄀᆞ 能ᄎᆞ 諸ㄱ 衆生乙 調伏ㅅᄒᆞ弖ᄀᆞ (13:2-3)
其光이 ᄒᆞ다갓 모ᄃᆞᆫ 蓮華ᄅᆞᆯ 出ᄒᆞ낧 ᄃᆞᆫ 그지 업슨 佛이 華上아기 坐ᄒᆞ야 十方아기 示現홇ᄃᆡ 안ᄃᆞᆯ 徧마다 혼 업서곰 다 能히? 모ᄃᆞᆫ 衆生ᄋᆞᆯ 調伏ᄒᆞ나리며

(13:2-3)

若ㄴ 能ᄒᆞ 是ㅣ 、 如ᄒᆞ 衆生ㄷ 調ᄒᆞᄉᆞᄐᆞᄆᆞᄀᆞ のㄷᄂᆞᄒᆞ尸ᄒᆞᄀᆞ 則 量、 無ㄱ 神通ㄴ 力ㄷ 現ᄆᆞᄒᆞᄒᆞᄀᆞ (13:4)

ᄒᆞ다ᄀᆞᆺ 能히? 이 다 衆生ᄋᆞᆯ 調ᄒᆞ시ᄂᆞᆫ ᄃᆞᆯ ᄒᆞ낧리며 그지 업슨 神通ㅅ 力을 나토나리며 (13:4)

若 量 無 神通ㄴ 力ㄷ 現ᄆᆞᄒᆞ尸のㄱ 則 不可思議ㄴ 土ᄀᆞᆫ 住ᄂᆞᄀᆞᆫᄀᆞᄌᆞ 不可思議ㄴ 法ㄷ 演說ᄂᆞᄀᆞ 不思議ㄴ 衆ㄷ 歡喜、 令ㅣᄂᆞᄒᆞᄀᆞᄀᆞ (13:5-6)

ᄒᆞ다ᄀᆞᆺ 量 無 神通ㅅ 力을 나토낧 ᄃᆞᆫ 不可思議ㅅ 土아기 住ᄒᆞ야곰 不可思議ㅅ 法을 演說ᄒᆞ야 不思議ㅅ 衆을 歡喜 ᄒᆞ이나리며 (13:5-6)

若 不可思議ㄴ 法ㄷ 說ᄂᆞᄀᆞᆫ 不思議ㄴ 衆ㄷ 歡喜、 令ㅣᄂᆞᄒᆞ尸のㄱ 則 智慧辯才ㄴ 力ㄷ 以ᄀᆞᆫᄀᆞᄌᆞ 衆生ㅋ 心ㄷ 隨ᄆᆞ 而ᄆᆞ 化誘ᄂᆞᄒᆞᄀᆞᄀᆞ (13:7-8)

ᄒᆞ다ᄀᆞᆺ 不可思議ㅅ 法을 說ᄒᆞ야 不思議ㅅ 衆을 歡喜 ᄒᆞ이낧 ᄃᆞᆫ 智慧辯才ㅅ 力을 ᄲᅥ곰 衆生ᄋᆡ ᄆᆞᅀᆞᄆᆞᆯ 조초 化誘ᄒᆞ나리며 (13:7-8)

若 智慧 辯才 力 以 衆生ㅋ 心ㄷ 隨 而 化誘ᄂᆞᄒᆞ尸のㄱ 則 智慧ㄷ 以ᄀᆞᆫ 先導、 爲ᄒᆞᄀᆞᆫᄀᆞᄒᆞ 身語意業ᄀᆞᆫ 恒ㅣ 失尸 無ᄒᆞᄀᆞᄀᆞ (13:9-10)

ᄒᆞ다ᄀᆞᆺ 智慧 辯才 力 以 衆生ᄋᆡ ᄆᆞᅀᆞᄆᆞᆯ 隨 化誘ᄒᆞ낧 ᄃᆞᆫ 智慧를 ᄲᅥ 先導 사ᄆᆞᆨ 身語意業아기 기리? 일흠 없나리며 (13:9-10)

若 智慧 以 先導 爲 身語意業 恒 失尸 無ᄒᆞ尸のㄱ 則 其願力ᄀᆞᆫ 自在ㄷ 得ᄀᆞᆫᄀᆞᄌᆞ 普ㅣ 諸ㄱ 趣ㄷ 隨ᄆᆞ 而ᄆᆞ 身ㄷ 現ᄆᆞᄒᆞᄀᆞᄀᆞ (13:11-12)

ᄒᆞ다ᄀᆞᆺ 智慧 以 先導 爲 身語意業 恒 일흠 없낧 ᄃᆞᆫ 其願力아기 自在ᄅᆞᆯ 어더곰 너비 모ᄃᆞᆫ 趣를 조초 身을 나토나리며 (13:11-12)

若 其願力 自在 得 普 諸 趣 隨 而 身ㄷ 現ᄆᆞᄒᆞ尸のㄱ 則 能 衆ㅋ 爲ᄒᆞ 說法ᄂᆞᄉᆞㄴ 時ᄉᆞᆫ 音聲ㅣ 類ㄷ 隨ᄆᆞノ尸ㅁ 難ᄒᆞ 思議ノᄒᆞᄒᆞᄀᆞᄀᆞ (13:13-14)

ᄒᆞ다ᄀᆞᆺ 其願力 自在 得 普 諸 趣 隨 而 身을 나토낧 ᄃᆞᆫ 能 衆의 삼 說法ᄒᆞ릿

ᄲᅥ여긔 音聲이 類를 조초 ᄒᆞᆷ덕 어려ᄇᆡ사 思議ᄒᆞ리나리며 (13:13-14)

若 能 衆 爲 說法 時 音聲 類 隨 難 思議ノヲヒ尸のㄱ 則 於一切衆生ㅋ 心乙 一ㄱ 念ᄀᆞ十 悉ᄀᆞ 知ㅁ尸ム 有餘ンㄱ 無ㄲンヒヲ分 (13:15-16)
ᄒᆞ다ᄀᆞᆺ 能 衆 爲 說法 時 音聲 類 隨 難 思議ᄒᆞ리낧 ᄃᆞᆫ 一切衆生ᄋᆡ ᄆᆞᅀᆞᄆᆞᆯ ᄒᆞᆫ 念아기 다 아롧덕 남ᄒᆞᆫ 업시 ᄒᆞ나리며 (13:15-16)

若 於一切衆生 心 一 念 悉 知 有餘ンㄱ 無ㄲンヒ尸のㄱ 則 煩惱ㄲ 起ノ尸 所ᄀᆞ 無ㅁㄱのㄹ 知ᄀᆞ尔 永ㄷ 於生死ᄀᆞ十 沒溺ンア 不ンヒヲ分 (13:17-18)
ᄒᆞ다ᄀᆞᆺ 一切衆生 心 一 念 悉 知 남ᄒᆞᆫ 업시 ᄒᆞ낧 ᄃᆞᆫ 煩惱이 起ᄒᆞᆷ 바 업손 ᄃᆞᆯ 아라곰 길긔? 生死아기 沒溺ᄒᆞᆷ 안ᄃᆞᆯᄒᆞ나리며 (13:17-18)

若 煩惱 起 所 無 知 永 於生死 沒溺 不ンヒ尸のㄱ 則 功德 法性身乙 獲ᄀᆞㅅ 法ㄴ 威力乙 以ᄀᆞ 世間ᄀᆞ十 現ヒヲ分 (13:19-20)
ᄒᆞ다ᄀᆞᆺ 煩惱 起 所 無 知 永 生死 沒溺 안ᄃᆞᆯᄒᆞ낧 ᄃᆞᆫ 功德 法性身을 어덕 法ㅅ 威力을 ᄡᅥ 世間아기 나토나리며 (13:19-20)

若 功德法性身 獲 法 威力 以 世間ᄀᆞ十 現ヒ尸のㄱ 則 十地ᄉᆞ 十自在ᄉᆞノ今乙 獲ᄀᆞ尔 諸ㄱ 度ᄉᆞ 勝解脫ᄉᆞノ今乙 修行ンヒヲ分 (13:21-22)
ᄒᆞ다ᄀᆞᆺ 功德法性身 獲 法 威力 以 世間아기 나토낧 ᄃᆞᆫ 十地여 十自在여 호리ᄅᆞᆯ 어더곰 모ᄃᆞᆫ 度여 勝解脫여 호리ᄅᆞᆯ 修行ᄒᆞ나리며 (13:21-22)

若 十地ᄉᆞ 十自在ᄉᆞノ尸乙 獲ᄀᆞ尔 諸ㄱ 度 勝解脫 修行ンヒ尸のㄱ 則 灌頂大神通乙 獲ᄀᆞ尔 於最勝ンア七 諸ㄱ 三昧ᄀᆞ十 住ンヒヲ分 (13:23-24)
ᄒᆞ다ᄀᆞᆺ 十地여 十自在여 ᄒᆞᆷ올 어더곰 모ᄃᆞᆫ 度 勝解脫 修行ᄒᆞ낧 ᄃᆞᆫ 灌頂大神通올 어더곰 最勝ᄒᆞ릿 모ᄃᆞᆫ 三昧아기 住ᄒᆞ나리며 (13:23-24)

若 灌頂大神通 獲 於最勝 諸 三昧 住ンヒ尸のㄱ 則 於十方七 諸ㄱ 佛ㅊ 所ᄀᆞ十ンᄀᆞㅅ 灌頂乙 受ᄀᆞ尔 而ㅠ 鼎位ンㅎ 應七ンヒヲ分 (14:1-2)
ᄒᆞ다ᄀᆞᆺ 灌頂大神通 獲 於最勝 諸 三昧 住ᄒᆞ낧 ᄃᆞᆫ 十方ㅅ 모ᄃᆞᆫ 부텨 바아기

ᄒᆞ약 灌頂을 바다곰 鼎位ᄒᆞᆷ 맛ᄒᆞ나리며 (14:1-2)

若 於十方ㄷ 諸ㄱ 佛矣 所 灌頂 受 而 鼎位 應ㄷᄂᆞᆫᄒᆞᄒᆞᆫ尸のㄱ 則 十方ㄷ 一切 佛ㅣ 手 以 甘露 其頂 灌 蒙ᄒᆞᄒᆞᆫ尸ᄀᆞ (14:3-4)

ᄒᆞ다ᄀᆞᆺ 十方ㅅ 모ᄃᆞᆫ 부텨 所 灌頂 受 鼎位 맛ᄒᆞ닗 ᄃᆞᆫ 十方ㅅ 一切 佛이 手 以 甘露 其頂 灌 스나리며? (14:3-4)

若 十方 一切 佛 手 以 甘露 其頂 灌 蒙ᄒᆞ尸のㄱ 則 身ㅣ 充徧ノ尸ㅁ 虛空、如ᄎᆞᄂᆞᆫㅎ 安住 不動ᄂᆞᆫᄀᆞ尒 十方ᄂᆞᆫ十 滿ᄂᆞᆫᄒᆞᄒᆞᆫᄀᆞ (14:5-6)

ᄒᆞ다ᄀᆞᆺ 十方 一切 佛 手 以 甘露 其頂 灌 스닗? ᄃᆞᆫ 身이 充徧ᄒᆞᆷ딕 虛空 다ᄒᆞ약 安住 不動ᄒᆞ야곰 十方아긔 滿ᄒᆞ나리며 (14:5-6)

若 身 充徧 虛空 如 安住 不動 十方 滿ᄂᆞᆫᄒᆞᄒᆞᆫ尸のㄱ 則 彼ㄹ 所行ㄱ 與ㄷᄂᆞᆫᄀᆞ尒 等ㅁ仝 無ᄂᆞᆫ 諸ㄱ 天ㆍ 世人ㆍノ干 能矣 知ᄂᆞᆫ仝 莫ㄷナㅎㄷㅣ (14:7-8)

ᄒᆞ다ᄀᆞᆺ 身 充徧 虛空 如 安住 不動 十方 滿ᄒᆞ닗 ᄃᆞᆫ 뎌의 所行온 다ᄆᆞᆺ ᄒᆞ야곰 다코리 업서 모ᄃᆞᆫ 天여 世人여 호리 어디? 아라리 없거겸싸 (14:7-8)

菩薩ㄱ 勤ㄷ 大悲行ㄷ 修ᄂᆞᆫ尒 願のㄱ 一切ㄷ 度ㅣㅁ八ᄎᆞノ尸ㅁ 果ᄃᆞ尸 不ᄂᆞ尸丁ノ尸 無ㅣᄂᆞᆫナ干ㅠ (14:9)

菩薩온 붓 大悲行ᄋᆞᆯ 닷가곰 願(콤) ᄃᆞᆫ 一切를 건네곡져 ᄒᆞᆷ딕 果ᄀᆞᆮᄋᆞᆷ 안ᄃᆞᆯᄒᆞᆷ뎌 ᄒᆞᆷ 업시 ᄒᆞ야겨리라 (14:9)

見聞ᄂᆞᄎᆞ 聽受ᄂᆞᄎᆞ 若ㄷ 供養ᄂᆞᄎᆞᄂᆞㅁㅁㄷ火ㄷ八尸のㄱ 皆ㄷ 安樂ㄷ 獲ㅣ 令ㅣ尸 不ᄂᆞ尸丁ノ尸 靡ㅣㄷ(ㄷㅣ?)ᄂᆞᆫᄒᆞᄒᆞᆫᄀᆞ (14:10)

見聞ᄒᆞ져 聽受ᄒᆞ져 ᄒᆞ다ᄀᆞᆺ 供養ᄒᆞ져 ᄒᆞ고나붓긿? ᄃᆞᆫ 다ᄆᆞᆺ 安樂ᄋᆞᆯ 얻읿? 안ᄃᆞᆯᄒᆞᆷ뎌 ᄒᆞᆷ 업시 ᄒᆞ나리며 (14:10)

彼 諸ㄱ 大士ㄹ 威神ㄷ 力ㄷㅠ 法眼 常全ᄂᆞᆫ尒 缺減ノ尸 無ㅣᄂᆞᆫᄒᆞᄒᆞᆫᄀᆞ (14:11)

뎌 모ᄃᆞᆫ 大士ᄋᆡ 威神ㅅ 力으로 法眼 常全ᄒᆞ야곰 缺減ᄒᆞᆷ 업시 ᄒᆞ나리며

(14:11)

十善妙行等ㅣㅅㄱ 諸ㄱ 道ㅢㄱ 無上勝寶乙 皆ㄷ 現ㅁ 令ㅢㅏㅁㄷㅣ (14:12)
十善妙行 다ᄒᆞᆫ 모ᄃᆞᆫ 道인 無上勝寶를 다ᄆᆞᆺ 나토이겸ᄊᆞ (14:12)

譬のㄱ 大海ㅋㄷ 金剛聚ㄱ 彼ㅋ 威力乙 以ㅣㅋ 衆ㄱ 寶乙 生ㅅㄱㅁ 減ㅅ尸 無ㅿ 增ㅅ尸 無ㅿ 亦ㅅㄱ[ㅢㄱ?] 盡尸 無ㄱ 、如ㅈ 菩薩尸 功德聚 亦ㅱ 然ㄷㅅㅏㅣ (14:14)
가ᄌᆞᆯ비ᄃᆞᆫ 大海앳 金剛聚는 뎌의 威力을 ᄲᅥ 한 寶를 生ᄒᆞᆫ디 減ᄒᆞᆷ 업스며 增ᄒᆞᆷ 업스며 ᄯᅩᄒᆞᆫ 다ᄋᆞᆷ 업슨 다 菩薩ㅱ 功德聚도 그럿ᄒᆞ겨다 (14:14)

或ㅱ 有ㅏㅣ 刹土ㅢ 有佛矣 無ㅎㅁㄱ矣ㅛ 於彼ㅢㅓㄱ 正覺、成ㅏㅁㄱのㄹ 示現ㅅㅏㅿ (14:15)
ᄯᅩ 잇겨다 刹土이 부텨 업스시ᄋᆞᆫ 디여 뎌이긘 正覺 이ᄅᆞᄂᆞᆫ ᄃᆞᆯ 示現ᄒᆞ겨며 (14:15)

或ㅱ 有ㅏㅣ 國土ㅢ 法乙 知尸 不ㅅㅏ尸矣ㅣ 於彼ㅢㅓㄱ 爲ㅣㅁ 妙法藏乙 說ㅁㅌㅎㅿ (14:16)
ᄯᅩ 잇겨다 國土이 法을 아롫 안ᄃᆞᆯᄒᆞ겷 디여 뎌이긘 사모 妙法藏올 니ᄅᆞ고나리며 (14:16)

有分別、無ㅎ 功用、無ㅎㅅㅏㄱㅣ 於一ㄱ 念ㄷ 頃ㄷㅋㅓ 十方ㅋㅓ 徧ㅿㅣㅅ尸ㅁ 月光影、如ㅈㅅㅋ尒 周ㄷㅅ尸 不ㅅ尸丁ㅅ尸 靡ㄷㅋ 量ㅢ 無ㄱ 方便乙ㅱ 群生乙 化ㅅㅁㅌㅎㅿ (14:17-18)
分別 없져 功用 없져 ᄒᆞ견여 ᄒᆞᆫ 念ㅅ 頃ㅅ아기? 十方아기 徧마다 ᄒᆞᆷ디 月光影 다ᄒᆞ야곰 두릇? ᄒᆞᆷ 안ᄃᆞᆯᄒᆞᆷ뎌 ᄒᆞᆷ 업서 그지 업슨 方便으로 群生올 化ᄒᆞ고나리며 (14:17-18)

於彼十方世界ㄷ 中ㅋㅓ 念念ㅋㅓㅿㅏㅣ 佛道、成ㅏㅁㄱのㄹ 示現ㅅㅎ 正法輪乙 轉ㅎ 寂滅ㅋㅓ 入ㅅㅎ 乃ㅣ 至ㅢ 舍利乙 廣ㅢ 分布ㅅㅎㅅㅁㅌㅎㅿ (14:19-20)

彼十方世界ㅅ 中아기 念念아기마다 佛道 이ᄅᆞ논 ᄃᆞᆯ 示現ᄒᆞ져 正法輪을 구르져 寂滅아기 入ᄒᆞ져사 니르리 舍利를 너비 分布ᄒᆞ져 ᄒᆞ고나며 (14:19-20)

或ᄂᆞᆫ 聲聞ᄋᆞ 獨覺ᄒᆞᆫ 道ᄀᆞᆯ 現ᄒᆞᆷᄀᆞᆫ 或ᄂᆞᆫ 成佛ᄂᆞᆫᄃᆞ尒 普ᄇᆡ 莊嚴ᄂᆞᆫᄀᆞᆯ 現ᄒᆞᆷᄀᆞᆫᄂᆞᆫᄃᆞ 是ᄇᆡ 如ᄒᆞᆫ 三乘ᄒᆞᆫ 教ᄀᆞᆯ 開闡ᄂᆞᆫᄃᆞ尒 廣ᄇᆡ 衆生ᄀᆞᆯ 度ᄇᆡᄒᆞᆷ尸ᄀᆞᆫ 量ᄇᆡ 無ᄀᆡ 劫ᄃᆞ ᄒᆞᆫᄂᆞᆫᄅᆞᄒᆞᆫᄀᆞᆫ (14:21-22)

ᄯᅩᄒᆞᆫ 聲聞여 獨覺ㅅ 道ᄅᆞᆯ 나토며 ᄯᅩᄒᆞᆫ 成佛ᄒᆞ야곰 너비 莊嚴ᄒᆞᆫ ᄃᆞᆯ 나토며 ᄒᆞ야 이 다 三乘ㅅ 教ᄅᆞᆯ 開闡ᄒᆞ야곰 너비 衆生ᄋᆞᆯ 건네욤며 그지 업슨 劫아기 ᄒᆞ고나며 (14:21-22)

或ᄂᆞᆫ 童男ᄋᆞ 童女ᄅᆞᄒᆞ 形ᄋᆞ 天ᄋᆞ 龍ᄋᆞ 及ᄒᆞᆫ 以ᄃᆞ 阿修羅ᄋᆞ 乃ᄋᆞ 至ᄇᆡ 摩睺羅伽 等ᄒᆡᄂᆞᆫᄀᆞᆯ ᄇᆡᄋᆞᄂᆞᆺᄒᆞᆫᄀᆞᆫᄋᆞᆫᄀᆞᆯ 、 現ᄒᆞᆷᄃᆞ 其 樂ᄒᆞᆷ尸 所ᄀᆞᆯ 隨ᄒᆞᆷ 悉ᄃᆞ 見ᄇᆡ 令ᄇᆡᄅᆞᄒᆞᆫᄀᆞᆫ (14:23-24)

ᄯᅩᄒᆞᆫ 童男여 童女의 形여 天여 龍여 밋 ᄡᅥ 阿修羅여사 니르리 摩睺羅伽 다 ᄒᆞᆫ이여 호리닌 ᄃᆞᆯ 나토아 그 됴ᄒᆞᆷ 바ᄅᆞᆯ 조초 다 보이고나며 (14:23-24)

衆生ᄅᆞᄒᆞ 形相ᄀᆞ 各尒 不多 同ᄇᆡᄀᆞᆫ 行業ᄋᆞ 音聲ᄋᆞᄂᆞᆺ 亦ᄀᆞᆫ 量ᄇᆡ 無ᄀᆞ乙 是ᄇᆡ 如ᄒᆞᆫᄂᆞᆫᄀᆞ 一切乙 皆ᄒᆞᆫ 能ᄒᆞᆫ 現ᄒᆞᆷᄐᆞᄒᆞᆷᄀᆞᆫᄂᆞᆫᄀᆞ 海印三昧ᄒᆞᆫ 威神ᄒᆞᆫ 力ᄇᆡᄂᆞᆨᅵ (15:1-2)

衆生ᄋᆡ 形相ᄋᆞᆫ 제여곰 안ᄃᆞᆯ 오히며 行業여 音聲여 호리도 그지 업슨을 이 다ᄒᆞᆫ 一切를 다ᄆᆞᆺ 能히? 나토논 ᄃᆞᆫ 海印三昧ㅅ 威神ㅅ 力이겨다 (15:1-2)

不可思議ᄒᆞᆫ 刹乙 嚴淨ᄂᆞᆫᄀᆞᆫ 一切 諸ᄀᆞ 如來乙 供養ᄂᆞᆫᄇᆡᄀᆞᆫ 大光明乙 放ᄂᆞᆫᄀᆞᆷ 有邊尸 無ᄇᆡᄂᆞᆫᄀᆞᆫ 衆生乙 度脫ᄂᆞᆫ尸ᄀᆞᆷ 亦ᄂᆞᆫᄀᆞ 限ᄒᆞᆷ 無ᄇᆡᄂᆞᆫᄀᆞᆫ (15:3-4)

不可思議ㅅ 刹ᄋᆞᆯ 嚴淨ᄒᆞ며 一切 모ᄃᆞᆫ 如來ᄅᆞᆯ 供養ᄒᆞᄉᆞᄇᆞᆸ며 大光明을 放ᄒᆞᆫ디 ᄀᆞᆺ 업시 ᄒᆞ며 衆生ᄋᆞᆯ 度脫ᄒᆞᆷ디 ᄯᅩᄒᆞᆫ ᄀᆞᅀᅩ? 업시 ᄒᆞ며 (15:3-4)

智慧自在ᄂᆞᆫᄃᆞ 思議尸 不ᄂᆞᆫ尸ᄀᆞᆫ 說法ᄒᆞᆫ 言辭 有碍尸 無ᄀᆞᆫ (15:5)

智慧自在ᄒᆞ야 思議ᄆᆞ 안ᄃᆞᆯᄒᆞᆷ며 說法ㅅ 言辭 有碍ᄆᆞ 업스며 (15:5)

施ㅣ 戒ㅣ 忍ㅣ 進ㅣ 及ㄷ 禪定ㅣ 智慧ㅣ 方便ㅣ 神通ㅣㅅ尸 等ㅣㅅㄱ 是ㄲ ㆍ 如ᄒᆞㅅㄱ 一切尸十 皆ㄷ 自在ᄒᆞㅅㅏㅁㄱのㄱ 佛華嚴三昧ㄷ 力乙 以ㅣㅏㅎ ㅣ (15:6-7)

施여 戒여 忍여 進여 ᄆᆡᆺ 禪定여 智慧여 方便여 神通여 ᄒᆞᆷ 다ᄒᆞᆫ 이 다ᄒᆞᆫ 一切ᄭᅴ 다ᄆᆞᆺ 自在히 ᄒᆞ논 ᄃᆞᆫ 佛華嚴三昧ㅅ 力을 ᄡᅳ겸다 (15:6-7)

一ㄱ 微塵ㄷ 中ㅣ十 三昧ㅣ十 入ㅅ尸ㅁ 一切 微塵ㄷ 定乙 成就ㅅㅏᄉᆞㅣ 而ㄱ 彼 微塵ㄱ 亦ㅅㄱ 增ㅅㅁㅁㄱ 不矣ㄱ乙 於一ㄱㄹ十 普ㄲ 難思ㄷ 刹乙 現ㅁㅁㅁㅁㅂㅏ (15:8-9)

ᄒᆞᆫ 微塵ㅅ 中아기 三昧아기 入ᄒᆞᆷ디 一切 微塵ㅅ 定을 成就ᄒᆞ겨리여 더 微塵은 ᄯᅩᄒᆞᆫ 增ᄒᆞ곤 아니딘을 ᄒᆞᆫ이기 너비 難思ㅅ 刹ᄋᆞᆯ 나토고나며 (15:8-9)

彼一ㄱ 塵乙ㅠㅅ 內ㅣㄷ 衆ㄱ 多ㄲㄱ 刹ㄱ 或ㄲ 有ㅏㅣ 佛矣 有ㅏㅅㅎㅁㅁㄱ 矣ㅣ 或ㅏㅣ 佛矣 無ㅎㅁㅁㄱ 矣ㅣ (15:10)

더 ᄒᆞᆫ 듣글록 안햇 모ᄃᆞᆫ 핸 刹은 ᄯᅩ 잇겨다 부텨 겨시온 디여 (ᄯᅩ 잇)겨다 부텨 업스시온 디여 (15:10)

或ㄲ 有ㅏㅣ 雜染ㅅㄱ 矣ㅣ 或ㅏㅣ 淸淨ㅅㄱ 矣ㅣ 或ㄲ 有ㅏㅣ 廣大ㅅㄱ 矣ㅣ 或 狹小ㅅㄱ 矣ㅣ (15:11)

ᄯᅩ 잇겨다 雜染ᄒᆞᆫ 디여 (ᄯᅩ 잇)겨다 淸淨ᄒᆞᆫ 디여 ᄯᅩ 잇겨다 廣大ᄒᆞᆫ 디여 (ᄯᅩ 잇겨다) 狹小ᄒᆞᆫ 디여 (15:11)

或ㅅㄱ 復ㄲ 有ㅏㅣ 成ㅏㄱ 矣ㅣ 或ㄲ 有ㅏㅣ 壞ㅏㄱ 矣ㅣ 或ㄲ 有ㅏㅣ 正住ㅅㄱ 矣ㅣ 或ㅏㅣ 傍住ㅅㄱ 矣ㅣ (15:12)

ᄯᅩᄒᆞᆫ ᄯᅩ 잇겨다 이ᄅᆞ논 디여 ᄯᅩ 잇겨다 믄호논 디여 ᄯᅩ 잇겨다 正住ᄒᆞᆫ 디여 (ᄯᅩ 잇)겨다 傍住ᄒᆞᆫ 디여 (15:12)

或ㅏㅣ 曠野ㄷ 熱時ㄷ 焰ㆍ 如ᄒᆞㅅㄱ 矣ㅣ 或ㅏㅣ 天上ㅣㄷ 因陀網ㆍ 如ᄒᆞㅅㄱ 矣ㅣ (15:13)

(ᄯᅩ 잇)겨다 曠野ㅅ 熱時ㅅ 焰 다ᄒᆞᆫ 디여 (ᄯᅩ 잇)겨다 天上앳 因陀網 다ᄒᆞᆫ

디여 (15:13)

一ㄱ 塵ㄷ 中ㅋㅓ 示現ㅅㄱ 所ㄹㅅㄷ 如ㅈ 一切 微塵ㅋㅓㅁ 悉ㅋ 亦ㅁ 然ㅎ ㅅㄴㅏㅌㄱ 矣ㅎ (15:14)
ᄒᆞᆫ 塵ㅅ 中아기 示現ᄒᆞᆫ 바ᄅᆞᆯ ᄒᆞᆷ 다 一切 微塵아기도 다 ᄯᅩ 그려? ᄒᆞ겨ᄂᆞᆫ 디여 (15:14)

此ㄱ 大名稱ㅣㄴㅏㅣ 諸ㄱ 聖人ㅋ 三昧解脫神通ㄷ 力ㅣㄴㅏㅣ (15:15)
이ᄂᆞᆫ 大名稱이겨다 모ᄃᆞᆫ 聖人의 三昧解脫神通ㅅ 力이겨다 (15:15)

若ㄷ 一切 佛ㄹ 供養ㅅㅂ 欲ㅅㅅㅈㄱㅣㅓㄱ 于三昧ㅋㅓ 入ㅅㅋㅓ 尒 神變ㄹ 起ㅅㄷㅁ 能ㅈ 一ㄱ 手ㄹ 以ㅋ 三千ㅋㅓ 徧ㅇㅣㅅㅋ 普ㅂ 一切 諸ㄱ 如來ㄹ 供ㅅㄴㅎ (15:16-17)
ᄒᆞ다갓 一切 佛을 供養ᄒᆞᄉᆞᆸ과 ᄒᆞ건다긘 三昧아기 入ᄒᆞ야곰 神變을 起ᄒᆞᆷ더 잘? ᄒᆞᆫ 소ᄂᆞᆯ 뼈 三千아기 徧마다 ᄒᆞ야 너비 一切 모ᄃᆞᆫ 如來ᄅᆞᆯ 供ᄒᆞ겨리여 (15:16-17)

十方ㅋㅓ 有ㄱ 所ㄷ 勝妙華ㅎ 塗香ㅎ 末香ㅎ 無價寶ㅎ 是 如ㅈㅅㄱㄹ 皆ㄷ 手ㄷ 中ㄹ 從ㄷ 出ㅂㅋㅓ 尒 道樹ㅋㅓㄷ 諸ㄱ 最勝ㅂㅎㄱㄹ 供養ㅅㅂㅌㅍ (15:18-19)
十方아기 이신 밧 勝妙華여 塗香여 末香여 無價寶여 이 다ᄒᆞᆫ올 다ᄆᆞᆺ ᄉᆞᆫ 中을 좃 내아곰 道樹엣 모ᄃᆞᆫ 最勝이신을 供養ᄒᆞᄉᆞᆸ나며 (15:18-19)

無價寶衣ㅎ 雜妙香ㅎ 寶ㄷ 幰ㅎ 幡ㅎ 蓋ㅎㅅㅜㅎ 皆ㄷ 嚴好ㅅㄱㅂㅎ 眞金ㄹ 華 爲ㅑㅅㄱㅂㅎ 寶ㄹ 帳 爲ㅑㅅㄱㅂㅎㅅㅜㅁㄹ 皆ㄷ 掌ㄷ 中ㄹ 從ㄷ 雨ㅂㅍ 不ㅅㅍㅜㅅㅍ 莫ㄷㅂㅅㅁㅌㅍ (15:20-21)
無價寶衣여 雜妙香여 寶ㅅ 幰여 幡여 蓋여 호리 다ᄆᆞᆺ 嚴好ᄒᆞᆫ이여 眞金을 華삼ᄒᆞᆫ이여 寶ᄅᆞᆯ 帳 삼ᄒᆞᆫ이여 호리ᄅᆞᆯ 다ᄆᆞᆺ 掌ㅅ 中을 좃 비ᄒᆞᆷ? 안ᄃᆞᆯᄒᆞᆷ더 ᄒᆞᆷ 업시 ᄒᆞ고나며 (15:20-21)

十方ᄋᆞ十 有ᄀ 所ㄴ 諸ᄀ 妙物ㅣ 無上尊ᄅᆞ十 奉獻ᄒᆞ白ᄀᆞᄒᆞ 應可ㄴᄒᆞᄀ 乙 掌ㄴ 中ᄋᆞ十 悉ᄋᆞ 雨ㅣᄀᆞᄀᆞㅁ 備ᄀᆞ尸 不ᄒᆞ尸丁ᄂᆞ尸 無ㅣᄒᆞᄂᆞᄒᆞ 菩提樹ㄴ 前ᄋᆞ十 持ㅣᄋᆞ尒 佛乙 供ᄒᆞ白ㅂᄒᆞ (15:22-23)

十方아기 이신 밧 모ᄃᆞᆫ 妙物이 無上尊의긔 奉獻ᄒᆞᄉᆞ봄 짓ᄒᆞᄂᆞᆯ 掌ㅅ 中아기 다 비히온ᄃᆡ? ᄀᆞᄎᆞᆷ 안ᄃᆞᆯᄒᆞᆶ더 ᄒᆞᆶ 업시 ᄒᆞ겨아 菩提樹ㅅ 前아기 디니아곰 佛을 供ᄒᆞᄉᆞᆸ나며 (15:22-23)

十方ㄴ 一切 諸ᄀ 妓樂ㅣᄀ 鐘ᄉᆞ 鼓ᄉᆞ 琴ᄉᆞ 瑟ᄉᆞᄂᆞᄉᆞᄀ 一ᄀ 類ᄂᆞ 非矣ᄀᆞᄉᆞ 悉ᄋᆞ 和雅ᄒᆞᄇᆞㄴ 妙音聲乙 奏ᄒᆞᄂᆞᄉᆞ乙 於掌ㄴ 中乙 從 出ᄒᆞ尸 不ᄒᆞ尸丁ᄂᆞ尸 靡ㄴㅣᄒᆞᄅᆞᄒᆞᄇᆞㅂᄒᆞ (15:24-16:1)

十方ㅅ 一切 모ᄃᆞᆫ 妓樂인 鐘여 鼓여 琴여 瑟여 호린 ᄒᆞᆫ 類 아니딘여 다 和雅ᄒᆞ낫 妙音聲을 奏ᄒᆞ겨릴 掌ㅅ 中을 좃 出ᄒᆞᆶ 안ᄃᆞᆯᄒᆞᆶ더 ᄒᆞᆶ 업시 ᄒᆞ고나며 (15:24- 16:1)

十方ᄋᆞ十 有ᄀ 所ㄴ 諸ᄀ 讚頌ㅣ 如來尸 實功德乙 俯歎ᄒᆞ白ᄀᆞᄉᆞᄉᆞㄴ 是 如ᄎᆞᄒᆞᄀ 種種 妙言辭乙 皆ㄴ 掌內乙 從ㄴ 而ᄆᆞ 開演ᄒᆞᄅᆞᄒᆞㅂᄒᆞ (16:2-3)

十方아기 이신 밧 모ᄃᆞᆫ 讚頌이 如來ᄲᅳᆷ 實功德을 俯歎ᄒᆞᄉᆞᄇᆞᆫ릿 이 다ᄒᆞᆫ 갓갓 妙言辭ᄅᆞᆯ 다ᄆᆞᆺ 掌內ᄅᆞᆯ 좃 開演ᄒᆞ고나며 (16:2-3)

菩薩ᄀ 右手ᄋᆞ十 淨光乙 放ᄂᆞᄀᆞㅁ 光ㄴ 中ᄋᆞ十ᄀ 香水乙 空乙 從ㄴ 雨ㅣᄋᆞ 普ㅣ 十方ㄴ 諸 佛土ᄋᆞ十 灑ᄂᆞᄋᆞ尒 一切 世乙 照ㅣᄒᆞᄉᆞㄴ 燈乙 供養ᄂᆞᄅᆞᄒᆞㅂᄒᆞ (16:4-5)

菩薩ᄋᆞᆫ 右手아기 淨光ᄋᆞᆯ 放ᄒᆞᆫᄃᆡ 光ㅅ 中아긴 香水ᄅᆞᆯ 空ᄋᆞᆯ 좃 비히아? 너비 十方ㅅ 諸 佛土아기 灑ᄒᆞ야곰 一切 누리ᄅᆞᆯ 비취시릿 燈을 供養ᄒᆞ고나며 (16:4-5)

又ㄲ 光明乙 放ᄂᆞᄒᆞᄒᆞㄴㅣ 妙莊嚴ᄉᆞᄂᆞᄎᆞᄉᆞ 量ㅣ 無ᄀ 寶蓮華乙 出生ᄂᆞ尸ㅁ 其華ㄴ 色相ᄀ 皆ㄴ 殊妙ᄂᆞᄀ 乙 此乙 以ᄋᆞ 於諸ᄀ 佛乙 供養ᄂᆞᄂᆞᄒᆞ (16:6-7)

ᄯᅩ 光明을 放ᄒᆞ겸싸 妙莊嚴여 호리여 그지 업슨 寶蓮華ᄅᆞᆯ 出生ᄒᆞᆶ더 其華ㅅ 色相은 다ᄆᆞᆺ 殊妙ᄒᆞᄂᆞᆯ 이를 ᄡᅥ 모ᄃᆞᆫ 佛을 供養ᄒᆞ겨며 (16:6-7)

又ㄲ 光明乙 放ㅅ나ㅎ노ㅣ 華莊嚴ㅣ ᄉᆞᄆᆞᆺ 種種ㄴ 妙華乙 集ᄉᆞᄫᆞ아 帳、 爲ᄒᆞᅀᅡ ㅎ나ㄱ乙 普ㅂ 十方ㄴ 諸 國土ᄋᆞ 散ᄉᆞᄫᆞ아 一切 大德尊乙 供養ㅅ나ᄉᆞ (16:8-9)

또 光明을 放ᄒᆞ겸ᄡᅡ 華莊嚴여 호리여 갓갓 妙華ᄅᆞᆯ 集ᄒᆞ야곰 帳 삼견을 너비 十方ㅅ 諸 國土아기 散ᄒᆞ야곰 一切 大德尊ᄋᆞᆯ 供養ᄒᆞ겨며 (16:8-9)

又 光明 放 香莊嚴 種種ㄴ 妙香乙 集ᄉᆞᄫᆞ아 帳、 爲ᄒᆞᅀᅡ ㅎ나ㄱ乙 普ㅂ. 十方ㄴ 諸ㄱ 國土ᄋᆞ 散ᄉᆞᄫᆞ아 一切 大德尊乙 供養ㅅ나ᄉᆞ (16:10-11)

又 光明 放 香莊嚴 갓갓 妙香ᄋᆞᆯ 集ᄒᆞ야곰 帳 삼견을 너비 十方ㅅ 모ᄃᆞᆫ 國土아기 散ᄒᆞ야곰 一切 大德尊ᄋᆞᆯ 供養ᄒᆞ겨며 (16:10-11)

又 光明 放 末香嚴 種種ㄴ 末香乙 聚ᄉᆞᄫᆞ아 帳 爲 普 十方 諸 國土 散 一切 大德尊 供養 (16:12-13)

又 光明 放 末香嚴 갓갓 末香ᄋᆞᆯ 聚ᄒᆞ야곰 帳 爲 普 十方 諸 國土 散 一切 大德尊 供養 (16:12-13)

又 光明 放 衣莊嚴 種種ㄴ 名衣乙 集 帳 爲 普 十方 諸 國土 散 一切 大德尊 供養 (16:14-15)

又 光明 放 衣莊嚴 갓갓 名衣ᄅᆞᆯ 集 帳 爲 普 十方 諸 國土 散 一切 大德尊 供養 (16:14-15)

又 光明 放 寶莊嚴 種種ㄴ 妙寶乙 集 帳 爲 普 十方 諸 國土 散 一切 大德尊 供養 (16:16-17)

又 光明 放 寶莊嚴 갓갓 妙寶ᄅᆞᆯ 集 帳 爲 普 十方 諸 國土 散 一切 大德尊 供養 (16:16-17)

又 光明 放 蓮莊嚴 種種ㄴ 蓮華乙 集 帳 爲 普 十方 諸 國土 散 一切 大德尊 供養 (16:18-19)

又 光明 放 蓮莊嚴 갓갓 蓮華ᄅᆞᆯ 集 帳 爲 普 十方 諸 國土 散 一切 大德尊 供養 (16:18-19)

又 光明 放 瓔莊嚴 種種ㄴ 妙瓔乙 集 帳 爲 普 十方 諸 國土 散 一切 大德尊 供養 (16:20-21)

又 光明 放 瓔莊嚴 갓갓 妙瓔을 集 帳 爲 普 十方 諸 國土 散 一切 大德尊 供養 (16:20-21)

又 光明 放 愉莊嚴 其愉ㄱ 絢煥ㅅ ᄀᆞᆯ 衆ㄱ 色乙 備ᄀᆞᄂᆞㄱᄉᆞ 種種ㄴᄀᆡ 量ᄀᆡ 、無ᄀᆞᆯ 皆ㄴ 殊好ㅅㄱ 乙 此乙 以ᄀᆞᆯ 諸 佛土乙 莊嚴ㅅᄂᆞᄒᆞ (16:22-23)

又 光明 放 愉莊嚴 其愉는 絢煥ᄒᆞ야곰 ᄒᆞᆫ 色을 ᄆᆞᄎᆞ견여 갓갓이 그지 업서 곰 다ᄆᆞᆺ 殊好ᄒᆞᆫ을 이를 ᄲᅥ곰 諸 佛土ᄅᆞᆯ 莊嚴ᄒᆞ겨며 (16:22-23)

種種ㄴ 雜寶ᄆᆞ 莊嚴ㅅㅂㄴ 蓋ᄀᆞᆯ十 衆ㄱ 妙ㄱ 繒幡ᄀᆡ 共ㄴ 垂飾ㅅᄒᆞ 摩尼寶鐸ᄀᆞᆯ十 佛音乙 演ㅅᄒᆞㅅᄉᆞ乙 執持ㅅᄀᆞᆯ 諸ㄱ 如來乙 供養ㅅᄂᆞᄉᆞㄴㄱᆡ (16:24-17:1)

갓갓 雜寶로 莊嚴호낫 蓋아기 ᄒᆞᆫ 奴(ᄒᆞ)ㄴ? 繒幡이 다ᄆᆞᆺ 垂飾ᄒᆞ며 摩尼寶鐸아기 佛音을 演ᄒᆞ며 ᄒᆞ릴 執持ᄒᆞ야곰 모ᄃᆞᆫ 如來ᄅᆞᆯ 供養ᄒᆞ겸ᄊᆞ (16:24-17:1)

手ᄀᆞᆯ十 供具乙 出ㅅᄀᆞᆷ 難ᄀᆡᄒᆞ 思議ㅅᄒᆞᄆ 是ᄀᆡ 、如ᄒᆞ 一ㄱ 導師乙 供養ㅅᄂᆞᄒᆞ 一切 佛ᄉᆞ 所ᄀᆞᆯ十ㄲ 皆ㄴ 是ᄀᆡ 如ᄒᆞㅅᄇᆞᄆᆞㅇ乙 大士ㅋ 三昧神通ㄴ 力ᄉᆞㅅᄒᆞᄂᆞᄒᆞㅣ (17:2-3)

소나기 供具를 出ᄒᆞᆫ디 어려비사 思議호리라 이 다 ᄒᆞᆫ 導師ᄅᆞᆯ 供養ᄒᆞ겨며 一切 부텨 바아기도 다ᄆᆞᆺ 이 다ᄒᆞᆷ ᄃᆞᆯ 大士ᄋᆡ 三昧神通ㅅ 力여 호리겨다 (17:2-3)

菩薩ᄀᆡ 三昧ㄴ 中ᄀᆞᆯ十 住在ㅅᄀᆞᆯㅅㄱ 種種ㄴ 自在ᄆᆞ 衆生乙 攝ㅅᄂᆞᄉᆞᄉᆞ 悉ᄀᆞᆯ 所行ㄴ 功德ㄴ 法乙 、以ᄀᆞᆯ 量ᄀᆡ 無ㄱ 方便ᄆᆞ 而ᄆᆞ 開誘ㅅᄇᆞᄆᆞ (17:4-5)

菩薩이 三昧ㅅ 中아기 住在ᄒᆞ야 ᄒᆞᆫ 갓갓 自在로 衆生올 攝ᄒᆞ겨리여 다 所行ㅅ 功德ㅅ 法을 ᄲᅥ 그지 업슨 方便으로 開誘ᄒᆞᆷ디 (17:4-5)

或ㅅㄱ 如來乙 供養ㅅ白ᄀᆞᄉᆞㄴ 門乙 以ᄀᆞᆯㅅᄇᆞᄀᆞㅅᄂᆞᄒᆞ 或ㅅㄱ 難思ㄴ 布施門乙 以ᄀᆞᆯㅅᄇᆞᄀᆞㅅᄂᆞᄒᆞ (17:6)

ᄯᅩᄒᆞᆫ 如來ᄅᆞᆯ 供養ᄒᆞᄉᆞᄇᆞᄅᆡ 門을 ᄲᅥ ᄒᆞᆷ도 ᄒᆞ며 ᄯᅩᄒᆞᆫ 難思ㅅ 布施門을 ᄲᅥ ᄒᆞᆷ

도 ᄒᆞ며 (17:6)

或 頭陀持戒門 以 或 不動堪忍門 以 或 苦行精進門 以 或 寂靜禪定門 以 (17:7-8)
或 頭陀持戒門 以 或 不動堪忍門 以 或 苦行精進門 以 或 寂靜禪定門 以 (17:7-8)

或 決了ㅅ숫ㄷ 智慧門 以 或 所行ㄷ 方便門 以 或 梵住神通門 以 或 四攝利益門 以 (17:9-10)
或 決了호릿 智慧門 以 或 所行ㄷ 方便門 以 或 梵住神通門 以 或 四攝利益門 以 (17:9-10)

或 福智莊嚴門 以 或 因緣ㅅ 解脫ㅅㅅ숫ㄷ 門 以 或 根ㅅ 力ㅅ 正道ㅅㅅ숫ㄷ 門 以 或 聲門ㅋ 解脫門 以 (17:11-12)
或 福智莊嚴門 以 或 因緣여 解脫여 호릿 門 以 或 根여 力여 正道여 호릿 門 以 或 聲門의 解脫門 以 (17:11-12)

或 獨覺ㅋ 淸淨門 以 或 大乘ㄷ 自在門 以 或 無常ㅅ 衆苦ㅅㅅ숫ㄷ 門 以 或 我ㅅ 壽者ㅅㅅ숫 無ㄱㅂㄷ 門 以 (17:13-14)
或 獨覺ᄋᆡ 淸淨門 以 或 大乘ㅅ 自在門 以 或 無常여 衆苦여 호릿 門 以 或 我여 壽者여 호리 업슨낫 門 以 (17:13-14)

或 不淨離欲門 以 或 滅盡三昧門乙 以ㅅᄇᆞ카ㅅᄂᆞ나ᄀᆞ 諸ㄱ 衆生ㅋ 病 不多 同ᄅᆡㄱ のㄹ 隨ㅎ 悉ᄀᆞ 法藥乙 以ᄀᆞ 而ᄆᆞ 對治ㅅᄂᆞ카 (17:15-16)
或 不淨離欲門 以 或 滅盡三昧門을 뼈 홇도 ᄒᆞ겨아 모ᄃᆞᆫ 衆生ᄋᆡ 病 안ᄃᆞᆯ 오힌 ᄃᆞᆯ 조초 다 法藥을 뼈 對治ᄒᆞ며 (17:15-16)

諸ㄱ 衆生ㅋ 心ㄷ 樂ㅎㅅᄇᆞ 所乙 隨ㅎ 悉ᄀᆞ 方便乙 以ᄀᆞ 而ᄆᆞ 滿足ᄉᆞᄅᆡ카 (17:17)
모ᄃᆞᆫ 衆生ᄋᆡ 心ㅅ 됴홇 바ᄅᆞᆯ 조초 다 方便을 뼈 滿足ᄒᆞ이며 (17:17)

諸ㄱ 衆生ㅋ 行 差別ㅅㄱの乙 隨ㅎ 悉ㅈ 善巧乙 以ㅈ 而ㅱ 成就ᄉㅣㅏㅌㄱ ᄉ 是ㅣ 如ㅅㄱ 三昧神通ㄴ 相乙火 一切 天人ㅣ 能測 莫ㄴㅏㅣ (17:18-19)

모든 衆生의 行 差別ᄒᆞᆫ 둘 조초 다 善巧를 ᄡᅥ 成就ᄒᆞ이ᄂᆞᆫ여 이 다ᄒᆞᆫ 三昧神通ㅅ 얼굴ᄋᆞᆺ 一切 天人이 能測 없겨다 (17:18-19)

妙三昧 有ㅛㅏㅣ 名ㄱ 隨樂ㅅ ㅅㅊㅅ 菩薩ㄱ 此ㅣㅋㅏ 住ㅅㅈㅅㄱ 普ㅣ 觀察ㅅㅁㅗ 宜ㄱㅋㅏ 隨ㅎ 示現ㅅㅈㅅㅎ 衆生乙 度ㅣㅏㅈ 悉ㅈ 歡心ㅱ 法化ㅈㅏ 從ㄴ ㆍ 使ㅣㅎㄲㅁ (17:20-21)

妙三昧 두겨다 일후믄 隨樂여 호리여 菩薩ᄋᆞᆫ 이의긔 住ᄒᆞ야ᄒᆞᆫ 너비 觀察ᄒᆞ고 마ᄌᆞ이기 조초 示現ᄒᆞ야곰 衆生ᄋᆞᆯ 건네겨아 다 歡心으로 法化아기 조치ᄋᆞᆷ더 (17:20-21)

劫ㄴ 中ㅣ 饑饉ㅅㅈㅅㅎ 災難ㅣㅍㅌㅂㄴ 時ㅣㅏㄱ 悉ㅈ 世間ㄴ 諸ㄱ 樂具乙 與ㅅㅏㅈ 其 欲ㅎㄲ 所乙 隨ㅎ 皆ㄴ 滿ㆍ 令ㅣㅈㅅㅎ 普ㅣ 衆生ㅋ 爲ㅈ 饒益乙 作ㅅㅏㅋ (17:22-23)

劫ㅅ 中이 饑饉ᄒᆞ야곰 災難이거낫 ᄢᅦ긴 다 世間ㅅ 모든 樂具를 與ᄒᆞ겨아 그ᄇᆞ라ᄋᆞᆷ? 바ᄅᆞᆯ 조초 다ᄆᆞᆺ 滿 ᄒᆞ이아곰 너비 衆生의 삼 饒益을 作ᄒᆞ겨며 (17:22-23)

或ㅅㄱ 飮食ㄴ 上好ㅅㅎㄴ 味ㅈ 寶衣ㅈ 嚴具ㅈ 衆ㄱ 妙物ㅈㅅㅎ乙 以ㅅㅋ 乃ㅅㅈ 至ㅣ 王位乙 皆ㄴ 能捨ㅅㅋㅅㅈ 施乙 好ㅎㅅㅎㄴ 者乙 悉ㅈ 化ㅈㅏ 從ㄴ ㆍ 令ㅣㅏㅋ (17:24-18:1)

ᄯᅩᄒᆞᆫ 飮食ㅅ 上好ᄒᆞ릿 味여 寶衣여 嚴具여 한 妙物여 호리ᄅᆞᆯ 以ᄒᆞ며 ᄒᆞ사 니르리 王位를 다ᄆᆞᆺ 能捨ᄒᆞ며 ᄒᆞ야 施를 됴ᄒᆞ릿 노ᄆᆞᆯ 다 化아기 조치겨며 (17:24-18:1)

或ㅅㄱ 相好ㅱ 莊嚴ㅅㅂㄴ 身ㅈ 上妙衣服ㅈ 寶瓔珞ㅈㅅㅎ乙 以ㅋ 華鬘乙 飾ㆍ 爲ㅈㅋ 香乙 體ㅈㅏ 塗ㅅㅋㅅㅈ 威儀乙 具足ㅅㅈㅅㅎ 衆生乙 度ㅣㅏㅋ (18:2-3)

ᄯᅩᄒᆞᆫ 相好로 莊嚴호낫 身여 上妙衣服여 寶瓔珞여 호리ᄅᆞᆯ ᄡᅳ며 華鬘ᄋᆞᆯ 飾 사

ᄆᆞ며 香ᄋᆞᆯ 體아기 塗ᄒᆞ며 ᄒᆞ야 威儀를 具足ᄒᆞ야곰 衆生ᄋᆞᆯ 건네겨며 (18:2-3)

一切世間ᄋᆞᆨ 好ᄉᆞ 尙ᄀᆞᄆᆞ 、所ᄂᆞᆫ 色相ᄋᆞ 顔容ᄋᆞ 及ᄂᆞᆫ 衣服ᄋᆞᄂᆞᄉᆞᆫᄋᆞᆯ 應ᄂᆞᆫᄃᆞᆫᄀᆞ 、隨ᄀᆞ 普 現ᄀᆞᄆᆞᄀᆞ 其心ᄋᆞᄒᆞᆫ 愜ᄒᆞᆫᄃᆞᆫ 色ᄋᆞᆯ 樂ᄀᆞᆫᄃᆞᆫᄉᆞᆫ 者ᄀᆞᆫᄋᆞᆯ 皆ᄂᆞᆫ 道ᄋᆞᄒᆞᆫ 從ᄂᆞᆫ 、俾ᄇᆡᄂᆞᄉᆞᆫ (18:4-5)

一切世間ᄋᆡ 됴ᄒᆞ며 노ᄑᆞᆷ 밧 色相여 顔容여 ᄆᆡ 衣服여 호리ᄅᆞᆯ 맛ᄒᆞᆫ 조초 너비 나ᄃᆞᆫ 其心아기 愜히? ᄒᆞ야 色ᄋᆞᆯ 됴ᄒᆞ릿 노ᄆᆞᆯ 다ᄆᆞᆺ 道아기 조치겨며 (18:4-5)

迦陵頻伽ᄋᆞᆨ 美妙ᄂᆞᆫᄇᆞᆫᄂᆞᆫ 音ᄋᆞ 俱枳羅等ᄋᆡᄂᆞᆫᄀᆞᆨ 妙音聲ᄋᆞ 種種ᄂᆞᆫ 梵音ᄋᆞᄂᆞᄉᆞᆫ 乙 皆ᄂᆞᆫ 具足ᄂᆞᆫᄉᆞᆫᄃᆞ 其心樂乙 隨ᄀᆞ 爲ᄋᆞᄀᆞ 說法ᄂᆞᆫᄉᆞᆫᄉᆞᆫ (18:6-7)

迦陵頻伽ᄋᆡ 美妙ᄒᆞ낫 音여 俱枳羅 다ᄒᆞᆫᄋᆡ 妙音聲여 갓갓 梵音여 호리ᄅᆞᆯ 다ᄆᆞᆺ 具足ᄒᆞ겨아 其心樂ᄋᆞᆯ 조초 사모 說法ᄒᆞ겨며 (18:6-7)

八萬四千ᄂᆞᆫ 諸ᄀᆞ 法門乙 諸ᄀᆞ 佛ᄀᆞ 此乙 以ᄃᆞ 衆生乙 度ᄇᆡᄒᆞᄐᆞᄀᆞ乙 彼ᄀᆞ 亦ᄂᆞᆫᄀᆞ 其差別法乙 如ᄇᆞᆫ 世ᄂᆞᆫ 宜ᄀᆞ 所乙 隨ᄀᆞ 而ᄆᆞᆫ 化度ᄂᆞᆫᄉᆞᆫᄉᆞᆫ (18:8-9)

八萬四千ㅅ 모ᄃᆞᆫ 法門을 모ᄃᆞᆫ 佛은 이ᄅᆞᆯ 뼈 衆生ᄋᆞᆯ 건네시ᄂᆞᆫᄋᆞᆯ 뎌도 ᄯᅩᄒᆞᆫ 其差別法을 ᄀᆞᆮ 누릿 마ᄌᆞᆫ 바ᄅᆞᆯ 조초 化度ᄒᆞ겨며 (18:8-9)

衆生ᄋᆞᆨ 苦ᄉᆞ 樂ᄉᆞ 利ᄉᆞ 衰ᄉᆞᄂᆞᆫᄆᆞ 等ᄋᆡᄂᆞᆫᄀᆞ 一切世間ᄂᆞᆫ 作ᄂᆞᆫᄐᆞᄀᆞ 所ᄂᆞᆫ 法ᄋᆞᄒᆞᆫ 悉ᄋᆞ 能ᄒᆞᆫ 應現ᄂᆞᆫᄋᆞᄋᆞᆯ 其事ᄋᆞᆨᄒᆞᆫ 同ᄂᆞᆫᄉᆞᆫᄃᆞ 此乙 以ᄃᆞᄋᆞᆯ 普ᄇᆡ 諸ᄀᆞ 衆生乙 度ᄇᆡᄂᆞᄉᆞᆫ (18:10-11)

衆生ᄋᆡ 苦여 樂여 利여 衰여 홇 다ᄒᆞᆫ 一切世間ㅅ 作ᄒᆞᄂᆞᆫ 밧 法아기 다 잘? 應現ᄒᆞ야곰 其事ᄋᆡ긔 同ᄒᆞ겨아 이ᄅᆞᆯ 뼈곰 너비 모ᄃᆞᆫ 衆生ᄋᆞᆯ 건네겨며 (18:10-11)

一切世間ᄂᆞᆫ 衆ᄀᆞ 苦患ᄀᆞ 深ᄂᆞᆫᄒᆞᆫᄃᆞ 廣ᄂᆞᆫᄒᆞᆫᄂᆞᆫᄉᆞᆫᄃᆞᄋᆞᆯ 涯ᄋᆞᆨ 無ᄀᆞᄋᆞᆺ 大海、如ᄒᆞᆫᄂᆞᆫᄆᆞᄀᆞ乙 彼乙 與ᄂᆞᆫ 同事ᄂᆞᆫᄉᆞᆫᄃᆞᄋᆞᆯ 悉 能ᄒᆞᆫ 忍ᄂᆞᆫᄉᆞᆫᄃᆞ 其乙 利益ᄂᆞᆫᄉᆞᆫᄃᆞᄋᆞᆯ 安樂乙 得ᄇᆡ、令ᄇᆡᄂᆞᄉᆞᆫ (18:12-13)

一切世間ㅅ 한 苦患은 深ᄒᆞ져 廣ᄒᆞ져 ᄒᆞ야곰 涯ᄋᆡ 업슨 ᄃᆡ 大海 다ᄒᆞᆫ곤ᄋᆞᆯ

뎌를 다ᄆᆞᆺ 同事ᄒᆞ야곰 다 잘? 忍ᄒᆞ야 그를 利益ᄒᆞ야곰 安樂ᄋᆞᆯ 얻이겨며? (18:12-13)

若ㄷᆡ 有ᄂᆞᆫ 出離ㄷᆡ 法ㄹᆞᆯ 識ᄒᆞᆫᄃᆡ 不ᄒᆞᆫᄀᆞᆺ 解脫ᄒᆞᄋᆞᆷ 誼慣ㄹᆞᆯ 離ᄒᆞᆫᄃᆡᄋᆞㄹᆞᆯ 求ᄃᆡ 不ᄒᆞᆫᄒᆞᆫᄒᆞᆫᄃᆞ 菩薩ㄱᆡ 爲ᄒᆞᄋᆞᆷ 國ᄃᆞ 財ᄃᆞᄂᆞᆫᄀᆞᆷᄋᆞᆯ 捨ᄒᆞᄂᆞᆫᄅᆞ 常ᄇᆡ 出家ᄂᆞᆫᄃᆡᄋᆞᆯ 樂ᄒᆞᆷᄒᆞᄋᆞᆷ 心ᄒᆞᆷ 寂靜ᄂᆞᆫᄀᆞᆺᄋᆞᆯ、現ᄒᆞᆷᄂᆞᆫᄀᆞᆺ (18:14-15)

ᄒᆞ다갓 잇겨다 出離ㅅ 法을 識ᄒᆞᆷ 안ᄃᆞᆯᄒᆞ며 解脫ᄒᆞ야곰 誼慣을 여희옳 ᄃᆞᆯ 차ᄌᆞᆷ? 안ᄃᆞᆯᄒᆞ겨리여 菩薩은 사모 國여 財여 호리ᄅᆞᆯ 捨ᄒᆞ고 샹녜 出家ᄒᆞᆷ ᄃᆞᆯ 됴ᄒᆞ야곰 ᄆᆞᅀᆞᆷ 寂靜ᄒᆞᆫ ᄃᆞᆯ 나토겨며 (18:14-15)

家ㄱᆡ 是ㄱᆡ 貪愛繫縛ㄷᆡ 所ᄇᆡㅂᆡ 衆生ㄹᆞᆯ 悉ᄉᆞ 免離ᄒᆞ、使ᄇᆡ 欲ㅅ 故ᄀᆞᆫ 出家ᄒᆞᄋᆞᆷ 解脫ㄹᆞᆯ 得ᄉᆞ 於諸ㄱᆡ 欲樂ᄉᆞᆫ 受ᄒᆞᆷᄃᆡ 所ᄉᆞ 無ᄒᆞᆷᄀᆞᆺᄋᆞᆯ、示ᄇᆡᄂᆞᆫᄀᆞᆺ (18:16-17)

家ᄂᆞᆫ 이ᄂᆞᆫ 貪愛繫縛ㅅ 고디니 衆生ᄋᆞᆯ 다 免離ᄒᆞ이과 出家ᄒᆞ야곰 解脫ᄋᆞᆯ 어더 모ᄃᆞᆫ 欲樂아기 바ᄃᆞᆷ 바 업손 ᄃᆞᆯ 보이겨며 (18:16-17)

菩薩ㄱᆡ 十ᄃᆡ 種 行ㄹᆞᆯ 行ᄒᆞᆫᄃᆞ 亦ᄒᆞᆫㄱᆡ 一切大人ㅋᆞ 法ㄹᆞᆯ 行ᄒᆞᆫᄃᆞᄒᆞᆫᄃᆞᄒᆞᆷᄀᆞᆺᄋᆞᆯ、示ᄇᆡᄂᆞᆫᄀᆞᆺ 諸ㄱᆡ 仙ㄷᆡ 行等ㅣᄒᆞᆫᄀᆞㄹᆞᆯᄀᆞᆷ 悉ᄉᆞ 餘ᄒᆞᆫㄱᆡ 無ᄇᆡᄒᆞᆫᄂᆞᆫᄒᆞᆷᄃᆡㅣ 衆生ㄹᆞᆯ 利益ᄒᆞᆫ、爲欲ㅅᄒᆞᆫᄃᆡᄋᆞᆷ 故ᄃᆞ (18:18-19)

菩薩은 열 갓 行ᄋᆞᆯ 行ᄒᆞ져 ᄯᅩᄒᆞᆫ 一切大人의 法을 行ᄒᆞ져 ᄒᆞᄂᆞᆫ ᄃᆞᆯ 보이며 모ᄃᆞᆫ 仙ㅅ 行 다ᄒᆞᆫᄋᆞᆯ아도 다 남ᄒᆞᆫ 업시 ᄒᆞ겸짜 衆生ᄋᆞᆯ 利益ᄒᆞ과 ᄒᆞᆷ ᄃᆞ로여 (18:18-19)

若ㄷᆡ 有ᄂᆞᆫ 衆生ᄇᆡ 壽ᄒᆞᆷ 量、無ㄱᆞᄉᆞ 煩惱微細ᄒᆞᆫᄃᆞ 樂具足ᄒᆞᆫᄃᆞᄒᆞᆫᄂᆞᆫㄱᆡㅂᆡᄉᆞ 菩薩ㄱᆡ 於中ᄉᆞᆫ 自在ㄹᆞᆯ 得ᄂᆞᆫㄱᆞᆺᄋᆞᆷ 老病死ㄷᆡ 衆ㄱᆡ 患ㄹᆞᆯ 受ᄐᆞᆷㄱᆞᆺᄋᆞᆯ 示ᄇᆡᄂᆞᆫᄀᆞᆺ (18:20-21)

ᄒᆞ다갓 잇겨다 衆生이 숨 그지 업손여 煩惱微細ᄒᆞ져 樂具足ᄒᆞ져 ᄒᆞ견이여 菩薩은 中아기 自在ᄅᆞᆯ 얻견 ᄃᆞ로 老病死ㅅ 한 患ᄋᆞᆯ 받ᄂᆞᆫ ᄃᆞᆯ 보이겨며 (18:20-21)

或ㄱ 有ナㅣ 貪欲ᄉ 瞋恚ᄉ 癡ᄉ ノ仝ヒ 煩惱ヒ 猛火ㅣ 常ㅣ 熾然ンナㄱ ㅣカ ᄉ 菩薩ㄱ 爲ㄱ 老病死乙 現ㄱᄀ尓 彼 衆生乙 悉ᄀ 調伏、 令ㅣナカ (18:22-23)

또 잇겨다 貪欲여 瞋恚여 癡여 호릿 煩惱ㅅ 猛火이 상녜 熾然ᄒ견이며여 菩薩은 사모 老病死롤 나토아곰 더 衆生올 다 調伏 ᄒ이겨며 (18:22-23)

如來ㄕ 十力ᄉ 無所畏ᄉ 及ヒ 以ᄀ 十八不共法ᄉ 有ㅛㅎㄱㄱ 所ヒ 量、無ㄱ 諸ㄱ 功德ᄉノ仝乙 悉ᄀ 以ᄀ尓 示現ンᄀ 衆生乙 度ㅣナカ (18:24-19:1)

如來ㅱ 十力여 無所畏여 밋 뼈 十八不共法여 두시온 밧 그지 업슨 모든 功德여 호리롤 다 뼈곰 示現ᄒ야 衆生올 건네겨며 (18:24-19:1)

記心ᄉ 敎誡ᄉ 及ヒ 神足ᄉノ仝ㄱ 悉ᄀ 是ㄱ 如來ㄕ 自在 用ㅣㅎㄱ乙 彼 諸ㄱ 大士ㄱ 皆ヒ 示現ンᄀ尓 能ᄎ 衆生乙 盡ᄀ 調伏、使ㅣナカ (19:2-3)

記心여 敎誡여 밋 神足여 호린 다 이논 如來ㅱ 自在 用이신을 더 모든 大士ᄂᆞᆫ 다못 示現ᄒ야곰 能히? 衆生올 다ᄋᆞ아 調伏 ᄒ이겨며 (19:2-3)

菩薩ㄱ 種種ヒ 方便門乙ᄆ 世ヒ 法ᄀ十 隨ㄱ 順ヒンᄀ 衆生乙 度ㅣㄱㄕム 譬のㄱ 蓮華ㅣ 水ᄀ十 著 不ノㄕ 如ᄎ 是 如ᄎ 世ㅣ十 在ンᄀ尓 深信、令ㅣナㅎヒㅣ (19:4-5)

菩薩은 갓갓 方便門으로 누릿 法아기 조초 좃ᄒ야? 衆生올 건네옳ᄃᆡ 가줄비ᄃᆞᆫ 蓮華이 므라기 著 안ᄃᆞᆯ홇 다 이 다 누리긔 在ᄒ야곰 深信 ᄒ이겸짜 (19:4-5)

雅思ㅣᄎ 淵才ㅣᄎンᄀ 文中ᄀヒ 王ㅣㄕのノンナカ 歌舞ンᄎ 談說ンᄎノㄕム 衆 欣ノㄕ 所ㅣㄕのノンカ 一切世間ᄀヒ 衆ㄱ 技術乙ノㄕム 譬のㄱ 幻師 如ᄎンᄀ尓 現ㄱㄕ 不ンㄕ丁ノㄕ 無ナカ (19:6-7)

雅思이져 淵才이져 ᄒ야 文中엣 王읳 ᄃᆞᆯ ᄒ겨며 歌舞ᄒ져 談說ᄒ져 홇ᄃᆡ 한 欣홇 바읳 ᄃᆞᆯ ᄒ며 一切世間앳 모든 技術을 홇ᄃᆡ 가줄비ᄃᆞᆫ 幻師 다ᄒ야곰 나ᄐᆞᆷ 안ᄃᆞᆯ홇뎌 홇 없겨며 (19:6-7)

或ㅅ기 長者ㅣ ᄆᆞᅀᆞᆯ 邑ᄋᆡ 中ᄒᆞ야 主ㅣ尸 、爲の乙ㅅ가 或ㅅ기 賈客ㅣ ᄆᆞᅀᆞᆯ 商人ᄋᆞᆯ 導ㅣ尸 、爲の乙ㅅ가 或 國王ᄋᆞ 及ᄋᆡ 大臣ㅣ尸 、爲の乙ㅅ가 或ㅅ기 良醫ㅣ尸の乙 作ㅅᄒᆞᄉᆞᆯ 衆기 論乙 善ᄒᆞᆫㅅ가 (19:8-9)

ᄯᅩᄒᆞᆫ 長者이라곰 邑ㅅ 中엣 主읳 ᄃᆞᆯ ᄒᆞ며 ᄯᅩᄒᆞᆫ 賈客이라 商人의 導읳 ᄃᆞᆯ ᄒᆞ며 ᄯᅩ 國王여 밋 大臣읳 ᄃᆞᆯ ᄒᆞ며 ᄯᅩᄒᆞᆫ 良醫읳 ᄃᆞᆯ 作ᄒᆞ야곰 ᄒᆞᆫ 論ᄋᆞᆯ 이대 ᄒᆞ며 (19:8-9)

或ㅅ기 於曠野ᄒᆞ야 大樹ㅣ尸の乙 作ㅅ가 或ㅅ기 良藥ᄋᆞ 衆기 寶藏ᄋᆞ ノ夭尸 爲の乙ㅅ가 或ㅅ기 寶珠ㅣ尸の乙 作ㅅᄒᆞᄉᆞᆯ 求ノ尸 所乙 隨 或ㅅ기 正道乙 以ᄒᆞ 衆生ᄋᆞᆯ야 示ㅣナ가 (19:10-11)

ᄯᅩᄒᆞᆫ 曠野아기 大樹읳 ᄃᆞᆯ 作ᄒᆞ며 ᄯᅩᄒᆞᆫ 良藥여 ᄒᆞᆫ 寶藏여 호릻 ᄃᆞᆯ ᄒᆞ며 ᄯᅩᄒᆞᆫ 寶珠읳 ᄃᆞᆯ 作ᄒᆞ야곰 求홇 바ᄅᆞᆯ 좃 ᄯᅩᄒᆞᆫ 正道ᄅᆞᆯ 뼈 衆生이기 보이겨며 (19:10-11)

若ᄒᆞ 世界ㅣ 始ᄀᆞ 成立ㅅ고ᄀᆞ ᄉᆞ 衆生기 資身ᄒᆞ 具乙 有ㅓ尸 未ㅣノ기の乙 、見ㅁㅏᄀᆞ 是ᄉᆞᄒᆞㅅ기 時十 菩薩기 工匠ㅣ尸 爲の乙ㅅ가 之ᄋᆞᆯ 爲ᄋᆞᄀᆞ 種種ᄒᆞ 業乙 示現ノ尸ㅁ (19:12-13)

ᄒᆞ다갓 世界이 비르소 成立ᄒᆞ건여 衆生은 資身ㅅ 具를 둟 아니ᄒᆞᆫ ᄃᆞᆯ 보곡은 엿ᄒᆞᆫ 뗘 菩薩은 工匠읳 ᄃᆞᆯ ᄒᆞ며 뎌의 삼 갓갓 業을 示現홇ᄃᆡ (19:12-13)

衆生乙 逼惱ノ今ᄒᆞ 物ᄒᆞ乙 作ㅅナ今기 不矢ㅣ 但ㅅ 世間乙 利益ノ今ᄒᆞ 事乙 說ㅅナᄒᆞᄉᆞᆯ 呪術ᄋᆞ 藥草ᄋᆞ尸 等ㅣㅅ기 衆기 論ㅣ기 是 如ㅅ기 有기 所乙 皆ᄒᆞ 能ᄒᆞᆫ 說ナ가 (19:14-15)

衆生올 逼惱호릿 가ᄌᆞᆯ 作ᄒᆞ겨린 아니디비 오직 世間올 利益호릿 이ᄅᆞᆯ 說ᄒᆞ겨아 呪術여 藥草여 홇 다ᄒᆞᆫ ᄒᆞᆫ 論인 이 다ᄒᆞᆫ 이신 바ᄅᆞᆯ 다ᄆᆞᆺ 잘? 니ᄅᆞ겨며 (19:14-15)

一切仙人ᄋᆞᆯ 殊勝行기 人天等ㅣㅅㅂㅌㅣ 類尸 同ㅣ 信仰ノ夭기乙 是、如ᄒᆞᆫ 難行ノ今ᄒᆞ 苦行ᄒᆞ 法乙 菩薩기 應ᄒᆞノ기 隨ᄀᆞ 悉ᄒᆞ 能ᄒᆞᆫ 作ㅅナ가 (19:16-17)

一切仙人의 殊勝行은 人天 다ᄒᆞ낫 물? 오히 信仰호린을 이 다 難行호릿 苦

行ㅅ 法을 菩薩은 맛혼 조초 다 잘? 作ᄒᆞ겨며 (19:16-17)

或ᄂᆞᆫ 外道出家人ㅣ尸の乙 作ᄂᆞᆫᄀᆞ 或ᄂᆞᆫ 山林ᄋᆞ十 在ᄂᆞᄋᆞ尒 自ㄱᄆᆞ 勤苦ᄂᆞᆫᄀᆞ (19:18)
또ᄒᆞᆫ 外道出家人잃 ᄃᆞᆯ 作ᄒᆞ며 또ᄒᆞᆫ 山林아기 在ᄒᆞ야곰 ᄉᆡᄉᆡ로 勤苦ᄒᆞ며 (19:18)

或ᄂᆞᆫ 形體乙 露ᄆᆞᄋᆞ尒 衣服、無ᄆᆞᄀᆞの乙ᄂᆞᄋᆞ 而ᄆᆞ 於彼衆ㄱ十 師長ㅣ尸の乙 作ᄂᆞᆫᄀᆞ (19:19)
또ᄒᆞᆫ 形體를 나토아곰 衣服 업손 ᄃᆞᆯ ᄒᆞ야 彼衆의긔 師長잃 ᄃᆞᆯ 作ᄒᆞ며 (19:19)

或ᄂᆞᆫ 邪命ㄴ 種種ㄴ 行乙 現ᄆᆞᄋᆞ 非法乙 習行ᄂᆞᄋᆞ尒 以ᄋᆞ 勝ᄂᆞᆫ 爲ᄉᆞ尸 ᄀᆞᄂᆞᆫᄀᆞ (19:20)
또ᄒᆞᆫ 邪命ㅅ 갓갓 行ᄋᆞᆯ 나토아 非法을 習行ᄒᆞ야곰 뼈 勝ᄒᆞᆫ 사ᄆᆞᆷ도 ᄒᆞ며 (19:20)

或ᄂᆞᆫ 梵志尸 諸ㄱ 威儀乙 現ᄆᆞᄋᆞ尒 於彼衆ㄴ 中ᄋᆞ十 上首ㅣ尸 爲の乙ᄂᆞᆫᄀᆞ (19:21)
또ᄒᆞᆫ 梵志ᄆᆞ 모ᄃᆞᆫ 威儀를 나토아곰 彼衆ㅅ 中아기 上首잃 ᄃᆞᆯ ᄒᆞ겨며 (19:21)

或ᄂᆞᆫ 五熱乙 受ᄋᆞ 日乙 隨ᄋᆞ 轉ᄂᆞᆫᄀᆞ 或ᄂᆞᆫ 牛ᄉᆞ 狗ᄉᆞ 及ㄴ 鹿ᄉᆞノ令ㄱ 戒乙 持ᄂᆞᆫᄀᆞ (19:22)
또ᄒᆞᆫ 五熱을 바다 ᄂᆞᄅᆞᆯ 조차 轉ᄒᆞ겨며 또ᄒᆞᆫ 牛여 狗여 ᄆᆡ 鹿여 호리ᄋᆡ 戒를 持ᄒᆞ며 (19:22)

或ᄂᆞᆫ 壞衣乙 著ᄂᆞᄋᆞ尒 火乙 奉事ᄂᆞᆫᄀᆞᄂᆞᄋᆞ 是ㅣ 等ㅣᄂᆞᆫᄀᆞ乙 化ᄂᆞ 爲ㅅ 導師ㅣ尸の乙 作ᄂᆞᆫᄀᆞ (19:23)
또ᄒᆞᆫ 壞衣를 著ᄒᆞ야곰 브를 奉事ᄒᆞ며 ᄒᆞ야 이 다ᄒᆞᆫ올 化ᄒᆞ과 導師잃 ᄃᆞᆯ 作ᄒᆞ겨며 (19:23)

或ㄱ 有ナㅣ 諸ㄱ 天廟乙 謁ソトマクの乙 示リヌㄱ矢ミ 或ナㅣ 復ソㄱ 恒河水ミ十 入ノㄱの乙 示リヌㄱ矢ミ (19:24)

또 잇겨다 모든 天廟를 謁ᄒᆞ논 ᄃᆞᆯ 보이논 디여 (또 잇)겨다 또ᄒᆞᆫ 恒河水아기 入ᄒᆞᆫ ᄃᆞᆯ 보이논 디여 (19:24)

根ミ 果ミソ尸 等ㅣソㄱ乙 食ソトマクの乙 悉ミ 示ソき 行ソきソミ 於彼リ十 常リ 己ラ十 勝ソヒヒ 法乙 思ムリナカ (20:1)

根여 果여 ᄒᆞᆷ 다ᄒᆞᆫ올 食ᄒᆞ논 ᄃᆞᆯ 다 示ᄒᆞ져 行ᄒᆞ져 ᄒᆞ야 뎨긔 샹녜 저의긔? 勝ᄒᆞ낫 法을 思ᄒᆞ이겨며 (20:1)

或ソㄱ 蹲踞ノㄱの乙 現マカ 或ソㄱ 堯羽足ソカ 或ソㄱ 草棘ミ 及ヒ 灰上ミ ノ仝ラ十 臥ソカ (20:2)

또ᄒᆞᆫ 蹲踞ᄒᆞᆫ ᄃᆞᆯ 나토며 또ᄒᆞᆫ 堯羽足ᄒᆞ며 또ᄒᆞᆫ 草棘여 밋 灰上여 호리의긔 臥ᄒᆞ며 (20:2)

或ソㄱ 復カ 杵ミ十 臥ソミホ 出離ノ尸の乙 求ソカノ尸ム 而ㅠ 於彼衆ラ十 師首リ尸の乙 作ソナウヒㅣ (20:3)

또ᄒᆞᆫ 또 杵아기 臥ᄒᆞ야곰 出離홇 ᄃᆞᆯ 求ᄒᆞ며 홇ᄃᆡ 彼衆의긔 師首잃 ᄃᆞᆯ 作ᄒᆞ겸짜 (20:3)

是、如支 等ソㄱ 類 諸ㄱ 外道ラ十 其意解乙 觀ソロ 與ヒ 同事ソナミ 示リマㄱ 所ヒ 苦行火ヒハ尸のㄱ 世リ十 堪リ矢ソミ仝 靡ヒリソミホ 彼乙 見リ尸已ミソロ 皆ヒ 調伏、令リロヒカ (20:4-5)

이 다ᄒᆞᆫ 물 모ᄃᆞᆫ 外道ᄋᆡ기 其意解ᄅᆞᆯ 觀ᄒᆞ고 다ᄆᆞᆺ 同事ᄒᆞ겨아 보이온 밧 苦行ᄇᆞᆺ깂? ᄃᆞᆫ 누리긔 맛디디? ᄒᆞ야리 업시 ᄒᆞ야곰 뎌를 보잃 이믜사 ᄒᆞ고 다ᄆᆞᆺ 調伏 ᄒᆞ이고나며 (20:4-5)

衆生ㄱ 迷惑ソミホ 邪敎乙 稟ソナㄱのㅠ 於惡見ミ十 住ソミ 衆ㄱ 苦乙 受トㄱ乙 其ラ 方便乙ㅠ 爲ミ 妙法乙 說ミ 悉ミ 得ミホ 眞實諦乙 解ソ、令リマㄱム (20:6-7)

衆生온 迷惑ᄒᆞ야곰 邪敎ᄅᆞᆯ 稟ᄒᆞ견 ᄃᆞ로 惡見아기 住ᄒᆞ야 한 苦ᄅᆞᆯ 받ᄂᆞᆫᄋᆞᆯ 그의 方便으로 삼 妙法을 닐어 다 시러곰 眞實諦를 解ᄒᆞ이온ᄃᆡ (20:6-7)

或ㅅᄀᆡ 邊呪語ᄆᆞᆫ 四諦乙 說尸ㄱㅅᄉᆞᆨ 或ㅅᄀᆡ 善密語ᄆᆞᆫ 四諦乙 說尸ㄱㅅᄉᆞᆨ (20:8)
ᄯᅩᄒᆞᆫ 邊呪語로 四諦를 니ᄅᆞᆷ도 ᄒᆞ며 ᄯᅩᄒᆞᆫ 善密語로 四諦를 니ᄅᆞᆷ도 ᄒᆞ며 (20:8)

或 人ㅋ 直語ᄆᆞᆫ 四諦 說 或 天ㅋ 密語ᄆᆞᆫ 四諦乙 說 (20:9)
或 人의 直語로 四諦 說 或 天의 密語로 四諦를 說 (20:9)

文字乙 分別ㅅᄋᆞᆫ 四諦 說 決定ㅅᄇᆞᆫᄂᆞᆫ 義理ᄆᆞᆫ 四諦 說 (20:10)
文字ᄅᆞᆯ 分別ᄒᆞ야 四諦 說 決定ᄒᆞ낫 義理로 四諦 說 (20:10)

善ᄎᆞ 於他乙 破ㅅᄋᆞᆫ 四諦 說 外尸 動ㅅᄋᆞᆫㄱ尸 所ᄋᆞᆫ、 非ᄉᆞᄆᆞ 四諦 說 (20:11)
이대 他ᄅᆞᆯ 破ᄒᆞ야 四諦 說 外ᄆᆞ 動ᄒᆞ야옳 바 아니디라 四諦 說 (20:11)

或 八部語ᄆᆞᆫ 四諦 說 或 一切語ᄆᆞᆫ 四諦乙 說尸ㄱㅅᄉᆞᆨㅅᄋᆞᆫ (20:12)
或 八部語로 四諦 說 或 一切語로 四諦를 니ᄅᆞᆷ도 ᄒᆞ며 ᄒᆞ야 (20:12)

彼ㅋ 解ㅅ尸 所ㄷ 語言音乙 隨ㄱ 爲ᄋᆞᆫㄱ 四諦乙 說ᄋᆞᆫ尒 解脫、 令ㅂㄴㅎㄷㅣ (20:13)
뎌의 解홇 밧 語言音을 조초 사모 四諦를 닐아곰 解脫 ᄒᆞ이겸ᄊᆞ (20:13)

有ㄱ 所ㄷ 一切 諸ㄱ 佛法乙 皆ㄷ 是ㅂ 如ᄎᆞ 說ㄱ尸ㅁ 盡尸 不ㅅ尸丁ㅅ尸 無ㅂㅅᄂᆞᆫᄉᆞᆨ (20:14)
이신 밧 一切 모ᄃᆞᆫ 佛法을 다ᄆᆞᆺ 이 다 닐옳ᄃᆡ 다옳 안ᄃᆞᆯ홇뎌 홇 업시 ᄒᆞ겨아 (20:14)

語ヒ 境界 不思議ㅐㄱのㄹ 知ナ尸のㄹ 是ㄹ 名下 說法三昧ヒ 力ㅅノ王ナㅣ (20:15)

語ㅅ 境界 不思議인 ᄃᆞᆯ 알ᄭᅳᆯ ᄃᆞᆯ 이ᄅᆞᆯ 일하 說法三昧ㅅ 力여 호리겨다 (20:15)

참고 문헌

郭忠求(1994),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太學社.

_____(1995), 「江原道 北部地域의 言語分化」, 『同大論叢』 24.

權仁瀚(1997), 「한자음의 변화」, 『國語史 硏究』, 태학사.

金斗燦(1997), 「'舊譯仁王經' 口訣 解讀 試攷」, 『口訣硏究』 2.

金永萬(1986), 「'舊譯仁王經'의 釋讀表記 小考」, 『國語學新硏究』(金敏洙敎授 華甲紀念), 塔出版社.

南權熙(1996), 「高麗 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四의 書誌的 分析」, 『口訣硏究』 1.

_____(1997),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南豊鉉(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국학연구』(연세대 국학연구원) 논문 발표 요지.

_____(1996가),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ㅁ/ㄹ'에 대한 考察」, 『口訣硏究』 1.

_____(1996나), 「'金光明經' 卷三 釋讀口訣에 나타난 ㅁ의 用法에 대하여」,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_____(1996다),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國語學』 28.

_____(1997),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ㅅ와 ㅿ의 原字에 대하여」, 『語文學論叢』(淸凡陳泰夏敎授啓七頌壽紀念), 태학사.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백두현(1995),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ㅭ-', '-白-'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 29.

沈在箕(1993), 「또 하나의 복합어」,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구두 발표 논문.

安秉禧(1987), 「均如의 方言本 著述에 대하여」, 『國語學』 16.

李建植(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대한 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李崇寧(1955/78), 『新羅時代의 表記法 體系에 대한 試論』, 塔出版社.
李丞宰(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國語學』 23.
_____(1994),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形態音素論的 硏究」, 『震檀學報』 78.
_____(1995), 「'華嚴經' 口訣의 狀態動詞 語幹」, 『韓日語學論叢』(李鍾徹先生 回甲紀念論叢), 國學資料院.
李丞宰(1996),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 '-ナ(겨)-'」, 『李基文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신구문화사.
_____(1998),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敬語法 體系」, 『國語 語彙의 基盤과 歷史』(『심재기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이장희(1995), 「'華嚴經' 口訣字 'ㅁ'의 기능과 독음」, 『어문학』 56.